

SEOUL NATIONAL UNIVERSITY M274 & 1 2017 년 2월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news@sn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Fax: 484-342-0222 | 발행인: **손재옥** 편집인: **김정현**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지난 2월 4일 Norwalk에 위치한 Double Tree by Hilton에서 2017년 남가주총동 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210 여명의 동 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민일기 총무국장(약대 69)의 사회로 시 작된 1부 순서는 개회선언(오형원, 의대 53)에 이어 미국 국가(선창: 서영란, 음대 75)와 애국가(선창: 정인환, 법대 54) 및 교가(선창: 조용국, 사대 94) 제창이 있었 다. 다음 민일기 총무국장의 역대회장 소 개에 이어 2016년도 사업보고가 있었고, 한귀희 부재무(미대 68)의 재무보고로 이

이어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은 이 임사에서 "2017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참 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여러분 과 함께 있었기에 지난 1년간의 41대 동창 회장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땀 흘리며 함께 일한 임원들과 이 사님들, 그리고 단과대학 회장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과의 인연 을 소중히 여기고 그 추억들을 제 마음 속 깊이 담아두겠습니다. 200 여명의 동문들 이 참석한 지난 5월의 동문가족 야외 바베 큐 파티, 연인원 350여명의 동문들이 캠프 를 하며 즐거움을 나눈 노동절 연휴 2박 3

일 맘모스 레익 가족동반 캠프는 미주사회 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슴 속에 각인된 것은 〈원로선배 오찬〉모임에서 275명의 선배님들이 동참 해 주신 일입니다. 한분 한분 선배님들을 맞이하는 후배들의 마음 가짐은 서울대인 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선배 없는 후배가 없듯이 이는 서울대인의 열려있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는 변화와 도전은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되어 후배들에게 이어져 피어 오를 것입니다. 새로 바톤을 이어받은 성주경(상대 68) 회장은 모교를 선양할 수 있는 회 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충분한 역량과 체계적인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 많은 협력을 바랍니다. 그동안 진심으 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어 성주경 신임회장 및 강신용(사대 73) 차기 수석부회장 인준이 있었고, 1년 동안 임원으로서 수고가 많았던 민일기(약대 69) 총무국장, 차기민(공대 85) 재무 국장,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 그리고 1인당 동창회 지원금을 제일 많이 기부한 박영국(미대 66) 미대회장, 단과대 회장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채규황(법대 68) 법대회장 등에게 김병연 총동창회장이 공 로패를 수여했다. 감사패는 후원금을 제일

많이 기부한 홍광식(공대 62), 한귀희(미 대 68), 조무상(법대 70), 김기형(상대 75). 그리고 재능 기부를 많이 한 백정현(음대 66) 동문에게 수여되었다. 이어 동창회기 전달식이 있었고, 동문을 대표하여 성주경 신임회장이 이임하는 김병연 회장에게 공 로패를 증정하였다. 성주경 신임회장은 취 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내외 귀빈, 그리고 동문님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책임이 저 와 새 임원진에게 있게 되었는데 저를 도 와서 같이 일하겠다고 한 임원들과 열심 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문들께서도 많은 의견과, 격려, 질책, 그리고 많은 도움 주 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물질 적인 도움으로... 일반적인 행사 및 모임은 가능한 한 지금까지 해온대로 진행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창회가 활성 화 되기 위해서는 젊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동문들로 임원진을 채워 보려 노력 하고 이 젊은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선후 배가 조화된 동창회로 이끌어 갈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기준(법대 54) 전 총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강신용 수석부회장 인사가

있었다. 다음 신임회장단 발표와 인준에 이어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다.

2부 순서로 이어져 축하 연주가 있었 는데, 양의경(농대 72) 동문의 Soprano Solo, 'Pleurez! Pleurez! Mes Yeux by Jules Massenet'는 성악 전공자를 능가하 는 음색과 가창력이었다. 다음 서울대 코 랄이 'Shenandoah, 눈', 두 곡 후 앵콜로 ' 동무생각'을 불렀다. 팝송 순서에서, 백정 현(음대 66) 동문과 박혜옥(간호대 69) 동 문 부부의 Duet, 'Perhaps Love'와 백정 현 동문의 Solo,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은 앵콜 박수를 많이 받았다.

다음 Curly Fries밴드의 공연으로 이어 지며,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특등상인 한 국왕복 비행기표 두 장(성주경 신임회장, 강신용 수석부회장 제공)은 한석란(미대 71) 동문과 Mrs. 김병연 씨에게 돌아 갔 다. 1등상 ipad(김병연 이임회장 제공)는 한효동(공대 58) 동문이, 2등상인 48인치 TV는 김옥권(미대 75) 동문이 추첨의 영 광을 안았다. 그 외 단과대회장들이 많은 상품을 기증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 이 나와 흥겹게 춤을 추는 가운데 서로 악 수를 주고받으며 신년회는 끝났다.

>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사진: 고정범 (법대 79)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 미국이 준 교훈/45대 미대통령 취임식 참관기 출마의 변: 이서희
- 출마의 변: 신응님

10

- 출마의 변: 김창수 총동창회 신년인사회/미스 함부라비출간/시애틀 SNU 포럼
- 지부소개: 록키 마운틴스
- 지부소식: 뉴잉글랜드북가주 지부소식: 뉴욕/워싱터 DC/북가주/남가주/김정향 개인전
- 지부소식: 남가주/강영일 부부 커플전시회
- 11 김성지: 세빌리아 이발사 주연/고태화 올해의 작가전/
- 최진훈: 산을 향해 눈을 드니 출간/이영묵: 문학의식 작품상 수 상/백순 징검다리출간/이태상 코스모스 시리즈완간
- 장동만: 선진 한국/정보
- 특집: 이석호/정선주/김정현/송윤정
- 건강: 태아 점돌연변이 진단/김수영:아리랑 판타지아 16
- 곽상희 겨울서신/연봉원: 변호사 매매 17
- 김지영: 강남좌파/김기택: 강아지훈련
- 백옥자: 금빛 8순잔치/시: 폭설-서윤석
- 20 이종호: 군자의 길/단상-이병굉: 무와 유 영화-김정현: LA LA LAND/독후감-민경훈: 광야의 기사
- 예술-정유석: 바보들의 배/백선하-급성 신손상 급증 23
 - 지인수: 삶의 여정/추모의 글/김학천-모순어법
- 한효동-The Godfather/오늘의 나를 있게 말: 김기훈,박취서 이달의 사진: 박은숙/역사-최용완: 일주일이 7일된 유래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1. 출마소감

미국으로 유학오기 전 중학교 시 절부터 한국정치가 비 민주주의라

이항열 (법대 57)

는 것을 경험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헌법에 규정된 임기 제한을 '사사오입'이라는 방법으로 엉터리 개헌을 하며

다시 당선되었고, 결국 4.19 학생 봉기로 Hawaii 로 망 명을 떠났다. 그 후 불안정한 정국은 계속되어 5.16 군 사 혁명이 일어났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런 실망적 정치 실태를 경험한 후, 61년에 민주주의 가 발달된 미국에 오니 인상적인 것이 매년 4년마다의 평화스러운 정권교체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선거가 끝난 후 1월 대통령 취임 식에서 서로 격려하며 안정된 정치가 새로 시작되었다.

'아, 이것이 민주주의고 민심이 이렇게 깨었구나' 하는 느낌이며 교훈이 되었다. 물론 60년대만 해도 남부에서 는 인종차별이 있었고, Virginia 에서도 백인과 유색인 종의 결혼이 금지되었던 시기이다. 이런 부도덕하고 반 정의적인 법과 관습은 Challenge(도전)되었으며 Martin Luther King 목사는 Lincoln 대통령의 Memorial 앞에 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해서 많 은 백인 미국인들도 인종차별 금지에 동조하였다. 대학 원 학생이었던 나도 "Freedom March" 에 참여하였으며 King 목사의 연설은 나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었다.

둘째 인상 깊었던 교훈은 막강한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결국 후대 역사의 심판만이 아니라 당장 탄핵 소추를 받 아 대통령직도 사퇴해야 된다는 "Watergate" 사건이었 다. 닉슨 대통령과 같은 당에 속한 많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도 위법적인 닉슨의 행동을 맹렬히 비난함으로서 결국 닉슨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사직한 대통

미국이 준 교훈



령이 되었다. 이건 법치주의인 미국에서 청렴한 청교도 의 사상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물론 미국이 Utopia는 아니다. 아직도 인종차별, 범죄, 부의 편재로 사회문제가 많으나 건국 초부터 합리성, 당 위성, 실용성을 중요시하고 헌법에 강조된 자유, 평등, 행 복의 추구를 미국 민주주의 기초 반석으로 삼았기때문에 이런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열 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Meritocracy(능력주의) 를 강조하는 사회였기때문에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성공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내가 이 나라에 와서 교편을 잡았을 때 나의 발음이나 Korean English 가 우습게 들렸겠지만 그들은 그대로 내가 교수였기때문에 경청을 했다. 결국 학생들은 나에게 자기들의 인상이 나쁘게 느껴지면 자기

들의 점수도 나쁠 것이라는 실용적인 생각과 내가 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즉 나 의 Legitimacy(합리적인 합법성)를 인정해 준 것이다. 자 유분방한 나라지만 역시 귄위도 존중해 준다.

274호 | 2017년 2월

셋째, 미국의 옥토와 자원들이 너무 풍부하여 그들이 관 대하고 커다란 대륙성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상이 나에게 들어왔다. New York Harbor의 '자유의 여신상' 이 이민자들을 반겨주듯이 현재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성립되었고 부흥한 나라이다. 대다수의 미국 Nobel 상 수상자들은 20세기에 이민 온 사람들이며 많은 이민자들 이 미국에 공헌을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Trump의 반이 민적 정치 구호는 오래 호응을 못 받을 것이다.

미국의 원주민은 미국의 인디안이며 그 국민은 모두 이 민자들의 후예이다.

물론 미국도 역사의 흥망성쇠 법칙에 의하여 영원히 Pax American 을 유지 못하겠지만 아직도 좋은 정치지 도자와 열심히 일할 성실한 이민자들을 계속 유치한다면 21세기 후반까지 미국 민주정치와 우월성이 세계에서 가 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믿는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Trump 당선자 같이 미국 의 경제와 제도를 비관적으로 비평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당선을 위한 권모술수의 dogmatic 한 선거 연설 이고 아직도 미국은 민주주로 성공한 상징적인 국가이고 전세계 경제 생산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도 타국의 추종 을 불허하는 월등한 위치에 있다.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Harding, Hover, Buchanan, Trump 같은 대통령도 있 지만 위대한 Washington, Lincoln, Franklin Roosevelt, Jefferson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논설위원장, 쉐퍼드 대학 석좌교수)

〈45대 미국대통령 취임식 참관기〉

트럼프 취임연설이 시작되자 힐러리 눈물같은 빗방울이...

Donald J. Trump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모습을 필자는 바로 50미터 앞에서 지켜보았다.

워싱턴 시각으로 1월20일 정오였다. 부동산 재벌이 자 인기 TV프로 사회자로 명성을 날린 70세 노인 트럼 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곤 1년 전만해도 아무도 상상하 지 못했다. 2015년 초겨울 그가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 에 뛰어들었을 때 미국 언론들은 저러다 말겠지 하고 무 작했다. 바로 그때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 시했었다. 그러나 그는 10여명의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 했다. 거하고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었고, 막강한 민주당 여성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맞붙었다. 그리고 낙선 확률 97% (CNN 예상)를 뒤집고 대권을 잡았다. 미국 정치사의 기 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웃음띈 얼굴을 보이려고 애 적이었다.

취임식 날 일기예보는 정오를 전후해 비가 올 것이라 고 했다. 보안관계로 우산은 가지고 행사장 가까이 갈 수없 다고 해서 비닐 우비(plastic raincoat)만 하나 가지고 갔 다. 초청장을 가지고도 취임식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 대 232으로 트럼프한테 참패했 다. 두번이나 공항에서와 같은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분할 것이

그런데 취임식장인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할 때까지도 비 는 내리지 않고 흐린 날씨만 계속되고 있었다. 천만다행 하마트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구나 생각했다. 취임식은 11시 30분부터 시작되어 11 을 망칠뻔한 빗방울은 한 10분 시 55분 쯤 마이클 펜스 부통령의 취임선서가 먼저 있었 쯤 떨어지다 그쳤다. 다. 이어서 12시 정각이 되자 잔 라버츠 대법원장이 트럼 프 대통령 당선자의 oath of office (취임선서)를 받기 시 나는 지난 11월8일 투표에서 트럼

바로 그때 내가 앉아있던 언론인 좌석들 뒤에서 갑자 er of two evils (두 악마 중 덜 나 기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우리 미국 국 변 악마)였기 때문이다. 민은)'으로 시작하는 미국 헌법 전문(머릿말)을 큰 소리 로 외우는 대여섯 명의 젊은 남녀가 있었다. 아마도 트 트럼프가 여성을 깔보는 play-

럼프를 싫어하는 자들인 것 같았다. 그들은 트럼프의 대 통령 선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그런 짓을 한 것 같았으 나 휴대용 확성기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기때 문에 그들의 육성은 트럼프가 듣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 히 그들은 막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

선서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기 시

그 순간 나는 이 빗방울이 힐러리 클린턴의 눈물이라 를 쓰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 화면에 잠시 비쳤다. 그러

나 그녀는 속으론 정말 많이 울었 을 것이다. 힐러리는 일반국민투 표에서 거의 300만표나 더 받고 도 각 주별 대의원 선거에서 306 다.

프한테 한표를 던졌다. 트럼프가 훌륭해서가아니라 그가 the less-

boy라며 힐러리 후보측에서 맹공격을 가했지만 미국 백 인 여성의 53%가 트럼프한테 표를 주었다. "플레이보이 라면 힐러리 남편 Bill Clinton보다 더하랴, 그런 건 문제 될 것 없다. 어떻게 미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느냐 가 더 중요하지"라는게 백인 여성들 다수의 생각이었다. (대선 직후 뉴욕 타임즈 여성 상대 여론조사 결과)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주류언론이 거의 매일 트럼프를 흡집내는 기사를 써댔으나 트럼프를 꺾 지 못했다. 그들의 예측이 빗나가자 화가 난 주류언론 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 다. 그러나 트럼프는 역사상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강 한 의지로 자신이 공약한 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Trump is not just a talker. He is a doer! (트럼프 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가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화유(문리대 61)



출마의 변

미주동창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세분의 동문들이 제 15대 동창회장(차차기)에 입후보 했습니다. 인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받은 후보자들의 견해와 계획을 각 후보의 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1. 이제 미주동창

회는 26년이란 세월

에 따라 발전을 해

왔고 이런 기반하에

재도약의 기틀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됩

2. 본인 소개: 도미 연도와 이유, 돌이켜 보는 미국에서의 삶(경력), 가족관계, Public Service 경험 등. 3. 미주동창회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동창회보 발행, 평의원회의, Brain Network Symposium, In ternet Homepage 운영, 지역동창회 활성화, 홈커밍데이 모교방문, 모교발전 기여사업 등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4.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회비, 후원금, 광고비등을 모금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모금방안과 영구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미주동창회의 설립 목적인 Charity 를 위해 '나눔위원회'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인 Education을 위해 '장학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어 있는데, 이 두 위원회에 대한 의견과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6. 미주동창회의 세번째 목적으로 위의 두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라고 되 어있는데, 총본부와 각 지부간의 유대, 미주동문들간의 유대와 친목을 어떻게 도모할 계획입니까?

7. 미주 동문들 뿐 아니라 동문들의 거주지역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방법과, 미래의 조국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8. 모교의 발전에 미주동창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9. 위의 사항들 외에 하고 싶은 말씀?



니다. 넓은 지역을 총괄하는 동창회의

일을 해보는 것에 대한 의욕이 있어 차차기 회장후보로 나서 게 되었습니다.

2. 1981년도에 미국에 와서 그동안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Ph D 과정으로 보낸 긴 기간(학위 아직 없 음), 아들 딸 잘 커서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것, wife하고 여전히 잘 붙어 다니고 있는 것, 지금도 하고 있는 무역업, 법대 남가주 동창회장 3번, 최근 2014년도 남가주 총동 창회장을 맡으면서 느낀 것은 회장호칭은 공짜가 아니고 그 댓가로 동문들을 위해 일 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 주평화통일 자문회의 LA 협의회 2009-11 회장을 맡아 동포들이 평화통일에 동참하 도록 미주 첫 통일무지개운동의 성공적인 시도, 청소년의 정체성 및 조국에 대한 자 부심 제고와 더불어 남북분단에 관한 책 '대 한민국: 발전과 통일' 발간, 단체의 화합을 위한 노력등등, 돌이켜 보면 새로운 아이 디어에 기초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업무 를 해왔습니다.

3. 미주동창회에서 이제껏 잘 해왔다고 생

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동문들이 web- 역 및 미주동창회에서 Charity, Education page를 활용하려면 contents update가 자 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될 것 주 되어 가능한 한 많은 동문들의 사진 및 동정이 실리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은 IT 담당자들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 다.예산 결산심의, 신임회장 선거, 기타 안 건 등을 토의 결정하는 평의원회의가 매년 6월에 시행되어 왔습니다. 평의원들은 동 창회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창회 일 을 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입니다. 각 지역 에 흩어져 있어 모임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Cyber Meeting 형식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동문들의 좋은 제안 에 대한 평의원들의 의견교환은 각 지역의 의견수렴을 의미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미주동창회가 총동창회의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동문들은 실질적으로 받아 들이게 될 것입니다.

4. 그간 느낀 점은 신문발간 외에는 지역 동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부족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주총동창 회는 지역동창회가 뿌리라는 생각으로 접 근해야 합니다. 동창회 조직은 친목단체입 니다. 걷혀진 회비중 일정한 부분을 Charity, Education목적으로 지부에 되돌려주 면서 동창회의 목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 습니다. 회비 납부실적, 계획등을 감안해 연말에 미주동창회 'Santa Claus Month' 행사로 지역 동창회에 자금지원을 하면 됩 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미주 전 동문이 미 주총동창회의 역할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될 것이고 회비납부 실적도 호전될 수 있을 것 각합니다. 그중에서 Webpage의 관리는 관 입니다. 결과적으로 5번에서 말씀드릴 지 리 마련도 동문들간의 유대 및 친목에 일조 합니다.

입니다. 기금은 동문들의 협조로 만들어집 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한다 면 이것이 바로 영구적인 방법으로 이어지 리라 생각합니다.

5. 나눔위원회와 장학위원회는 꼭 필요 하며 지역동창회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 습니다. 회보와 web을 통해 의미를 홍보 하면서 뜻이 있는 동문들에게 직접적인 접 촉으로 호소하면 성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각 지역동창회에 일정한 숫자의 장학생후 보자 선정을 요청·심사해 매년말 Santa Claus Month 행사를 통해 장학금을 각 지 역 동창회로 보내줍니다. 지역동창회내에 장학제도가 있으면 미주동창회와 통합해 협력하는 방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은 각 지역동창회에서 계획을 세우도 록 요청하여 이에 따라 나눔위원회에서 협 조방안을 구체화하고 시행합니다.

6. 동문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미 주동창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부 활 동에 대한 미주총동창회의 조언 및 비용지 원은 총본부와 지역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지역간의 교류는 각 지역의 취미 활동에서 더 나아가 미주지역 동문의 전체 동아리그룹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 동문간의 인적교류는 이곳에 살고 있는 동 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는 webpage 를 활용하면 해결이 될 것입니 다. 또한 전미주동문들이 모일 수 있는 자

를 할 것입니다.

7. 우리 모두 각자가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민간외교 사절의 역할, 재외국민 투표, 미 국시민으로서의 voting power 제고, 또한 2세들의 정치력신장을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동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누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8. 한국에 있는 총동창회 및 모교와의 관 계도 중요합니다. 발전기금지원, 재학생 초 청등은 이미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 분에 관심있는 동문들은 나름대로 독자적 으로 또는 단체를 만들어 참여하고 있습니 다. 미주동창회는 이런 동문들에게 감사표 시와 더불어 다른 동문들에게 널리 알려 아 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 다. 재학생의 미국방문을 위한 일정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 방문목적 및 지원방법을 위 한 지역동창회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리고 발전기금에 대한 취지 및 정보를 동 문들에게 알려주고 기금확보를 위한 더 나 은 방법이 있는지 의견교환이 필요합니다.

9. 동창회는 동문들에게 참여하는 것이 즐 겁고 보람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활성 화되며, 동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듣고, 회장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잘 하고, 그리 고 옳은 방향이라고 결정이 되면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창회는 친목단체로서 이 에 맞는 일을 해야 하고, 모임은 밝고 잔 치집 같도록 만들어야 동문들이 많이 참여



촛불과 태극기

한 후 1월 둘째 주말 서울에 체 류하게 되

어 한국의 집회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할 기회가 있었다.

던킨 도너츠에서는 많은 시위 참석자들이 수가 없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커피 한잔으로 몸을 녹이고 있었다. 젊은 층도 눈에 띄었지만 장년층이 주를 이루었다.

국회가 탄 벽 안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 그 안은 잘 보이지 않았다. 참석자가 대략 2,000명 정 도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면서 섭씨 영하 6 도의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시위를 한다는 사실이 놀라왔다.

화문이 나오고, 시위 현장은 다소 한산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와 국민에 대한 의리이다. 피의자와 증 보였다. 한때 200만명이 모였고 연 1,000 것이 아이로니컬하게 보였고, 의견이 다 저녁 6시경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서 내 만명이 참석한 집회에 대한 예상이 빗나간 르다고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 인이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국 리니 마침 시청 앞 광장에서는 태극기를 느낌이었다. 광화문 광장에도 경찰이 세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손에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덕수궁 앞 벽으로 인하여 집회하고 있는 안쪽을 볼

층으로 올라가니 창문으로 제12차 촛불 한 기분이 들지만 앞으로도 1-2개월은 참 있는 결론이 나와 촛불과 태극기는 경축 집회 장면이 보였다. 커피샵 안에서는 젊 을성 있게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일이나 기념일에만 볼 수 있을 날을 기다 광장에서는 고성의 확성기 소리로 누군가 은이들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스마 를 매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만들어 놓은 트폰이나 노트북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 국민들은 국가질서가 파괴된 것에 분노

이 바깥쪽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했다. 촛불집회 장소에서는 누군가 무대에 올라 가 추위 때문에 마이크 든 손에 동상이 걸 리겠다면서 누구누구 구속하라 등의 구호 를 외치면 다 같이 따라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곳 집회도 눈짐작으로는 중년 층 2,000명 정도로 보였다. 저녁 7시경 광 화문 일대는 전면적인 교통통제가 실시되 면서 종로 방향으로 행진이 시작되었다.

세종로 길로 300m 가량 북쪽으로 가면 광 지척간의 두 장소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리 희망과 밝음을 상징하는 촛불, 안정과 국 그리고 특검의 피의자 및 증인심문에 대 가의 안위를 상징하는 태극기. 이제 헌법 마침 스타벅스 커피샵이 근처에 있어 이 한 뉴스는 너무 많이 보고 들어 다소 식상 재판소와 특검에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하고 있는데 정작 파괴한 자들은 기억 안 난다 또는 모르겠다고 서로 합의한 듯 일 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진실을 밝히 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선 망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사회지도층의 이 런 나쁜 풍조를 국민들이 불쾌해 하면서 도 행여 배울까 두렵다.

흔히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면서 지인의 흠에 대하여 입 다무는 것으로 의리로 알 고 있다. 그러나 더 우선시해야할 것은 국 가와 국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겠다.

린다.

이서희 (법대 70)

신응남 (농대 70) NY

80년대에 이민온

세대로서, 전 세계를 리드해가는 미국에 살면서 서울대인의 긍지를 품고, 남다른 비젼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포부와 열정을 소유하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됩 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문회는 미주동창 회, 지역동창회 존재 자체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고 봅니다.

또한, 도전과 혁신의 21세기를 보내며, 10위의 선진 대열에 올라선 조국의 동력 을 되짚어 볼 때,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모 여 한 나라의 중심에 서서 사회 전반적인 없을 것입니다.

기와 같아서 그것이 얼마나 길었는가보다 것이라는 믿음과 각오로 본인은 미주 동 는 얼마나 알찼는가가 더 중요하다." (As 창회 15대 회장으로 출사표를 던지며, 지 is a tale, so is life: not how long it is, 면을 빌어 선후배님께 인사드립니다. but how good it is, is what matters.")

-세계 속의 서울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바드 졸 대인을 바라보며-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 미주 동창회 선후 서 우리의 삶은 짧은 것이고, 백세 시대라 배 동문 여러분께! 하나 그리 긴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민의 땅에서 지치고 쓰 이곳에 함께한 동 러질 때마다 자부심과 긍지로 우리를 일 바랍니다. 선후배가 올바른 소통을 통하 문 여러분들은 70, 으켜 세우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 한 여,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자랑스러운 열정을 꺼내어 함께 한다면, 우리 공동의

업식에서 해리 포터 작가 J. K. Rowling이

전도서 3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 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 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 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0 여년 이민 역사에 따라 변천한 미주동창 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만사의 때에 따 분야, 경제, 과학 등에서 공헌한 서울대인 라, 이제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아들 둘이 있고 손주 넷이 있습니다. 30여 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누구도 간과할 수 때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자부 심과 열정을 모아 공동의 보람된 비전을 해 왔고, 지난 25년간 한국어 교육에 봉사 향해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바랍니 로마 세네카의 말에, "인생은 옛날 얘 다.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오늘 이 자리가 동문회의 내실을 다지고 선후배 간의 존경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 하고 빛나는 미래의 발전을 향한 내적인 단합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모교에 대한 잠재된 열정이 있습니다. 그 동문회가 되어, 모교의 발전을 기하고, 이 신대륙에 동문회의 원대한 초석을 세워나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15대 회장 입후보자 신응남 (농대 70)

80년도에 도미. 결혼과 학업. 1997년에 미국 연방 변호사와 뉴욕, 뉴져지 변호사 자격 취득함. 가족 관계는 동문(간호학 70)인 아내와 변호사와 의사로 활동하는 년간 한 교회를 섬기며 시무 장로로 봉직 하는 아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 1) 동문 배가 운동

- 주소록 발간, 월간지 지속 발간

- 젊은 회원 영입, 성공 사례 탐방/

- 모범적인 지역 동창/ 동창회 활동 소개 및 지원

- 순회 세미나, 순회 음악회

2) 서울대 클럽 위한 기금 조성

- 천만불 모금

- 재산 5% (증여/유산) 기부 운동

- 예일, 하바드 클럽을 모델로 삼아 호텔 구입 및 운영 5개년 계획

- 나눔위원회 : 일정한 펀드로 어려운 형편의 동문/ 지부활동/

지역사회 도움. 언론을 통한 홍보 - 장학 위원회 : 미주내 동문들의 학업 지원 /미주내 동문교수 및 모교 교수들의 미국/한국관련 연구 지원/ 모교 장학 및 발전 지원

3) 순회 미니 버스 운영

- 서울대 (SNU)로고를 새긴 미니 버스 운영으로 지역 동창회 방문

- 연중 스케줄 작성 - 인터뷰 기사를 통 한 동창회 활동 홍보

4) 크루즈 선상 세미나 개최 (회원간 만남의 장, 평의원 회의)

5) 본교 음대생 초청 순회 공연

6) 기타 필요한 사업을 찾아 실행

회계사로 일해오고

있으며, 현재 KEB 하나은행의 사외이 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973년 뉴

욕으로 유학을 와서

NYU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은 후 뉴욕시에서

30여년간 개업 공인

CPA 사무실을 열기 전에는 미국 공인회 계법인 딜로이트 H & S와 뉴욕주 재무성 세무감사국에서 통틀어 12여년간 근무하 였습니다.

많은 동문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년 반 전에 사별한 본인의 배우자는 67학번 간호대 출신의 김선자 동문이며, 저희 사 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43년간 미국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세월을 우리 동창회와 동거동락을 해왔습

38년 전에 창립된 뉴욕동창회에는 초창 기부터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세청(I.R.S.)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직접 성 사시켰습니다.

뉴욕지부에서는 동창회장을 역임하였 고, 현재 장학위원장과 약대 동창회 이사 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년 감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 로 역대 회장단과 호흡을 같이 해오고 있 습니다.

미주동창회는 2007년부터 감사, 평의원, 동창회보 편집위원, 논설위원, 나눔위원 등으로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본인만큼 동창회를 사랑하는 동문이 없 을 것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미주동창회 와 뉴욕지부의 연중 스케줄을 우선으로 해놓고 개인과 가정의 연중 스케줄을 짜 면서 동창회의 모든 행사에 100%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동 창회를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차기 회장에 뉴욕지부의 몫으로 추천 된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인이 동창회장에 당선되면, 다음과 같은 저의 포부 내지 공약사항을 실천할 것입

동창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활 동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을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임원진 이외에 각 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재의 편집, 장학, 나눔위원회 이외에 기획, 재정, 조직, 대외협력, 감사 등에 관 한 분과위원회를 결성하겠습니다. 물론 임원진이 분과위원을 겸하는 경우도 많 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번 회기에 결성된 나눔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서울대 동창회가 도움이 필요한 동문과 지역사회 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성장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동창회 발전기획위원회(가칭)을 결성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서, 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 모색과 발전모델을 기획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미국내의 25개 지역동창회 중 다. 한 곳에서 미주동창회장이 배출되더라도 동창회는 한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동 창회 본부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에 두 는 방안, 그곳에 동창회관을 마련하는 방 안, 동창회에 유급 직원을 두고 상설 사 동 영역별로 후원금을 배분하는 방법이 무국을 운영하는 방안, 회장이 바뀌더라 도 동창회보를 상설 동창회 본부에서 지 속적으로 발간하는 방안들이 포함될 것입

각 지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상호 소 통과 교류를 원할히 하고, 조직을 강화하 를 친밀히 해서, 남가주지부의 아크로포 리스를 모델로 하여 각 지부마다 관악연 대를 결성케하고, 젊은 동문들을 동창회 활동에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 록 실질적인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동창회 조직내의 통신수단이며 정보교 것입니다. 환, 지적 자산 공유, 조직 강화의 매체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에 맞추어 온라인 뉴스레터와 페이퍼신문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공존하는 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지역 동창회의 Web Master들이 지역 동 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창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잘해서 동창회 합니다.

홈페이지를 항시 업그레이드시켜 온라 인시대에 동창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

미국의 대부분 대학동창회의 후원회 창 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 도 모금 창구를 일원화하고, 그 안에서 활 좋은지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 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교 및 고국의 총동창회와 의 교류를 더 친밀히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역점 사업으로 동문 중에서 이 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악세대와의 관계 민 1세에 속하는 노년층부터 상속계획의 일환으로 미주동창회나 모교에 재산의 일 부를 기증 혹은 상속하는 켐페인을 벌리 고자 합니다.

> 저는 동창회장직을 저의 마지막 봉사활 동으로 생각하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40여년간 미국생활의 동반자요 기반이 된 뉴욕지부와 10여년간 봉사해오면서 구 축된 미주동창회의 폭넓은 저의 인맥이 한편으로 페이퍼레스라는 시대의 흐름 팀워크를 이루어 차차기 회장직 수행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동창회를 업그레 이와 더불어 동창회 홈페이지(www. 이드 시키고자 하는 저의 포부가 달성될 snuaa.org)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각 수 있도록 미주 동문님들의 따뜻한 충언

아메리카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들과 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죤 로버츠 앞에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지키겠다"고 선서하며, 45대 미대통령 국시민을 향해 우리가 함께 강하고, 부 가 되면, 이번 선거에 유하며, 자랑스럽고, 위대한 미국을 다 도 예외없이 Pro-Life 시 일으켜 세워보자고 역설했다.

그리고 취임 1주일만에 선거공약을 실 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미국 과 전세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왔다. 즉 멕시코의 국경 장벽 건설, 모슬렘 7개국 잠정 입국 금지, 오바마 보험의 무효화, TPP 로부터의 탈퇴, ... 등등. 미국의 주 요 언론사는 물론 전세계 주요 상대국 리더들에게도 폭풍과 같은 충격파를 던 진 것이다. 마치도 거대한 정치 쓰나미 가 몰려오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그가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 Process 조항과, 누구 서한 미 헌법의 가치 보존이란 과연 무 나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의 개념을, 전통적인 이성간의 결혼 권 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럼 지난 반세기 있다는 Equal Protection 조항이 있다. 동안 미 헌법관련 랜드마크적 대법원 판례 중,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 친 두 케이스를 예로 들어, 미대통령이 지키기로 한 헌법적 가치는 어떻게 변 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Corvey)는 3번째 자녀를 임신하고 고향 내주었다. 인 Texas 로 이주한 후, 합법적으로 낙

세계의 이목을 모으며, 새해 1월 20일 가능한 시기 전에는 낙태의 권리가 있 Wade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동성 의 의견으로 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v. Pro- Choice 의 양 보없는 주장을 보게 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ivil Rights Act로 알 려진 미 수정헌법 제 14조에는 개인의 생 명과 자유 그리고 재 산은 합법적인 절차에 준하지 않고는, 정부로 부터 개인권리가 제약 을 받을 수 없다는 Due

법은 그리고 그 법의 해석은 시대의 변 화에 따라 또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은, 전통적인 가치관 을 지키며 사회나 국가의 공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개 그 하나는 낙태에 관한 Roe v. Wade 인의 자유와 법앞에 동등한 개인의 권 기 어려웠으며, 그들도 앞으로 올 세대 수의 가치를 견지하는 국가로 되돌리려 (1973년)판결이다. Roe(Norma L. Mc- 리를 주장하는 진보의 가치관에 우위를 로 하여금 그들이 의미하는 자유를 구 할 것으로 예측된다. Hagel은 그의 변

태시술을 받을 수 없자, Dallas 검사장 또 다른 케이스는, 대법원의 Gay 존의 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갈등 정,반,합의 반복을 통해 발전되어 간다 인 Henry Wade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Marriage에 대한 판결이다. 2015년 6 이 돌출될 때, 우리는 그들이 의미하 고 주장했다. 헤겔의 말대로, 우리는 지 냈다. 동판결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규 월 26일 대법원은 개인의 자유 및 성정 는 자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 금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해결 방법 제의 정도와 개인 특히 여성의 낙태권 체성을 제한해 온 동성결혼을 허용해 여야 할 것이다. 리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 판결 야 한다고 했다. 동등한 권리를 동성애

으며, 국가는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생 애자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40 존 가능한 태아의 (23-24주째) 보호 여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찬성한 다 Process 조항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를 위해서만 개인의 낙태를 제한할 수 수의 대법관들을 대변해서 A. Ken-최선을 다해 헌법의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는, 다수 의견을 쓴 Harry Black - nedy 대법원 판사는 다음과 같이 의 mun 판사의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 견을 피력했다. 헌법은 개인의 정체성 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미 이 난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선거 때 을 유지하며 그에 따른 자유로운 결혼



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정 헌법 1조 (Bill of Rights) 와 14 범의 방향을 제시해 왔음을 위의 두 케 조(Civil Rights Act)를 통과 시켰 이스를 통해 살펴보았다. 새로 들어선 던 150년전의 입법자들도 무엇이 진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개인주의로 치 정한 자유를 의미하는지를 예측하 달렸던 진보의 행진을 멈추고, 다시 보 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에게 맡겨 증법적 논리에서, 모든 일은 긍정과 부 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의 보호와 기 정의 모순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의 요약은 "여성은 태아가 모태 밖 생존 자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Roe v. 그러나, 그의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란다.

렇게 기술했다. 개인의 기본권이 Due 는것을 인정하면서도 동 조항이 개인의 기본 권리를 확대하는데 오랜시간 동 안 잘못 인용되어 왔음을 지적했으며, 결혼의 정의는 후세가 될 자녀 양육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남녀간의 결합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 동성 결혼의 허용은 오랫동안 전통적이 며, 인류의 존속을 지켜온, 대다수의 사 람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회규범의 변화 를 강요하는 우를 범했다.

Trump 대통령이 지키려는 헌법적 가 치는 과연 무엇인가? 작년 공석이 된 Antonin Scalia 의 후임으로 1월 31일 에 보수 성향의 Pro -Life의 판사 Neil M. Gorsuch를 임명했다. 그를 임명함 으로, Roe v Wade 의 판결을 뒤집기를 원하며, 2015년의 Gay Marriage (5-4 결정)의 판결 또한 뒤집으려 시도할 것 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가치관의 지 표이며,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의 가치관과 지켜가야 할 사회적 규 을 찾아가는 길에 서 있는가? 거친 파도 를 헤쳐나가는 아메리카호의 순항을 바 (신응남 농대 71)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도날드 트럼 프가 취임하여 지난 8년 간의 민주당 집 권 후 이제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 하여, 2015년에는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 데, 그 실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루어졌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왔던 힐 러리 클린턴을 예상외로 누르고 지난 해 11월 대선에서 이긴 정치국외자 트럼프 는,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포부 를 밝히며,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제시해왔다.

트럼프는 빈부격차와 일자리 부족으로 불만에 가득찬 노동자 계층의 백인들을 자극하였고, 기성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기득권자에 대한 불신,정권 교체의 당위성, 대규모의 무역 적자 등을 내세워 승산 없다고 평가된 대선에서 의 외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와 이민 정책에서 지난 8년 간의 오바마 행정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 장이전을 취소하였다. 으로 무역 수지의 악화, 빈부 격차로 인 증가 등을 꼽았다.

급진적인 정책을 쓸 확률이 높다.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는 2015 년에는

400억 달러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의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그 비용 무역적자는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증가 을 멕시코 정부에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을, 작년에는 64%를 차지하였다.

보호 무역을 강조하는 트럼프 경제팀은 제일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해 가장 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을 환률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미국우선주의와

역업체에 대한 불법적 보조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 소하고, 4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는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거공약대로 외국으로 빠져나간 미국 기업의 공장들을 중서부로 끌어들일 것

자동차 회사인 클라이슬러가 해외 공장 대신 미시간과 오하이오 공장 설비의 증 축을 결정했고, 포드사가 멕시코로의 공 해 12월 14일 0.25% 포인트 올랐다. 올 다.

한 중산층 감소,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제너랄 모터스도 이에 동참해야 하는가 하고 고심 중에 있다. 이민정책을 강화 이러한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거나 소득이 낮은 백인들에게 돌려주겠 준금리 타겟이 0.75~1%가 되고, 6월 회 가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어 물가가 오 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소득세에 대해 감세 정책을 쓸 것이 라고 한다. 10%에서 39.6%에 이르는 개 인소득세의 7단계 세율을 3단계로 단순 화하고, 최고 세율을 33%로 인하하겠다 고 한다.

법인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35%에서 15%로 낮춘다. 개인과 기업체의 소득세 가 줄어들면, 그 만큼 소비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겨서 경제 성장에 플러스가 된다.

단지 감세로 인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트씩 점진적으로 올릴 것을 시사했다. 가 더욱 심해지고,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 게 집중되어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 라는 우려도 있다.

연방기금금리(Fed Fund Rate)가 지난 해에도 최소 두 차례 인상될 것으로 전 망된다.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지난 달 리 인상을 유도하게 된다. 7천 450억 달러에 달했고, 작년에는 5천 그래서 불법 노동자가 많이 넘어 오는 급리를 인상하면서 올해에 0.25% 포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35%→15%

❖ 대규모 감세 소득세 과표구간을 7단계에 서 3단계로 축소,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3.0%로 인하 ❖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1조달러 투자

연준의 인상 전망은 미국의 경제 상태 가 나아진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쪽으로, 실업률 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전망된다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폄과 동 시에 도로, 수로, 공항 등 사회간접기반 이번 달이나 3월에 연방준비제도(Fed) 즉 인프라의 증축·보수 사업 등에 예산 해서 일자리를 미국인들 특히 직업이 없 정례회의에서 0.25% 포인트 올라서 기 을 투입할 것이다. 감세와 투자·소비 증 의에서 또 한 차례 인상되어 $1 \sim 1.25\%$ 를 전망이다. 물가 상승이 연준의 기준금

김창수 (약대 64/경영대학원 68)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74호 | 2017년 2월 274호 | 2017년 2월





기부? 만만 합니다.

매월 만원(\$10)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인재 장학금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 1, 31, 약정기준]

			[2017, 1, 31, 약정기준]
선한 인지	장	학금(USD)	총 127,050
홍	진	(간호대)	100,000
박 종	수	(수의대)	10,000
고 광	선	(공대)	5,000
염 동	해	(농대)	3,600
손 재	옥	(가정대)	2,000
임 창	흐	(공대)	1,500
김 기	태	(의대)	1,000
김 명	숙	(간호대)	500
로렌스	한	(대학원)	500
문 순	덕	(간호대)	500
오 상	흐	(간호대)	500
윤 영	자	(간호대)	500
박 원	준	(공대)	300
박 혜	옥	(간호대)	300
Chang L	.ee	(공대)	250
권영달(문리	대)&이시한	200
익	명		200
이 창	성	(농대)	100
장 순	열	(사대)	100



이렇게 모인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 으로 쓰입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매월 생활비 30만원(\$300) 저소득층 학생*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nu.or.kr에 방문하시어 미주재단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거나 LA사무소 전화 +1-213-435-1974, 이메일 america@snu.ac.kr 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Facebook 오픈!

행복한 나눔을 곁에 두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습관, 만만한 기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www.facebook.com/giving2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Y.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1-212-768-9144 Fax:+1-212-768-4494 E-mail:kenneth@klcpagroup.com L.A. 3699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Tel:+1-213-435-1974 Fax:+1-213-739-0190 E-mail:america@snu.ac.kr

모교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어려운 한 해 손잡고 헤쳐 나갑시다…1000여 동문 오손도손

모교 총동창회(회장 서정화)가 지난 1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 최한 신년인사회에 각계 동문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행사는 종 전과 달리 뮤지컬 갈라쇼를 비롯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출신 드러머 김희현 씨와 판소리 협연 등 이색적인 공연을 선보여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기금이 공 동 개최했다. 발전기금에서는 만찬 비용을 후 원하며 동문들 간 친선 교류를 지원하고 모 교와 총동창회가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발 전하기를 기원했다. 진행은 KBS 성세정(정치 86-91)·정다은(언론정보03-08) 아나운서가

최규팔(제약70-74) 약대동창회장은

"1,000명이 넘는 많은 동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기뻤다. 행사장의 품격도 높았고 음식 맛도 좋 았다. 특히 만찬 중에 펼쳐진 공연이 인상 깊다. 서양 악 기인 드럼과 우리 가락이 어우러진 아리랑 선율이 흥겹 고 독특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랜만에 참석한 김명도(FIP 3기) 전 미래융합기술과정 동창회 회장은 "빠른 진행과 기운찬 공연으로 행사가 즐



은 동문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김미혜(회화78-82) 미대동창회 사무국장은 "전체적으 로 생동감 넘치는 행사였다" 며 "다음에는 실력있는 음악 가의 공연과 더불어 동문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참 여할 수 있는 레퍼토리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서정화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금을 가리켜 산업화 이 거웠고 역시 서울대 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만 젊 래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대인이 국민과 함

께 대한민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해낼 사 명을 감당해내야 한다"고 역설해 큰 박수를 받 았다. 이어 "그 어려운 경우에도 모든 서울대 인의 뛰어난 지성과 정신력으로 승화시켜 나 갈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공 동문 시상식에서는 본회 역점사업인 국 립 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 편찬사업에 공 을 세운 임광수(기계공학48-52) 임광토건 명 예회장과 이태진(사학61-65)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단과대 및 지방지부, 특별과정동창회 직전 회장을 지 낸 이순재(관악극예술회)·이헌주(창원지부)· 박군철(ROTC동문회)·현임 회장 양관수(일본 총동창회 오사카지부) 동문 등 18명에게 공로 패를 수여했다.

임광수 명예회장은 건배 제의를 통해 "예로부 터 닭이 지녔다는 '문무용인신(文武勇仁信)' 오덕의 기운 을 받아 금년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동문들에게 인사를 전하려 나온 홍윤식(법학75-79)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들은 이 러한 때일수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라를 똑바로 이끌 어가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 로 만들기 위해 동문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기대 한다"고 당부했다.

연재소설 '미스 함무라비 단행본 출간

신문 칼럼과 '개인 주의자 선언'등 저서

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꼬집어온 문 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장편소설 ' 미스 함무라비'(문학동네)를 펴냈다.

소설책 출간은 처음이지만 소설가로 '데 뷔'한 지는 1년이 넘었다. '미스 함무라비' 는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기고한 동명의 연재소설을 다듬어 엮은 책이다. 제목에서 짐작되듯 소 설은 정의감 투철한 초임 여성판사 '박차오 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법정 활극'이다.

소설의 무대는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들 의 일상처럼 박차오름이 선배 배석판사 '임 바른'과 함께 쓰는 사무실, 재판이 진행되 는 법정을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매듭짓지 못한 온갖 갈등이 하수구처럼 모여드는 곳이 법원 인 탓에, 이들이 다루고 고민하는 사건들

은 한국 사회를 거울처럼 비 춘다. 대학 교수가 제자에게 가지는 권력을 악용한 성범 죄, 자산가인 부친의 재산을 두고 벌이는 교수·목사 등 ' 점잖은' 자녀들끼리의 다툼 따위다.

수십 년 전 시위 때 찍힌 사 진을 지워달라며 유력 정치 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는 대목에서는 '잊 혀질 권리'라는 최신 쟁점을 둘러싼 법조계의 논쟁도 살

짝 엿볼 수 있다.

법정다툼이라는 자칫 지루하고 진부할 수 있는 이야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물 은 박차오름이다. 지하철 성추행범에게 '니 킥'을 날리고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출근해 엄숙한 법원에 파문을 일으키는가 하면 꽉 막힌 도로에서 얌체짓을 하는 정치인의 고 급 승용차를 막아서며 SNS 스타로 떠오른 다. 박차오름은 전형적인 '샌님형' 판사 임 바른, 꽉 막혀보여도 나름의 균형감을 갖춘 재판장 '한세상'과 구체적 사건을 두고 부 딪히며 법정에서 정의를 구현하려 분투한 다. 구체적 현실과 법적 논리로 구축된 세 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박 차오름 앞에 놓인 과제다.

작가가 현직 판사인 만큼 그동안 소설이 나 영화에서 종종 틀리거나 과장됐던 법원 안팎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책 중 간중간에 법원과 판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 을 곁들였다. 법원의 답 없는 숙제와도 같

은 전관예우 문제를 문 판사는 이렇게 진단했다.

"시민들이 '전관예우'라고 부 르는 것은 실은 법원에 대한 불만을 폭넓게 지칭하는 것이 다. 돈 있고 힘있는 사람에 대 한 납득 가지 않는 양형, 결론 에 이른 과정을 충분히 경청 하지 않는 재판, 이 모든 것 들을 뭉뚱그려 그 배후에 '전 관예우'가 있을 거라 분노하 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이해하 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니까."

시애틀 SNU포럼 모교 조현설 교수

'한국의 샤머니즘' 주제로 힘차게 출발



시애틀지역 한인사회 교양 프로그 사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램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한 서울 대 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 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일부 잘못된 의 'SNU포럼'이 한국사회에 오랫동 안 뿌리 내려온 '샤머니즘'을 주제 이지 않듯이 모든 무당들이 사기를 치 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새해를 힘차

지난 주말인 14일 뉴캐슬도서관에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도 불 서 열린 강좌에서는 한국의 유명 고 전문학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대학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UW) 방문학자인 서울대 조현설 교수 (국문과)가 강사를 맡았다. 자신을 '옛 매달 두번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벨뷰 날 이야기' 전문가로 표현한 조 교수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SNU포 는 이날 '샤머니즘에도 윤리가 있는 럼은 주제가 일반 한인들에게도 유용하 가?'란 제목으로 무속 문제를 다뤘다. 다고 생각될 경우 공개 강좌로 열린다.

조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사 속은 늘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묘 견도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무속에는 경전이 없어 신학 목사가 있지만 모든 목사가 비윤리적 는 것도,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다"고 선 을 그었다. 조 교수는 "신라시대 이차돈 사건이 불교와 무속이 충돌한 대표적 교가 상대적으로 무속을 비윤리적으로

김재훈(공대 72) 회장은 "올해는 뇌 회를 뒤흔들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연구와 생명정보, 클래식 음악, 부동 중심에 종교, 구체적으로는 샤머니즘이 산, 드론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사회는 샤머 계획"이라며 "공개강좌일 경우 많은 한 니즘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무 인들이 참석해 유용한 정보도 얻고 의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74호 | 2017년 2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74호 | 2017년 2월 지부소식 9

Rockey Mountians 개 마운틴스







Pikespeak Estes Park Stanley Hotel





1. 지부 역사와 Cover 지역

2003년 1월에 덴버에서 서울대학교 동창들이 모여 재 미 서울대학교 록키 마운틴 지역 동창회를 발족하였습 니다. 이 지역 동창회는 지역적으로 콜로라도주 및 와 이오밍주의 서울대 동문들이 회원이 됩니다. 초대회 장 김봉전(공대 68)의 뒤를 이어 김성수(의대 59), 강창운(의 대 72), 전남인(사대 72), 표한승(치대 58), 김영일(법대 64) 등 여러 동문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문회 는 12/17/2014 에 콜로라도 주정부에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Rocky Mountain Chapter Inc.〉라는 명칭의 Nonprofit Corporation 으 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활동상황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의 모임은 동문들의 친목을 주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문들의 Picnic, 식 사모임 및 정기총회였습니다. 그외에 주제를 가지고 강 의식으로 한 모임들도 있었습니다.

(a) 2015 년: 최용문 동문의 "일반인을 위한 컴퓨터 강의 ", 송은주 (송요준 동문 부인) " 미국 사회에서의 노후 대책에 필요한 정보 "

(b) 2016 년: (1) 송요준 (의대 64) 동문의 '일반인을 위한 통증 세미나 (사진 아래 오른쪽)'(2) 이상준(공 대 64, 인천 영정도 공항 설계자)의 '인천 국제공항 에 얽힌 이야기들'

3. 동창회 멤버는 몇명이고 보통 모이는 숫자는? 연 령분포? 확보된 이메일 주소 갯수?

우리지역 동문회원 수는 51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중 10명은 e-mail 주소가 없어서 제가 우리 동창회 신문 을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보내드린 메일이 반 송된 것이 없습니다. 통신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희삼 동문 (문리대 68)께서 사진을 첨부한 주소록을 개정하고 계시는데 완성되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1) 류광현(문리대 58, philip,rhyu@gmail,com 719-325-9692); 해방교향곡이란 북한의 과거 사실에 근 거를 소설을 영문 및 한글로 집필하셨고, 정기적으 로 한국에가서 탈북자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계시며 한국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의 주일설교를 매주 영어 로 번역하여 (미국에 계실 때라도) 매주 설교를 도웁

(2) 표한승(치대 58, drpyo@aol.com 303-548-8211) 아직도 덴버에서 치과진료를 계속하고 계시며 아프 리카 및 아시아에 치과진료를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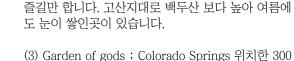
5. 미주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역의 관광명소, 문화/정신적 가치, 교육 역사 등. 이 중에서 특히 지역 을 상징하는 단 한가지를 든다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 니까? 이유는?

(1) 스키장 (Vail, Aspen, Keystone, Steamboat Springs) 은 겨울의 스키 이외에도 여름에는 각종 음악회, 전시 회, 음식 및 와인 festival 등이 열리고, 또한 이 지역 에 많은 등산길, 자전거 길들이 있습니다. Glenwood Spring 과 Steamboat Spring 지역의 온천은 겨울에 스키를 즐긴 후에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Estes Park; O 름의 down town 은 많은 관광객으 로 붐비는데 주위 의 산행길, 자전거 길 승마, 각종 식당 등이 있읍니다. 공 포 영화의 장소 로 쓰였던 Stanley hotel 에서의 brunch







여개의 sandstone으로 이루어진 자연 공원으로 뒷 배경에 해발 14000 feet 넘는 Pikespeak 가 보이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중에 하나이며 많 은 산 작품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 동창회 운영에 어려운 점?

모임의 활성화 즉 모임이 있을 때 회원의 참여율이 낮습 니다. 보통 10여명 모입니다. 좋은 사례나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7.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회칙에 따른 '장학위원회' 와 '나눔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회원이 참여한다면 좋은 사업이겠지만 저희 Colorado 지부회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이제 막 1월부터 임기 를 시작한 회장인 제가(최용운 공대 77) 찬반을 이야기하 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글: 최용운 회장/송요준 (의대 64) 전회장



뉴잉글랜드 송년모임

12월 10일(토) 오후 1시에 보스턴 외곽 서 신약 개발 등의 연구활동을 하였다. 렉싱턴 소재 아발론 오디토리움에서 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불구하고 50학번부터 2010학번까지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반가운 만난 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두 음대 동문의 모차르트의 '바이얼린 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 'k. 423'의 연 주로 시작되었다. 만남으로 웅성거리던 활기는 아름다운 선율이 시작되자 안건 처리에 적합한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 다.

〈안건 의결 및 보고 사항〉

몇가지 안건 처리와 보고가 있었다. 임 시총회를 겸한 이날 회의에선 박영철 동문(농대 64)이 차기회장(2017년 7월 - 2018년 6월)으로 선임되었다. 박영 철 동문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유전학으

뉴잉글랜드 동창회 송년 모임이 지난 로 박사 학위를 받은후 암연구소 등에 최근에 은퇴한 후 미주동창회 등 동문 회 활동에 헌신하고 있다. 이어 김호웅 (법 65)신임 이사의 인준이 있었다. 김 연말 헐리데이 시즌의 바쁜 일정에도 호웅 동문은 앞으로 동창회 회칙 등의 개정에 자문을 해주기로 했다.

> 정태영 회장(문리 71)은 내년 뉴잉글 랜드 정기총회를 미주동창회가 보스턴 에서 개최하는 미주평의원회(2017년 6 월 23일-25일; 2박3일)에 맞추어 하루 저녁 만찬을 평의원과 함께 하는 것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상운 차기 미주총동창회 사무총장(수의 87)이 내년도 미주평의 원회의의 보스턴 개최에 대해 설명하 고, 서병철 동문(약대 90)이 많은 시간 과 수고를 하여 작성한 명부록 제작 경 과와 이번 명부록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새로운 동문 명부록 특징 이번 명부록은 별세한 동문들의 이

이벤트 시간을 갖고 오세경 동문(약대 61)이 미국에서의 삶을 회고하는 이야 기를 들려주었고, 박영철/정선주(간호 68) 부부 동문은 여행에서 얻은 아름다 운 영상을 보여주었다. 김문소 동문(수 의대 61)이 지난 9월 25일 서울 모교에 서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상' 을 수상하 여 소감 및 감사 인사를 했다.

〈송년 모임 이모저모〉

한 동문들의 이름도 타주 내지 한국 귀 국 날짜를 명시한 상태에서 계속 게재 한 점이 특색이었다. 따라서 별세 또 는 이주로 뉴잉글랜드를 떠난 동문의 이름이 어느날 갑자기 명부록에서 사 라지는 아쉬움을 달래고, 동문들의 추 억이 기억되고, 타 지역에서도 교류와 끈끈한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 통로 를 남겨 두자는 취지에서 시도되었다. 앞으로 뉴잉글랜드 동창회 명부록이 이 지역에서 발자취를 남긴 동문들의 흔적 내지 자료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이번 송년 모임은 예년과 달리 낮 시



도록 하였으며, 타주나 한국으로 이사 년층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추운 겨울 늦은밤 운전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였다. 참석 동문은 평년보다 많았다. 많은 동 문들의 참여를 위하여 참가비를 예년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명부록에 수록된 광고를 통해 들어온 수입으로 예년과 별반 차이 없는 한식 부페 식단 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및 장식품의 도네이션이 있었다: 김선 혁(약대 59) 동문은 장식품, 김은한(의 대 60) 동문은 보리차, 윤상래(수의 62) 차기 미주 총동창회 회장이 포도주를, 윤용훈(공대 67) 동문은 밥, 이의인(공 대 68)동문은 홈메이드 디저트, 김병국 (공대 71)/김유경(음대 72) 동문 부부는 커피, 이영인(사대 74) 동문은 밥, 장수 인(음대 76) 동문은 과일펀치 칵테일 음 료를 기부해 주어 송년 모임이 보다 화 기애애하고 풍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름도 별세한 일시와 함께 계속 게재하 간에 개최되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장

정태영 회장(문리 71)은 "인터넷 네트 워크로 가상공간에서는 사회적 외연이 확장되면서도, 정작 고립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훈훈한 face-to-face 휴먼 교감 이 갈망된다"며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여 '벅쩍벅쩍 시끌시끌 붐비는' 앞으 로의 모임이 희망된다고 말했다.

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해 주었다. 운영진인 이영인(사대 74),

김제성(공대 87), 서병철(약대 90), 나

유선(음대 02) 동문이 모임 준비를 위

이번 모임에서도 몇몇 동문들의 푸드

〈이사회 개최〉

이에 앞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회칙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는 종전의 공개적인 의사 수렴 방안에 서 탈피하여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는 직접 의견을 묻는 간이 비밀 투표 방식 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부회장을 신설 하는 회칙 개정안이 찬반 논의를 한 후 간편 비밀 투표 형식의 표결에 부쳐져 12대 7로 가결되었다(무효 1).

북가주 송년모임

북가주 지부 연말 총회 및 파티가 12월 3일 San Francisco Airport Crown Plaza hotel에서 열렸다. 파티는 Star Power 오 의미 (간호73) 재무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향수를 불러오는 교가 제창에 이어 임희례

(간호 73) 회장의 개회사, 민병곤 (공대65) 에 이어 홍경삼 (문리 61) 전 이사장의 흥 이사장의 인사말에서는 우리가 이역 만리 에서 오래 잊었던 모교 서울대의 선후배 동 문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커다란 행운임을

총회는 2016년 활동보고로 오픈 골프 대 회, 가을 야유회, 당일 연말 파티 상황보고

미 진진한 해설이 곁든 SNU Hiking Zinfandel Club 활동 보고 겸 slide show가 있 었다. 이사회는 또 2017년 부터 산하 독립 위원회로 운영될 전체 활동 분야들을 소개 되었다. 하였다: Membership, Well-being, Hiking, Golf, Harmonica/Ukulele, Newsletter and photograph, Scholarship, Community

service support, Student relations가 포함 되었다. 강정수 (문리 61) 동문에게는 2년 연속 오픈 골프 주최로 지부 운영에 공헌 하심에 임희례 회장 명의의 감사장이 수여

모두 발언을 통해 개성과 경험을 바탕으 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었고, 최 연 장자이신 한만섭 (공대49, 사진)동문께서 후배들에게 경이로운 지난 이야기를 해 주 시는 등, 선후배 교류는 연말 파티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

모든 참석자에게 서울대 로고와 "Northern California"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되었 서전인 "주너를 지키리"와 여행기인 "이스 라엘 성지 순례")를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 었다. 이어진 유흥에는 송구영신하는 춤과 노래, 라플 티켓 뽑기로 많은 선물을 주고 받으며 두시간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이렇게 새해 맞을 준비를 하였고 2017년 에는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서 로 기원하면서 헤어졌다.

> 글: 민병곤 (공대64) 이사장 사진: 홍경삼(문리대 61)



뉴욕 이준행 장학금 수여식



식에는 '준리 재단' 관계자와 가족등 고 한다. 이 참석해 5명의 대학생과 1명의 대 학원생이 각각 \$2500 씩의 장학금을 이 재단은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가

'이준행 특지 장학금'은 뉴욕지부 서 으로도 십년이상 유지 될 수 있도록 울대학교 동창회 장학금과 같이 수여 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준리재단' 선 단체이다. 장학금 수여와 이외에 으로 독립해 따로 수여식을 갖고 있 다. 이번 수여식에는 장학생 수를 두 후원할 계획이다. 특별히 예술적 재 배로 늘려 6 명에게 지급하였다. 이준 능이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특 행 동문은 수혜자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두루 섭렵하여 국제적인 인재 뉴욕에는 이외에도 미주 한국어재단 로 성장,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메세 을 후원하는 'Baik Family Founda-지를 학생들에게 전했다.

뉴욕의 에드워드 강 (사대 60) 동문 도 부인와 같이 'Edward and In-Aie Kang Foundation, Inc.'를 설립하 였다. (www.edwardkangfoundation.org) 이 재단은 올해부터 매년 12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매년 한 명 당 \$5000 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 획을 가지고 있다. 회계사로 일하며

지난 12 월 29 일 뉴욕에서 이준행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를 생각했 (공대48) 동문의 '준리 재단' 장학금 다는 강 동문은 은퇴하기 몇년 전부 수여식이 있었다. 이대영(문리대 64) 터 재단 설립 계획을 세워 남은 여생 뉴욕 차기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수여 을 자선 사업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 족재단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특별히 재정설계 변호사인 아들의 참여로 앞 단단한 투자 수익으로 만들어진 자 도 재정 보조가 필요한 한인 단체를 별후원을 계획하고 있다.

tion'의 백승원 (의대 73) 동문등 많 은 동문들의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이 어지고 있다.

"The only things you can take with you when you leave this world are things you have packed inside your heart.

글,사진:허유선(가정 83) 편집위원

북가주 간호대 송년회



지난 17일 로스 가토스 김영이 동문 자 택에서 열렸다. 20여 명의 동문들은 부 보냈다.

간호대학 북가주 동창회 송년모임이 부동반으로 모여 준비된 음식을 나누 고 이야기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남가주 사대 신년회



사범대학 남가주 동창회 신년회가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교류와 친목 지난 7일 열렸다. 이날 신년회에는 40 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올 한 해 더욱

워싱턴 DC 관악세대 간담회



(금) 비엔나에 위치한 우래옥에서 DC 웹사이트 운영, 세대별 모임방 구축 에 위치한 IMF와 World Bank에 근 등)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동창회 무하는 서울대 동문들(89 - 08 학 번)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은행 에 근무하는 송윤정 (인문대 89) 동 문의 주선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안선 미 회장을 비롯한 5명의 임원단과12 하였다. 또한 동우회나 취미를 공유 대 미주총동창회 오인환 전 회장, 그 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리고 89/90년대 학번의 30/40대 동 동문들과 친분을 쌓다보면 나오고 싶 문들 1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동창 모임의 세대별 연계를 위한 변화'에 었다.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열띤 토론이 3시 간 넘게 진행되었다.

그날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면, 먼 저 세대별 모임이 조직적으로 구축 되고 활성화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 지역 동문의 연령분포 자료 정리 가 필요하고, 세대별로 임명된 총무 들이 의견을 교환하여 단기/ 장기적 였다. 그래서, 송년모임도 각 세대별 모임에서 각 그룹이 발표할 것을 정 하고 준비해서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만 젊은 세대 의 참석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동문 모임이 동문 간 에 상호 유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모교 그리고 고국에 기여 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은퇴를 하 신 선배들이 후배를 위한 멘토와 조 A Session 을 준비할 예정이다. 직을 체계화하기 위한 경제적 기부와

워싱턴 지역동창회는 지난 1월 6일 동문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 (예:동문 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 리고 장학기금 및 어려운 동문과 이 은 동창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

> Facilitator 역을 맡은 오인환(문리 63) 동문은 간담회를 위한 ground rule 을 소개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했 으며 몇가지 첨언한 것은 미국에 사 는 서울대 동문으로서 개인차원이나 소규모 차원에서 뛰어 넘어 동창회와 같이 여럿이 모이는 Group 차원에서 Leadership을 생각하고 힘을 키웠으 면 좋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평소 에 Ivy Leaguers 와 어깨를 겨뤘으 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했다. 더 자주 만나면 더 친근감이 있는게 인지상정 하고 장소와 시간은 추후 통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2월에 서울대 모교 재 World Bank, IMF 등 방문 외에도 워 싱톤 선배 동문님들의 경험담과 Q &

글: 한정민 (가정대 87) 편집위원

김정향 동문 개인전 개최 알재단, 2017년 첫 전시

비영리 예술가 지원단체 알재단(회 장 이숙녀)이 2017년 첫 전시회로 다 루 김정향 (미대 73, 사진) 작가의 개인 전을 개최한다.

'리플렉션(Reflection)'이라는 주제의 이 전시회는 오는 18일부터 7월10일 까지 뱅크오브호프 맨해튼 지점(16 W. 32스트리트)에서 관람할 수 있다.

작년 5월 꽃이라는 매혹적인 형상과 동그라미, 점 등을 주제로 사용해 서정 성을 보임과 동시에 논리적인 기하학 _ 뉴욕), 소호 미디어드 갤러리(아틀란 의 세계를 꽃과 대치시킴으로써 독특 타),100브로드웨이(뉴욕), 갤러리 89(한 이중성의 미학을 표현했던 김 동문 프랑스), 예맥갤러리(서울) 등 뉴욕을 은 이번 개인전에서는 '보이는 것'과 ' 중심으로 서울, 프랑스 등에서 20회 상상'이라는 두 가지 세계의 미학을 빛 이상 개인전을 가지며 활발히 활동하 과 색으로 이뤄진 다채로운 회화작품 고 있다. 으로 선보이고 있다.

업 후 도미해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 전 9시~오후 5시. info@ahlfounda-드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85년 뉴욕, tion.org, 212-675-1619.



윈도우스 온 화이트 갤러리에서 가 진 개인전을 시작으로 현대미술관(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은 18일 오후 5 김 동문은 1977년 모교 회화과를 졸 시 30분, 갤러리 운영시간: 월~금 오

남가주 이사회

지난 1월 19일 '작가의집'에서 2016년 도 남가주총동창회 정기이사회가 열렸 다. 민일기(약대 69) 총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사회는 교가제창에 이어, 민일 기 총무국장이 이사 정족수 확인절차가 있었고 이어서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김병연(공대 69) 총동창회장은 인사말 에서 "남가주총동창회 역사기록을 완성 은 못했지만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 다. 별지 책자로 배부한 대로 2016년도의 각종 행사, 회계, 동창회 동문 정보 등 비 교적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향후 동창회 회계제도, 양식의 표준화를 정착 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춘계야유회, 국 악공연 등 새롭고, 보람있는 행사를 많이 하였으며, 동문들의 행사 참여, 후원금 및 회비 등의 자료를 Database화 했습니다.

후원금, 회비 납부리스트를 단대별, 개인 별로 작성배포하고 또한 Web site(www. snuasocal.org)를 통하여 총동창회행사 를 수시로 홍보하고, 후원금액 세금공제 (Tax Exemption) Receipt를 1월에 발송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혜옥(간호대 69) 직전 총동 창회장의 지난 해 2016년 1월 13일에 있 었던 정기이사회 보고가 있었다. "1)단과 대학별 선임이사비 납부책임제 2)총동 창회의 부회장은 단과대학 직전 또는 전 회장이 한다. 3)이사회비 및 일반회비 금

다음으로 차기민(공대 85) 재무국장의 사항은 제거할 것입니다. 주안사업은 절 액 결정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재무보고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지난 일 민일기 총무국장(약대 69)의 다음과 같 년 동안은 지나간 어느 해보다도 경제활 은 사업보고가 있었다; "2016년도 동창 동이 가장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총 회 주요 활동 상황으로, 신년 해돋이 모 \$135,000 수입에 \$125,000 지출로 수입, 임, 신년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역대 회 지출 총 규모가 \$250,000이 넘는 역동적 장단 골프대회, 춘계 골프대회, 춘계 야유 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회, 동창회 기금마련 미대 전시회 및 미술

그리고 간호대와 법대동창회에서 남가 주 총동창회 종신이사제 및 종신회원 납 moth Lakes 가족 Camping , 원로선배 초 부제 도입에 관한 제안이 있었으나, 차 기 회장단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음 으로는 2017년 회장 성주경(상대 68) 동 문의2017년 사업계획 발표가 다음과 같 이 있었다.

잔액은 약 \$45,000 입니다."

총동창회 이사회

"전년도에 준한 행사를 지속할 것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불필요한

은 세대의 참여를 격려하여 동창회를 지 속화할 것이며, 젊은 세대 불참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임원진을 70,80학번으로 구성했으며, 또한 장학사업을 조직화하 겠습니다. 또한 회장 임기가 1년이라서, 계속성 여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7 년 수석부회장 선출이 있 었고, 박혜옥 인선위원장(직전 회장)의 진행으로, 정관에 따른 후보의 자격 및 심 사규정에 대한 설명과 후보자 자격여부 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임항균 사대회장 이 강신용(사대 73) 동문을 추천하고 특 별한 이의 없이 강신용 동문이 선출되었 다. 이어 선출된 신임 수석부회장의 인사 가 있었고, 단체사진 촬영 후, 기념품 증 정으로 이사회가 종료되었다.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골프동호회인 말수회의 올해 첫 모임이 1월 25일(수) 아케이디아에 있는 샌타 아 니타 골프코스에서 열렸다.

겨울 폭풍 뒤 활짝 갠 날씨 속에 말수 회 1년을 여는 자리였다. 2009년 5월 첫 모임을 시작한 말수회는 현재 6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매월 마지막 수요일 4, 5개 팀이 모여 회원 간에 친목을 다지 고 있다. 작년 11월 29일에는 20명의 회 원이 같은 코스에서 2016년 납회를 가진

고 인터넷도 못해서..."라며 70대 젊은 묻고 손익계산 중이 후배에게 회장 자리를 맡기며 티타임 예 다. 기념사진 셔터를 약을 자원했다. '신이 내린 스포츠' 라는 골프의 재미에 내기 골프를 빼놓을 수 활기를 띤다. 말수회 없다. 코스 한가득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 가 흐르고, 또 누군가의 포커페이스에는 의 이야기를 담아 다 눈빛만 빛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날 모임에서 김윤호(공대)회원이 9번 홀에서 이글을 하는 행운을 누렸다.

품 경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미주 방

문 강연, 성낙인 총장 초청 강연, Holly-

wood Bowl 가족의 밤 및 음악회, Mam-

청오찬, 기부자 및 후원자 감사만찬, 서울

대학교 개교70주년 기념 모교 국악과 초

청 연주회 등 12번의 큰 행사를 하였으

며, 동우회 활동으로 산악회, 산악자전거(

철벅지), 서예반, 영화감상반(Cine Club),

낭만산책교실, 합창단, 컬리프라이즈 등

의 동우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뒤풀이로 푸짐한 요리가 식탁에 오른 다. 플레이를 마친 회원들이 골프장 근 다. 동문이면 누구나 처 식당에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고, 뒤늦 참여 할 수 있고 별도의 회비도 없다. 다 나와 동문들과 운동을 즐기면 된다.

누르며 모임은 한결 날 찍은 사진은 그날 음 날 아침 회원들에 게 배달된다. 노선배 의 사진 이야기는 말 수회의 역사다. 말수 회 문은 활짝 열려 있

최고참 선배들은 "우리는 영어도 안되 게 도착한 꾼들은 스코어 카드에 얼굴을 만 한 달에 한번 수요일 편안한 마음으로



글: 현기웅 (문리대 64)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 클루'에서는, 2월 16일부 터 28일 까지 'Love in Art' 커플전시회 가 열린다.

이 전시회는 앞으로 계속될'러브 인 아 트(Love in Art)' 시리즈 중 첫번째 전 반자로서 또 예술적 동지로서 함께 작가 일 작품의 키워드'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시이며 동문 강영일(미 대 72) 작가와 남편인 강태호 작가의 커플전시

갤러리 클루의 김진형 관장은, "미술계에는 디 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 P.S. 크뢰이어와

마리 크뢰이어, 로댕과 까미유 끌로델 등 서로의 작품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한 화가 커플들이 많습니다.

강영일 부부 커플전시회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커플작가를 모시어 작품 속에 녹아있는 사랑과 교감을 발견 해보고자 합니다." 라며 이번 전시의 기 획의도를 밝혔다.

강영일 작가는 서정적인 몸짓을 형상화 일 예정이다.

미술평론가인 제임스 스카보로(James Scarborough)는 강영일 동문에 대해 '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쌓고, 경험을 통 이번 Love in Art 커플전은 인생의 동 해 배우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강영

강영일 작가의 화폭 속의 형상들은 관 계의 결과가 아닌 때로는 짧고 때로는 길 기도 한 관계의 과정을 서로 이웃하며 얽 히고 설킨 구도로서 표현하고 있다.

강영일 작가의 남편인 강태호 작가는 한 유기체적 이미지에 강렬하고 화려한 디지털 홍수 속에 잠식되어 가는 인간의 색을 입힌 밝고 리드미컬한 작품을 선 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화폭을 통해 풀어 나가고 있다.

> 중년을 넘긴 화가 부부의 이 커플전시 회에서는, 서로 닮은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작가의 원숙한 작품세계를 만나 볼 수 있다.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92) 동문이 2월 4일 뉴 저지 주 'Boheme Opera' 에서 공연하는 '로씨니 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김 동문은 모교 성악과 를 수석 입학 및 졸업하 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Curtis Institute of Music 에 이례적으로 오디 대 전액 장학생으로 전

문연주자 과정을 거쳐 뉴욕 국제콩클 Liederkranz com- 다. 여기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든든한 서울대라는 뿌리

소프라노 김성지(음대 petition, Kosciusko Foundation Competition 등에 입상, 카네기 홀 연주를 비롯해 독일, 캐나다, 일본, 한국, 미국 전 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에 초대되어 뉴욕 필하모니와 함께 '아리랑'을 연주 의 주역인 Rosina 로 열 했던 거장 Lorin Maazel 과 그가 주최한 Castleton Music Festival에 초청받기도 하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주최 로 개최된 독일 베를린 평화음악회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 작년에 뉴저지 Rutgers 주립대에서 성악박사 학위를 취 득한 김 동문은 '제게 귀한 목소리의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께 평생토록 찬양드리며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마지막 삶의 목표'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인사를 미주 동문들에 게 전해 왔다: "반갑습니다! 저는 92 학번 성악과 김성지 입니다. 졸업 후 필라델피아에 있는 커티스 음대로 유학을 오면서 도미한 후 벌써 20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



가 있음에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단지 최고가 아닌 최선 의 모습으로 한 동문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웹사이트: www.sungjikim.com www.bohemeopera.com

고태화 동문 '올해의 작가전'에 초대

릴랜드 미대의 플래쳐 매키 교수가 심사했다.

'올해의 작가전'에 선정된 고태화 동문의 작품은 전 통적 판화 기법을 사용해 얇은 종이에 이미지를 찍 고, 이 종이들을 겹겹이 쌓고, 접고, 연결하며 줄기, 세 포, 씨앗 등 자연의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만든다. 고태화 작가는 모교 미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 고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판화와 조각 전공으로 석사 학 위를 받았다.

고 동문은 국제 프린트 센터 뉴욕, A.I.R 갤러리, 알링턴 아트센터, 워싱턴DC 플래시 포인트 갤러리 등 미국과 한 국을 오가며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져 왔다.

고 동문은 "항상 열정과 노력으로 모범이 되어주시는 선 후배님들과 전시 소식을 나누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라 는 인사를 본 동창회보에 전해왔다.

전시 개막 행사는 2월 3일(금) 오후 6시 워싱턴 한국문화 원에서 열린다. 참가는 무료이나 워싱턴 한국문화원 홈페 이지(www.koreaculturedc.org)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



올해는 필립스 컬렉션의 크라우스 오트만 큐레이터와 메 요하다. 문의: 202-587-6163

설치미술가 고태화(미대 92) 동문의 '수상한 생장, Sus-

picious Growths' 전시회가 워싱턴 한국문화원(원장 박

명순)에서 2월 3-24일 '올해의 작가전'으로 개최한다.

'올해의 작가전' 시리즈는 매년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시행 하고 있는 전시작가 공모 프로그램 '오픈 콜 아티스트'에

응모한 최상위권 작가 1인을 선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심

도있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진훈 동문 '산을 향해 눈을 드니'출간

교회음악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

내과의사 최진훈(의 대 64) 동문이 자신의 해 눈을 드니'를 출간

초부터 뉴욕에서 개업

의로 자리를 잡았으며 또한 '코리안챔버 오케스트라'를 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쓰고 있다.

년간 유케스트라 지휘 수업을 하고, 최근까지 교회 성 의학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담았었다. 가대 지휘를 해 오며 뉴욕에서의 50 여년을 음악과 함 께 해왔다.

유치원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운 최 동문은 모교 의대 월 교회 성가대를 지 시절부터 서울 의대 오케스트라와, 서울대 팝스 오케스 칼럼 모음집 '산을 향 트라에서 프랜치 치혼을 연주하기도 했다.

1987년에 창단된 뉴욕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는 10 여년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씩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올 최 동문은 1970년대 정도로 최 동문은 음악에의 열정을 지니고 있다.

웨체스터 올드타이머로 오랜 기간 아즐리에 거주해 창단해 이끌어온 음악인으로서 이곳 한인 커뮤니티에 오고 있는 그는, 현재 의료나 지휘 일선에서 반 쯤 은 잘 알려져 있다. 최 동문은 이번 책에 교회의 고전 성가 되했지만 그 열정을 식히지 않은 채, 음악에 대한 책을 펴낸 것이다.

처음 뉴욕 브롱스교회에서 오르간으로 교회에서 음 그동안 일간지나 잡지에 칼럼을 써 온 그는 지난 2004 하고 있다. 악을 담당하기 시작한 최 동문은 줄리아드 스쿨에서 4 년에는 칼럼 모음집 '벽을 향한 소리'를 펴냈으며, 주로

그가 이번에 펴낸 '산을 향해 눈을 드니'에는 오랜 세 대한 개인적인 견해 등도 수록되어 있다.

휘해오면서 느꼈던 점, 즉 일반 성가대 워들에게 고전음악 에 대한 이해를 알려 주고 싶었던 것들을 수년간 자신에 블로 그에 수록했던 글을 모은 것으로 헨델의 메시아, 모차르트의 미사곡 같은 대곡을 한곡 한곡을 짚어 알 기 쉽게 풀어 설명을



이 책에는 교회 성 가대 또는 교회 음악, 그리고 교회음악의 세대차 등에

274호 | 2017년 2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이영묵 동문, '문학의식 작품상' 해외부문 수상

제 8대 미주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이영 묵(공대 58) 동문이 '제 6회 문학의식 작품상' 해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작품상 심사위 원회는 지난 한 해 계간지인 '문학의식'에 발 표한 여러 장르의 신작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작품 중 이 씨의 희곡 '해조음'을 '해외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난 31일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이 겠다"고 말했다. 영묵 동문을 대신해 경희대학교 미대 이문성 교수가 상과 상금을 받았으며 상금은 이 동 문의 뜻에 따라 문학발전기금으로 기부됐다.

이영묵 동문은 수상소감에서 "나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에 대한 상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

이 동문은 미주총동창회장, 워싱턴지부 동 창회장, 워싱턴 문인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 서로 '워싱턴의 도박꾼' 등 3권의 소설과 수필 집 '워싱턴에서 살며 사랑하며', 여행기 '길에 서 나를 본다'를 펴냈다.

동문동정 13

징검다리

900

백순 동문, 네번째 시집 '징검다리' 출간



시인 백 순(법대 58) 동문이 최근 시집 '징검

2015년 연말 펴낸 '워싱톤 광장에서 시편 을 읊으리라'를 비롯 '그래도 주님 사랑 넘 치면'(99),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은혜의 눈 송이를'(2005)등 세 권의 신앙시집에 이은 네 번째 시집이다.

시집은 순결의 무게, 그루터기, 천지창조, 눈 물의 강 흐르게 하소서,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다, 징검다리 등 총 6부로 구분돼 '포토맥 강 봄비', '떠나야겠다', '눈물의 강 흐르게 하소 서', '아나폴리스 모래사장', '봄의 슬픔', '봄은 멀구나', '봄의 잔치', '봄의 소리', '2월 달무리',

'초여름 바람', '여름의 광명', '옳음과 나쁨의 교 법대와 고 열매', '겨울 하늘과 찬바람', '빙산의 웃음', '순 결의 그리움'등 72편의 근작시로 꾸며져 있다.

백 동문은 "이국땅에서 부딪쳐야 하는 미국 이라는 개울을 한글의 징검다리를 놓고 건 너가는 모습이 미주 한인 1세대의 정체성이 고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문학작품이 시라

그렇게 틈틈이 모아 두었던 내 정체성의 모 습을 담은 시편을 엮어 세상에 내어 놓는다"

본 미주동창회보 주필을 지낸 백 동문은 모 권의 시 평론집도 펴냈다.

려대 경제 대 학원을 거쳐 오하이오대 와 웨스트 버 지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 사를 취득한 후 연방 노동

부 선임학자로 28년간 근무하다 은퇴, 워싱 턴 버지니아대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조선 문학, 자유문학, 화백문학 등을 통해 등단했 으며 '형이상학 시인론'(2007), '미국계관시 인론'(2014), '영국계관시인론' (2014) 등 세

이태상 동문, '코스모스 시리즈' 완간

이번에 나온 '어레인보우 시리즈' 여섯 번째 에세이집 '생의 찬가'는 그동안 써온 18 권(영문판 한 권과 역서 4권 포함)의 '코스모스 시리즈'의 최종 완결본으로 그 배경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

괴테가 그의 나이 24세에 쓰기 시작해 82세에 마쳤다는, 58년에 걸친 희곡 '파 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하는 마지막 독 백 "오,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를 나는 내 나이 23세에 시작해 80세에 마 치는, 57년에 걸친 나의 신곡(神曲)이 아 닌 인곡(人曲)인 '코스모스 시리즈'를 나 의 독백 "아, 코스모스, 넌 정말 아름답구 나!"로 끝맺는다.

첫사랑 '코스모스'님으로부터 크리스마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죽기 전에 단 한 스 선물로 받은 단테의 '신곡(神曲)'에 대 번 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어 회신을 간절 한 답례로 바치는 이 '코스모스 시리즈'는 히 고대하고 있다. 설혹 그런 기회가 내 1961년 2월초 마지막으로 만나 보고 헤어 진 후 지난 55여년 동안 날로 사무치는 그 리움으로 쓰게 된 것으로 10여권의 이 책 들을 내 생전에 코스모스님에게 보내드리 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그러다 그야말로 지성이면 감천인지 기 적처럼 여러 해를 두고 찾아온 코스모스 님의 소재를 지난 9월에야 비로서 알게 되 어 내 책들을 우송해드렸다. 이것만으로 도 내 평생소원이 이루어진 셈이고 내 책 들을 읽어주셨다는 짧은 한마디 답장이라

1959년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나의 도 받을 수 있다면 나로서는 이 세상에서 게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한없이 감 사할 뿐이다.

> 나이 아홉 살 때 여덟 살짜리 비아트리체 를 만나 이 소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24세에 죽었지만 잊지 못하고 '신곡(The Divine Comedy)'을 쓰게 된 단테 같이 나 도 이루지 못한 나의 첫사랑 때문에 나의 '인곡(The Human Comedy)'을 쓰게 된 것에 뭣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보람되고 행복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이태상 (문리대 55)



2월 달무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르막 내리막 길 대보름 달무리가 춤을 춘다

삶의 길 오르락내리락 달무리따라 춤추듯 뛰고 있다 오르막길 달무리 부름 잣 불을 짚어 사나이의 꿈을 밝혀 주신 어머니의 바라보시는 얼굴

내리막길 달무리 풍성한 부름상을 차려서 사람의 평강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의 흐뭇하신 얼굴



















ACCOMMONANTAL STREET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74호 | 2017년 2월 14



장동만 (문리 55)

선진 한국 - 부끄러운 민낯 (상)

단군 역사 이래 최상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오늘의 한국,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質) 만족도는 조사 대상 145개 국 중 117위 (미국 갤럽 조사 '2014 세계 웰빙 지수'), 내전 중인 이라크나 남수단 보다도 낮은 세계 최 하위 수준이다. 그 이유/원인에는, 첫째 사람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 사는 환경 즉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그 원인이 있겠는데, 툭하면 세계 최초/최고/최상을 자랑/자부하는 그 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이 어느 정 도인지, 왜 선진국 진입을 못하고 그 문턱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지,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 몇 가지를 세계 유수 연구/조사 기 관 통계를 바탕으로 두 번에 설쳐 들추어 보기로 한다.

1) 정부/국가 신뢰 (지수) 23%-

한국 사람들은 정부/ 국가가 하는 일 (공권력)을 얼마 나 신뢰할까?

가 2014년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 (Better Life Index)' 에 따르면,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한국의 경우 시민 23% 만이 정부를 신뢰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국 가 운데 29위로 OECD 평균치 39%보다 16%나 낮았다. 이 는 36개 조사 대상국 중 사실상 꼴찌에 속하며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는 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 회 통합과 (시민의) 복지/안녕 (Well-being)을 위해 필 수적"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사람들이 국가를 가장 신뢰 하는 나라는 스위스로 77%의 신뢰율을 기록했고, 룩셈부 르크가 74%로 2위, 노르웨이가 66%로 3위를 차지했다

한편 2015년 8월 9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 (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 위 권인 26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PIGS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로 불리는 재정 위기 국가들이다. 이탈리아 (31%)를 비 롯해 포르투갈 (23%), 스페인(21%), 그리스 (19%) 등이 하위권이다.

에서도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홍보 기업 에델만 의 '2015 에델만 신뢰 바로미터'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 대 한 한국 사람들의 신뢰도는 39%로 조사 대상국 27개국 가운데 17위 였다. 아랍 에미리트(89%)와 중국 (85%), 인도 (85%), 인도네시아 (73%), 싱가포르(68%), 네덜란 드(67%) 등이 높은 정부 신뢰도를 보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한국은 개발 도상국인 인 도 (2위) 인도네시아 (5위), 러시아 (6위), 터키 (9위) 등의 나라보다 낮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체코가 한국과 같 은 26위였고, 한국의 바로 아래 순위는 멕시코(29위)다. 이탈리아 (31위), 포르투갈 (37위), 스페인 (39위), 그리스 (40위)등 재정 위기를 겪고있는 나라들이 하위권이었다.

2) 사법 (제도) 신뢰 지수 27%-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횡행하는 나라, 시민들 은 한국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할까?

[정보]

한국 사람들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OECD 조사 TI에서 1995년 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대상국 가운데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조사 됐다. 2013년 기준, 사법 신뢰도는 27%로 OECD 조사 대상 42개국 가 운데 39위 (뒤에서 4번재) 였다. 한국보다 밑에는 콜롬 비아 (26%, 2014), 칠레 (19%, 2013), 우크라이나 (12%, 유감스럽게도 4명 중 1명만이 정부를 신뢰한다. OECD 2014) 등 3개국 뿐이다. 한국보다 한 계단 아래인 콜롬 비아는 아직 좌익 반군과 마약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나 라다. 개발 도상국 가운데 인도 (7위), 인도네시아 (21위), 브라질 (28위), 멕시코 (29위), 러시아 (31위) 등은 한국 보다 순위가 높았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사법 제도 신 뢰도는 54%다.

3) 국가 청렴도 지수 37위-

한 때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지녔던 한국, 요즘은 부정 부패가 얼마나 나아졌을까?

일본의 NHK가 비리 척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기구 NGO가 발표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청렴도 순위」를 금년 1월 26일 보도했다. 독일이 본부인 NGO 「국제 투 명성 기구」는 국제기관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2016년 한국은 176개 국가 중 52위로서, 지 난해 37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다.

NHK는 "한국의 수많은 비리가 밝혀지고 있어, 정부 차 원에서 각종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 다며, 법치 국가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게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또다른 국가별 정부 신뢰도 조사 만드는 사회 분위기로 퇴행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보도했 다. 2016년 1위는 뉴질랜드와 덴마크, 최하위는 소말리 아라고 전했다.

> 2015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투명성 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한국 본부인 한국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집계 결과, 10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에 한국이 56점을 받아 순위 는 168개 조사 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체코 공 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 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 개국이었다.

> 세계적으로는 덴마크 (91점)·핀란드 (90점)·스웨덴 (89 점) · 뉴질랜드 (88점)가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아시아에 서는 싱가포르 (85점)·홍콩 (75점)·일본 (7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CPI는 공공 부문 및 정치 부문에 존재하 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4) 사회 갈등 지수 OECD 5위-

빈부 갈등,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 하루도 쉬지 않고 각종 갈등, 마찰이 끊이지 않는 나 라, 그 나라의 갈등 지수는 얼마나 될까?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이 2015년 3월 24일 발표한 '사 회 갈등 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 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회 갈등 지수는 1.043 (2011 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갈등 지수는 사회 갈등 '요인' 지수를 사회 갈등 관리' 지수로 나눈 값으로, 사회 갈등 요인 지수가 높을수 록, 사회 갈등 관리 지수가 낮을수록 이 값이 커진다. 따 라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요인은 많지만 이를 관 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사회 갈등 지수는 높아 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요인' 지수는 0.396 으로 34개국 중 4위였다. 칠레 (0.594)가 1위, 이스라엘 (0.467)이 2위, 터키(0.443)가 3위 였다. 우리나라 다음으 로는 스페인 (0.363)과 포르투갈(0.363), 그리스(0.353), 영국(0.347), 미국(0.317) 순이었다.

사회 갈등 요인 지수는 정치적 갈등 (공공 서비스의 정 치적 비독립성, 정보 접근 제한, 언론 자유 제한 등)과 경 제적 갈등 (소득 불평등, 소득 분포), 민족 문화 갈등 (인 구 이질성), 인구 스트레스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우 리보다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국가는 터키 (2.940)와 그 리스 (1.712), 칠레 (1.212), 이탈리아 (1.119)였다. 포르 투갈 (0.893)과 이스라엘 (0.849), 스페인 (0.742)이 우리 나라 뒤를 이었고, 미국 (0.581)은 12위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관리' 지수 (0.380)는 조 사 대상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었다. 갈등 관리 지수 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0.923)와 스웨덴 (0.866), 핀 란드(0.859) 등이었고, 일본 (0.569)은 18위, 미국 (0.546) 은 20위였다. 연구원은 또 사회 갈등 지수가 낮은 국가일 수록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증가했는데, 갈등 관리를 10% 높일 경우 1인당 GDP가 1.75~2.41% 늘어난 다는 분석 결과를 함께 내놓았다.

이어 연구원은 "우리 나라의 사회 갈등 수준은 조사 대 상국 중 매우 높은 편이었다" 며 "갈등 관리가 경제 성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속)

하버드대, 디지털 사진 강좌 온라인에 무료 공개



하버드대학교가 '디지털 사진학'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료로 공개했다.

하버드가 공개한 강의는 12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디지 털 사진에 대한 소개와 소프트웨어 강좌, 노출과 광원, 히 스토그램과 디지털 카메라, 색상과 합성까지 다양한 강 의가 마련돼 있다. 12개 강좌를 마치면 평가가 뒤따른다.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번 하버드대 무료 사진 강좌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앨리 슨(https://alison.com/)'에 공개됐다.

하버드대는 2012년, MIT와 함께 주요 대학 수업을 온라 인으로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에덱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 01: Introduction to Digital Photography
- 02: Introduction to Software
- 03: Introduction to Light
- 04: Introduction to Exposure Part 1 & 2
- 06: Introduction to Optics
- 07: Introduction to Histograms 08: Introduction to Software Tools
- 09: Introduction to Digital Cameras Part 1 & 2
- 11: Introduction to Color
- 12: Introduction to Artifacts 13: Digital Photography Assessment

274호 | 2017년 2월

〈특집〉

미국 와서 배운 첫번째 교훈

서울대미주동창회보

美國-最古, 最高의 文明 위에 건설된 最新의 國家



이석호 (공대 66)

올 당시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 국이란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 지고 있었다. 그 편견이란 것은 미국은 백인들

나는 미국에

이 미주 원주민들을 총으로 마구 쏘아 죽이고 빼앗은 땅 위에 아프리카에서 납치해 온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서 단 시일 내에 완전 날림으로 건설된 나라 이고 그렇기에 풍부한 물질문명 이외 에 문화라고 불릴만한 아무런 정신적 인 자산이라곤 없는 천하 쌍놈들의 나 라라는 선입견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가면서 차츰 나의 이 러한 편견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편 견에 가장 큰 수정이 가해진 것은 미 국에 오고 나서 십 년쯤 후에 매사츄 세츠 주의 플리머스 록을 보았을 때였 다. 미국인들은 역사가 짧아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문화적인 자원이 없기에 이따위 바윗덩이도 중요한 역사적인 유물로 여겨진다고 하면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지천으로 널린 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건 물과 조각품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온 다른 한국사람들은 비웃었지 만 나는 생각이 달랐다.

만약에 수만년 전에 다녀간 것이 분 명한 우주인들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중생대에 형성된 공룡들의 발 자국과 같은 수준에다 놓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1492년 크 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을 발견했을 때 그는 사슴 가죽을 두 르고 돌도끼를 들고 통나무를 타고 표 류해 온 것이 아니었다. 당시까지는 최 신예 항해 수단이라 할 만한 帆船을 타고 온 콜럼버스의 손에는 그때까지 인류가 태곳적부터 쌓아온 문명의 정 수라 할 만한 총과 나침판이 들려 있 었으며 콜럼버스의 머릿속에는 인류 가 그때까지 쌓아온 수학과 과학의 지 식이 가득 들어 있었다.

더우기 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 야 할 사실은 창세 이래로 축적된 인 간의 생존의 노하우가 모두 담긴 聖 經이 콜럼버스의 선장실에 항상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류 사대 문 명의 발생지에서 나와 수천년 동안 유 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의 주민들에 의해 갈고 닦이며 축 적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essence 위에서 시작된 나라이기에 미국 매사 츄세츠 주의 플리머스 록이라는 저 작 은 바윗돌을 결코 구 대륙의 피라밋이 나 타지마할 보다 낮게 평가할 수 없 다는 것을 콜럼버스 후에 메이 프라 워 호를 타고 와 신대륙에 내리자마자 그 바위 위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필 그림이 서 있었던 문명적 좌표를 생각 할 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두 아들에게 가끔 말해 준다. "美國은 人類가 世界 最古, 最 高의 정신적, 물질적 文明 위에 舊 大 陸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건설한 最 新의 國家이다."라고.



와서 얼마 안 되었 을 때에 겪었던 일 이다. Minneapolis 병원에서 첫 직업 을 얻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지나치는 미국사람 들은 나에게 'How

44년 전 미국에

정선주 (간호 68)

are you doing?'하 며 말을 걸어오곤 했다. 나는 내 이름을 왜 Doing 이라고 부를까 하면서 혼자 말 못할

그 당시 문리대 안에 있는 어학연구소에 서는 서울대 전교 3, 4학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미국인강사가 유 학 갈 학생이나 교수들을 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있어서 나도 열심히 2년을 수강을 하고 TOEFL 성적도 높다고 기가 살아서 미국에 왔는데 이곳은 미국 오기전 배우 고 온 실력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감히 그래도 그당시 서울대를 졸업하고 당당히 대학원생으로 유학왔는데 내 이름이 이렇 게 바뀌어 버리다니? 나는 How are you? 로만 배우고 들었지 한번도 How are you doing? 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미국땅에 와 서 겪은 나의 비밀을 오늘 실토해 버린다.

15

바보가 되어버린 경험이 나를 채찍질하 여 미국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포용과 flexibility 를 얻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준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며 이제는 하하하 웃어 본다. 이 순간 나는 India 에서 15일 을 지내면서 이 글을 쓴다. 같이 여행하는 여행자들과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얘기하 며 내 얘기를 했더니 모두들 크게 웃었다. 이제는 다들 어른이 된 우리집 아이들과 손자 손녀 앞에서 이런 경험을 밝힐 날이 있을 것 같다.

100 vs 0

고민을 했다.

미국에 처음 와서 Teaching Assistant, 조교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회로〉라는 학부 2학년 과목이었 는데 첫 시험을 치른 후 제가 돕던 미국 교수님이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채점 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을 다닐 때도 조교라는 걸 해 보았기 때 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꺼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던 대로 채점을 하고 답안지를 들고 교수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벌써 다 했나? 그런데 반 평균이 얼마나 되지?"하고 물으셨습 니다. 그래서 저는 머뭇머뭇 거리며, "네, 반 평균이 35점인데요." 라고 말씀 드렸 지요. 그랬더니, "뭐, 35점?" 놀라시는 거에요. 그러더니, 잠깐, "내가 좀 보자." 그러면서 제가 채점한 답안지를 받아 들 고서 한 장씩 넘겨 보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웃으시며 이런 말을 하시는 거

에요. 아시아권에서 온 조교학생들에게 서 이런 일을 보게 된다고 하면서. 즉, " 지금 자네가 채점한 건 학생 누구에게나 우선 0점을 주고 채점을 시작한 거네. 각 자가 얼마만큼 답을 썼는가? 하는 데 따 라 10점도 주고 20점도 주고 30점도 주 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반 평균이 35점 쯤 된 거지.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는 그 렇게 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100점을 주 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나 부족한가? 에 따라 10점을 감점하고, 20점도 감점하 고, 그런다네. 그러니 다시 채점해 보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채점을 했지 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져갔더니 "이번 엔 몇점이나 되나?"라고 물으셔서, "네, 72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 더니, 허 허 웃으시며, "그렇지, 아마 그 정 도 될 꺼야." 하시더라구요. 이것이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첫 교훈입니다. '불신 으로 시작하기보다 신뢰로 시작하자'라 는 이 교훈을 가지고 이제껏 살고 있습니 김정현 (공대 68)

너 자신을 알라

'99년 5월 백일 이 갓 지난 첫아 이를 안고 미국에 도착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과 뜨거운 대지가

만나는 지평선. 그 간간이 서 있는 만발 한 백일홍.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 는 책에서 '모든 것이 광대해서 사람들 의 스케일이 크다'고 한 그곳 - 텍사스 에. 서울대에서 영문학 부전공을 하고 회 계법인의 국제부서에서 북미와 유럽계 회사들을 고객으로 일했던 나지만, 아이 와 둘이 집에 있을 때 불쑥불쑥 걸려오 는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 듣고 당황하곤 했다. 결국, 동네 자 그마한 대학에 영어회화 수업을 신청해 참석했다. 하지만, 수업이 얼마나 지루한 지 결국 첫 수업 쉬는 시간에 나와서 환 불 신청을 하고 그만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는데 한 동양 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 영어 수 름의 일본 여자였다. "미국교회에서 일 주일에 한 번씩 영어회화와 공예를 가르 쳐주고 수업하는 동안 아이들을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함께 다녀보지 않겠 냐?"고 물었다. 그 어떤 것보다 아이를 봐준다는 말에 귀가 동했다. 아이나 나나 친구도 아는 이도 하나 없이 지내는 하 루가 무척이나 길던 터였다. 나는 흔쾌히 따라나섰다. 달라스 Dallas 도심의 커다 란 제일침례교회 First Baptist Church 에서 친절하게도 교회 차가 우리들이 사 는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십여명의 엄마 와 아이를 싣고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선 영어회화와 공예 수업 외에도 간혹 특별 강좌를 열곤 했는데, 가을 특 별강좌로 자녀 양육 Parenting 시간이 있었다. 중년의 한 백인 여성이 강사였는 데 두 아이를 키운 자신의 경험과 상담 을 하며 지켜본 주변의 경험들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에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 다는 것을 확인시킬 것', '훈계는 반드시 자녀를 위한 원칙을 세우고 자녀를 위 업에서 나를 기억했던 '시호코'라는 이 한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화풀이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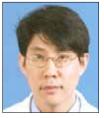
니라), 훈계할 땐 반드시 아이에게 자신 이 왜 훈계를 받는지 이해시킬 것' 등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 었다. 그중에서 내게 오래도록 생각게 한 것이 '아이는 이 땅에서 꽃 피울 씨앗을 품고 이 땅에 보내졌으니, 부모는 그 꽃 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영양을 주고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공부만 하고 공부 잘해서 법조인이나 의사, 교수와 같은 전문가가 되는 게 제일이고, 절대로 위험하고 좁은 길은 피하고 평평한 대로의 제일 안전한 가운데 길을 걸어가라고 듣고 자라온 내 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아이마다 각자 다른 씨앗을 품고 있으니, 부모 자신이 좋아하는 꽃으로 피우기 위해 아이의 씨 앗을 보지 않고 바꾸려 해선 안 되고, 아 이의 씨앗이 남달라 때로는 고통과 시련 의 시간을 지나 꽃을 피울 경우 그 고통 과 시련의 순간에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들으며, 나는 '나 자신에게 심겨 진 씨앗은 무엇이었을까?, 나 자신도 모 르는 내가 아이의 씨앗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전 버락 오바마의 고별 연설전 꽃을 활짝 피우기를 기도한다.

을 보았다. 그의 글과 연설을 좋아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의 연설을 모 두 찾아 들었었다. 그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아버지로부터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버락 오바마'라는 괴상한 이름 을 지어준 자신의 부모님의 용기와 지 혜, 인도네시아에서 살 때 미국인으로서 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겨우 여섯 살 난 자기를 새벽 네시부터 세시간씩 영어 를 가르친 후 출근한 그의 어머니, 온화 한 성품이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 던 어머니지만 그녀를 폭발케한 것은 약 자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그녀의 그러 한 가치관이 자신에게 심어져 자신의 꿈 을 키우게 되었다고, 그는 그의 글과 연 설에서 여러 번 그의 어머니에 대해 언 급을 했었다.

백일잔치를 한국에서 하고 이 땅에 온 내 첫아이가 이제 고3이 되어 대학 원서 를 마쳤다. 입시준비를 위해 참석한 학 부모 강좌마다 강조한 것이 아이가 무 엇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지, 스스로를 아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했 다. 내 아이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자 아의 정체성을 알고 이 땅에서 자신만의



산모 혈액으로 태아 '점돌연변이' 진단

태아의 사소한 돌연변이까지 진단할

최병윤 (의대 91)

수 있는 산전 진단법이 개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의대 91) 교수 연구

로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다 좋아

하는 애창곡이다. 하지만 내가 낮

설고 물 선 이곳에 와서 아리랑 민

요를 목청을 돋우어 힘껏 불렀다가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있었다. '위

기가 기회가 된다.'란 말이 나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 나에겐 잊

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팀은 소량이지만 태아의 DNA가 존재하는 산모의 혈액과 최신 초미세 DNA 증폭 분석기술인 'Picodroplet Digital PCR'의 기술을 접목해 산모에게서 채취한 말초 혈액에서 부를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모의 말초 혈액만을 이용해 뱃속 🏻 에도 태아 손상 유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이 있었다. 최근 산모의 말초 혈액만을 이용해 진단하는 비 침습적 산전 진단법이 개발됐지만 이 진단법은 주로 염색 체 이상 같은 심한 돌연변이의 진단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최 교수팀이 개발한 산전 진단법은 산모의 말초 혈 액만을 이용해 태아의 점돌연변이 질환까지 진단할 수 있 점돌연변이 질환인 유전성 난청을 태아가 가지고 있는지 여 다. 새 검사법은 단순 혈액 제공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침습적 검사에 비해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거의 전무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인 임신 7-10주 그동안 태아의 유전성 질환은 조기에 진단해 치료해야 함 경부터 검사가 가능해 더 빠른 시기에 진단도 가능해졌다.

digital PCR을 이 용해 기존 검사보 다 해상도가 월등 히 높아 염색체 수 이상과 같은 큰 이 상은 물론 유전자 의 미세한 점돌연 변이에 대한 정확 한 진단도 가능해



[미국에서 배운 교훈]

0/3/3/ SE17/0/



김수영 (사대 57)

'아리랑' 민요였다.

미국에 이민 온 지도 올해 34년이 되었지만, 이곳에 와 서 다시 뿌리를 내리면서 잘 살아가기가 처음에는 적응 이 잘되지 않아서 참 힘이 들었다. 언어, 문화, 자라온 환 경이 달라 적응을 못 해 역이민 가는 가정이 종종 있는 사 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을 때 역이민 가는 사람들 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이민 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 좋은 직장을 갖게 되어 여 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인종 전 시 장 같았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다. 직장 가는 것이 즐겁고 피부 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 협력하 며 능률적으로 일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일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쳐 주치의가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되고 가벼운 일을 해야 한다는 의 사진단서를 써 주었다. 나의 상관이 진단서를 보더니 아 주 가벼운 일만 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나와 함께 일 하는 필리핀 독신 동료가 내가 할 일까지 자기가 다 맡 아서 해야 한다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나를 험담하기 시 작했고 상관에게도 내가 일하기 싫어 꾀병한다며 고자질 을 해 나를 골탕먹이고 있던 어느 날 하루였다. 직장 안 에 있는 광고판에 나의 이목을 끄는 광고가 큼직하게 나 붙어 있었다.

"다민족 문화 잔치(Ethnic Diversified Culture Festival)를 1982년 5월 4일 개최하니 자기 나라의 고유문화 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상호협력과 상호공존의 번영을 누리어 직장 분위기를 화해와 화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문화잔치'라 나에겐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나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서로의 문 화가 다르고 생활습관이 달라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 나와 함께 일하는 필리핀 독신 남성이 나에게 괜히 시 가 은은히 흘러나왔다. 배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 겨 분쟁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었다. 직장 당국에서는 중 비를 걸어 내가 자기를 '인종차별' 한다고 직장 당국에 고 람 늘어나면서 …… 재자를 내세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발을 해 놓고 나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인 있었다. 일의 능률을 올리고 효과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중차별 한 사실이 없으니 무죄를 밝히겠지만, 판결이 끝 잘 처리하려면 일터의 분위기가 좋아야 하므로 직장 당 날 때까지 불려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었다. 이 '문

각이 들어서 한번 참여하고 싶은 생각에 흥분하기 시작 이면 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엉터리 춤이란 것을 알고 포 맥스의 팡파르를 울리며 막을 내렸다.

했다. 막상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으나 무슨 주 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을까 하고 고 민하다가 나는 아리랑 민요와 함께 한국 춤을 보여줌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기 때문이었다. 아리랑 민요곡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 다운 곡으로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선정 등재된 바 가 있다. 아리랑 민요는 우리나라 서민의 고유한 정서와 애환을 그린 민요로서 노랫가락이 구슬프고 구성지고 아 름다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잔잔한 감동을 주기 때 문이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쉬운 곡이라 내가 연습만 하



면 얼마든지 대중 앞에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래 만 부르기에는 너무 밋밋해서 노래와 함께 한복을 입고 춤도 곁들여 추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지만 한 번도 춤을 배운 적도 없고 대중 앞에서 추워 본 적이 없는 내가 가 능한 일일까 하고 걱정이 앞섰다.

나는 전문 춤꾼처럼 춤을 못 추어도 아리랑 노래에 장단 맞추어 자연스레 그냥 어깨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기로 마 음먹고 직장 갔다 와서 노래연습에 몰두했다. 원래 음치 였던 내가 '문화잔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 은 결단이었다. 어쩔 수 없이 직장 분위기가 나를 궁지로 몰아넣자 궁여지책으로 참석하기에 이르렀다.

국에서 개발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나에겐 생각이 들었다. 화잔치'가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출구가 어쩌면 될 수 있다는 생각 여함으로 필리핀 남자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에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의 문화를 알릴 절호의 기회란 생 지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가 솟아났다. 관객이 한국사람들 나의 이민 초기의 드라마는 '아리랑 판타지아'로 클라이

복 절도를 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모두 외국사람들 앞에 서 추는 한국 춤이라 잘 못 추어도 잘 추는 줄 알고 박수 를 보낼 것이기에 별로 걱정은 안 되었다. 이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잘 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연습은 계속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다. 나는 아무도 초 청을 하지 않고 가족들만 초청했다. 십여 개국이 넘는 다 민족 문화를 감상할 기회였지만 다른 사람 공연에는 관 심이 없었다. 내 차례를 기다리며 가슴만 뛰고 있었다. 관 람객들은 모두가 직장 동료들이고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한국 사람이라고는 다행하게도 우리 가족뿐이었다. 자녀 에게 내가 아리랑 민요와 한국 춤을 춘다고 하니 자녀마 저 호응을 안 해주고 농담으로 여기니 과히 내 노래 솜씨 와 춤솜씨가 어떠하다는 것이 짐작이 갔다. 믿건 말건 멍 석은 깔렸으니 내 차례가 오면 한바탕 그동안 닦아온 기 량을 마음껏 펼쳐 보리라고 다짐했다.

드디어 내 공연 차례가 오자 두근 반 서근 반 뛰는 가슴 을 진정시키고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이름과 출생국을 밝 히고 아리랑 민요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곁들여 한국 춤도 춘다고 인사를 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노 래도 연습한 것만큼 나오지도 않고 춤도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려 유연한 춤을 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게 어찌 된 일인가! 앙코르를 부르며 박수갈채가 터져 니 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외의 반응에 눈물이 왈칵 치밀 어 올랐다. 망신을 한 줄 알고 나 자신에 실망하고 있었 는데……주저하고 있으니까 나중엔 기립 박수갈채가 쏟 아지면서 앙코르를 계속 불렀다. 나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번엔 정말 잘 불러보리라 생각하고 떨지 않 고 침착하게 또 한 번 불렀더니 장내가 터지라 손뼉을 쳤 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만 연발하면서 인사하고 무대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며칠 휴가를 내어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직장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다. 나를 괴롭 히던 필리핀 남자가 찾아와서 깍듯이 악수를 청하면서 수고했다고 칭찬했다. 아리랑 민요곡조가 매우 아름디 워 자기 조국이 생각났다며 아리랑 민요를 배우고 싶디 고 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서 죄송하다며 '인종차별' 고 발한 건은 다 취소할 테니 앞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며 환하게 밝은 웃음을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긴 장이 확 풀리고 직장 동료와 잘 어울려 일할 수 있었고 다 소나마 한국을 알릴 수 있어서 여간 기쁘지가 않았다. 휴 식시간마다 휴게실에서는 한국의 아리랑 민요 노랫소리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곽상희 겨울서신]



게도 우리를 누르며 무겁고 불확실한 꿈, 희망 하나 남겨두고

떠났다고, 그렇게 푸 념 비슷하게 하며 그대와 마주합니다.

오세영 시인은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이미 없을 것이라고 2월이란 시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2017 해의 1 월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겐 참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달, 기다림 만 남아, 다만 인간 의 가장 순수한 무릎만을 요구한 달이었다

그런데 그 1월도 훌쩍 떠나고 우리에겐 타 작을 기다리는 산더미 같은 낱단만이 남았네 요. 부끄럽게도, 아니,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 으니 그만 두라고요? 시만 말해요. 당신은 시 인이니, 시만, 아름다운 시만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편안하게 닦아주는 시만, 그러나 시 인의 시는 어디서 배태되나요? 또 전 말해야 겠어요. 시인은 자신에게 정직해야하고 진실 해야하고, 진실과 정직하지 못할 때 시인은 시인의 자리를 떠나야한다고. 그리고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해 시를 말할 수 없을 때 시인 은 침묵해야하는 그것이 시인의 운명이라고.

나의 애인 대한민국아!

정성수 시인은 '저 광막한 들판으로 나 기다림, 2월의 가슴 저려오는 기다림, 개 아가/ 가장 외로운 투사가 될 것인가...'2 월의 시'에서 말했지요. 아직도 차갑고 헐 벗은 들, 들로 나가 스스로의 생의 결의를 위해 가장 외로운 투사가 되겠다고. 그렇 게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가슴의 답답함, 고달픈 현실의 불행을 토해야하 는 시인의 말은 남다르다고 보아지네요.

그러나 이향아 시인은 그의 시 '2월에도

에서 마른 풀섶에 귀를 대고 소식을 기 다리는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른 풀섶에 귀를 대고/소식을 듣고 싶 다/빈 들판 질러서/마중을 가고 싶다/해 는 쉬엄쉬엄 은빛 비늘을 털고/가물소리 는 아직 칼끝처럼 시리다/맘 붙일 곳은 없고/이별만 잦아/이마에 입춘대길/써 붙이고서/놋쇠징 두드리며/떠돌고 싶다/ 봄이여, 아직 어려 걷지 못하나/백리 밖에 휘장 치고/엿보고 있나/양지 바른 미나리 꽝/낮은 하늘에/가오리연 띄워서/기다리 고 싶다/아지랑이처럼 나도 떠서/흐르고 싶다/얼마나 시인이 외로웠으면 놋쇠징 두드리며 떠돌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그 의 시는 그의 현실의 고통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2월이 봄을 기다리는 심상을 잔잔하고 질서 정연한 어투로 깊은 여운 을 남기며 속삭이고 있네요.

외삼촌이 입지적인 인물로 의사가 되어

총각으로 강원도 도립 병원장으로 취임하

인의 기다림이 아닌 보다 큰 아주 큰 대의 의 기다림을 안은 우리, 고개를 돌려도 파 도는 거친 자갈돌만 실어 나르고, 그러나 더 따뜻한 바람, 보다 인간다운 바다의 물 결소리가 봄의 바람을 등에 업고 오기를.. 어느 아침 나는 잔디를 뽑는 잠에서 눈을 떴어요...그것이 시가 되어 부끄러운 시 하 나 결국 띄우게 되네요.

이 졸시를 퇴고하는 날 때맞추어 하늘에 서 눈이 참으로 곱게 내려왔어요. 그것을 어쩌면 시인에겐 때 맞는 기적 같은 축복 이라고 말 할 수 있을는지요..

그러나 보다 절실한 시를 쓸 수 없었음 에 사과를 드리며, 1980년대 조국을 향 하여 한권의 시집으로 그 아픔을 함께하 려고 했던 그 때의 그 시집처럼 나는 여 전히 등허리 덜 곧은 시인에 지나지 않다 는 안타까움을 안으며, 아직도 미완성으 로 남아 있는 졸시 새가 '저의 방언으로' 닥아 주는 나의 속울음, 나의 울음이 정직 하고 진실되기를, '2월의 기다림'으로 뉴 욕의 후라싱 동구 밖에 서서 이마에 손을 올리고, 더 큰 위로의 시인이 되지 못합 을 사죄하며...갓드 불래스 코리아 앤 아 메리카! 아듀...

잠에서는 잔디풀뿌리 뽑으며 나는 울었다

쓰디쓴 내 손가락 표독스러운 만큼 나의 숨 헉헉거리고 맨 손으로 오는 힘은 나의 속 어디서 오는 정먹이 울음인지

17

촛불이 눈앞을 가리우고 태극기가 컴컴한 광장의 하늘을 휘날고 32 코리아 타운 잔디의 길고 긴 눈 먼 뿌리는 슬프게도 꼭지 탑 오른다 이별하는 연인의 등을 닦아주던

촛불의 길고 가는 줄을 아름다운 철학의 나라, 파도에 실어 가오리 연 하늘 높이 띄울까?

아, 절묘하게 눈치 보던 하늘이 때맞추어 하얗게 하얗게 천지의 가슴 덮어 주네

나의 애인 대한민국아!

호사가 되었을 때 나 의 (氣)는 하늘을 찌 연봉원 (문리 61)

청운의 뜻을 품고 를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일생 직업을 좌 우하는 중대사란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브라질에서 처음 변

다나 한국인에게 거 의 전인무답의 법률계에 낯설고 물설은 땅 에서 이룬 성과이니 말해 무엇하랴? 합격 통지서를 부모님에게 바치니 아버지는 만 면에 웃음이 가득하시고 어머니는 기어코 우시고 만다. 전 가족 얼굴에 기쁨이 넘친 다. 나도 덩달아 붕 떠있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었다는 자긍심은 개 업 첫날에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첫번 째 손님이 자기 케이스를 말하다 말고 "사 람들이 변호사를 잘 사야 승소한다고 해서 연 변호사님을 찾아 왔습니다" 하는 것이 다. 나는 하도 놀래서 내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 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했더니 변호사 잘 사야 승소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를 돈 주고 산다든가 옛날에 노예나 종을 사고 판다는 소리는 들은 적 이 있어도 변호사를 돈 주고 산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 때만 해도 한 국인에게 변호사는 선망의 직업인데, 언제 부터 한국인에게 변호사는 창녀와 같은 취 입니까?" 하며 다닐 거라고 하니 부모님과 급을 당한단 말인가? 그 다음부터 딴 고 외삼촌은 노여워하시고 그외 가족은 내 고 객에게서도 비슷한 소리를 수 없이 듣고 집에 손을 들고 말았다. 마침 4.19가 난 해 는 변호사란 직업에 회의까지 들었다. 한국 라 법과 대학은 극구 말려서 대학 교수가 에서 직업에 "사"자 들어가는 신랑감에게 될 요량으로 문과로 원서를 내고 말았다. 는 신부 측에서 열쇠를 적어도 3개는 준비 해야 된다 운운 하는 이야기는 전부 헛소 리인가? "사" 자 직업에서 변호사는 빠지 한다. 브라질로 이민 오고 외국에서 법을 는 것인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몰라 고생하는 우리 동포를 도와 준다는

한국에서 고3이 되니, 어느 대학 무슨과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브라질에서 변호사

변호사 매매 (賣買)

를 것 같았다. 더군 게 되니 우리 집안에 우상 같은 존재로 모 든 친척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됐다. 외삼 촌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 여섯살 때부터 외삼촌 집에서 컸다. 어머니는 시간 나실 때마다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 한다" 하 고 나를 세뇌 시키셨다. 시골 의사라 오밤 중에도 사람이 죽어가네, 애를 낳네 하고 깨워서는 겨울에 눈이 푹푹 빠지는 시골길 을 걸어 갔다가 아침이 되면 파죽음이 돼

서 돌아 오는 삼촌을 보고는 어린 마음에 도 의사는 절대로 하면 안될 직업이구나 하고 생각됐다. 하고 많은 직업 중 하루 종 일 사람들이 울고 불고 죽어가는 신음 소 리 내는 것을 듣고 있어야 하겠는가? 고 3이 돼서 나는 법과 대학을 간다고 하 니 당연히 의대로 갈 줄 알고 있던 부모님

을 위시해서 친척들이 난리가 났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되니 친척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 곳에서, 의사가 되기 싫다는 이유를 한번 들어 보자고들 한다. 나는 결연히 지 금 한국에 의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의사 가 될 때쯤은 의사들이 왕진 가방을 들고 이집 저집 기웃 거리며 "주사 맞을 사람 없 그러나 인생살이는 어느 누구도 장담 못

구실을 붙여서 주경 야독(書耕夜讀)으로

를 개업했다.

한 20년간 브라질에서 변호사를 잘 하다 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늦깍이로 미국와 서 다시 로스쿨을 하고 뉴욕 변호사가 되 었다. 나의 고객은 대부분 남미 히스패닉이 고 그 중에도 브라질 사람이 반 이상이다. 이민법을 하게된 이유는 브라질에서도 많 이 하던 일이고 남미 사람 대부분이 신분 문제가 잇슈이기도 하지만, 이민법은 연빙 법이라 미국내 어느 주에서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고객은 여러 주에 분포돼 있다.

서 전화가 왔다. 토요일에는 뉴저지에 사 는 브라질 사람 집에 가야 되고 일요일에 는 커넥티컷 주에 있는 손님 집에 들려야 한다니까 우리 어머니 왈 "기껏 변호사가 돼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이 집에

이혼이나 유언장 작성할 분 없습니까 하 고 다니니?" 하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 요?" 하니. 니가 서울에서 의대 가라고 했 더니 앞으로 한국 의사는 집집마다 문 두 드리면서 "주사 맞을 사람 없읍니까 한다 고 했잖아?" 하신다. 얼마나 말이 섭섭하 셨으면 50 년이 지나서도 그말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게 복수(?)하셨을까 하는 생각 이 들었다.

'변호사를 산다'는 한국어 표현이 아주 보 편화 되었다는 것을 알고난 후 선망의 변 호사란 직업이, 창녀나 기껏 잘해야 머슴 몇달 전, 주말에 뭐 할거냐고 어머니에게 취급 당하는 한국적인 표현이 원망스럽기

> 자초지종은 어떻게 됐던 나는 오늘도 나 를 팔려고(?)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신

제 26차 미주 평의원회의

일시: 6월 23일 - 25일

문의: 윤상래(978-835-0100) 이상운(508-251-9691) 장수인(978-264-2988)

Hotel: Hilton Boston/Woburn 2 FORBES ROAD, WOBURN, MASSACHUSETTS, 01801, USA Tel: +1-781-932-0999 / Fax: +1-781-932-0903 www.bostonwoburn.hilton.com

예약마감: 5월 23일, 화 (\$119 King Bed / \$129 Double bed/night) (2017년 5월 23일까지 예약을 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할인 가격이 적용됨)

Group Nam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EVENT Group Code: SE622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74호 | 2017년 2월 274호 | 2017년 2월 18

"윌셔(Wilshire)

는 미국판 '강남 좌 김지영 (사대 69) 파'의 원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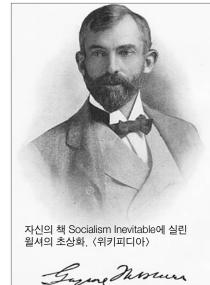
"정말? 윌셔는 길 이름인데"

LA 다운타운에서 시작해 태평양 연안 의 샌타모니카 비치까지 15.83마일의 동 서대로, 그중에서 동쪽 버몬트에서 서쪽 웨스턴까지 8 블럭이 코리아타운의 중심 이다. 보이는 고층 건물은 거의 한인 소 유, 한인 은행, 그리고 식당 등 '우리 동 네'라고 부를 만하다. 1981년 LA 시의회 가 정식으로 윌셔가를 포함한 주변 지역 을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했으니 행정적으 로도 공인 받은 '한인 동네'이다.

윌셔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다. 헨리 게 이로드 윌셔(Henry Gaylord Wilshire), 그는 1890년대 지금의 웨스트레이크 맥 아더 공원 근처에 보리밭을 사들였다. 그 가운데로 폭 4미터 정도의 길을 내고 자 기 이름을 붙였다. 그는 그 보리밭을 전원 주택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1895년 LA시 에 그 땅의 일부를 제공하고 동서 간선도 로 전체에 자기 이름을 남겼다.

윌셔는 오하이오 출신으로 20대에 LA

는 무일푼.



로 왔다. 부동산 금광사업으로 백만장자 가 됐다. 그러나 그는 골수 사회주의자였 다. 정치에도 뛰어들어서 캘리포니아, 오 하이오, 뉴욕 등에서 좌파 후보로 선거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의회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은 건 '낙선 다관왕'이라는 칭호. 말년 에는 '더 윌셔(The Wilshire's)'라는 잡지 를 발행했다. 1927년 뉴욕에서 죽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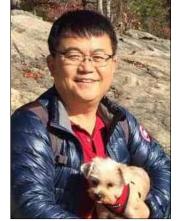
윌셔와 켄모어 코너의 게이로드 아파트 는 그의 중간 이름을 딴 빌딩이다. 1924 년 당시 최고급 호텔로 개관했다. 아파트 로 바뀐 뒤에도 닉슨, 자자 가보르 등 쟁 쟁한 명사가 살기도 했다.

게이로드에서 길 건너에 있는 앰배서더 호텔은 할리우드의 황금기 1930년대에 서 1950년대까지 LA 최고의 명소. 호텔 안의 코코넛 그로브라는 나이트클럽에서 는 프랭크 시나트라, 바버러 스트라이센 드 등이 노래를 불렀다. 1968년 로버트 케네디가 여기서 암살당했다.

게이로드 서쪽 바로 옆에 브라운 더비 라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었다. 더비 모자 의 모양을 딴 대형 원형돔 건물 속에 있 던 레스토랑. 웨이트리스들은 영화배우 가 되기 위해서 LA로 온 미녀들. 마릴린 먼로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 옛날의 역사 는 가고 그 원형돔은 그 자리 샤핑센터 이층에 덩그러니 남아있다. 한때 한국 술 집이었지만, 지금은 텅 비어있다.

윌셔는 죽어서 이름은 남겼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아직 100년도 안 되는데 윌 셔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적고, 그가 어 떤 사람이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 다. 이름마저 남기지 못하는 사람, 이름 만 남기고 가는 사람, 세월이 지나면 다 고만고만하다.

또 100년 후 여기가 우리 동네일지는 아 무도 모른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까? 무엇을 남기든 한국인 입장에서는 '남의 동네,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 다. 지금 '우리 동네, 남의 역사'와 다를 바 없다.



김기택 (수의 81)

U.S Pet Ownership Statistics 에 의하면 2012 년 Pet 을 가진 가구수가 1970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62%가 된다고 합니 다. 그중 약 36 % 는 개이고, 약 30%는 고 양이입니다.

1983년 동물학자이며, 동물 생물학의 아 버지라 불리는 K. 로렌스 박사에 의해 반 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가 소개된 이후, 사람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더불어 사는 가치를 재인식하고, 동 물의 행동과 본능적인 행위 속에서 인간 의 기본적인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론으로 길어지는 인간수명과 거기에 비 례하는 고독감과 컴퓨터와 같은 비생명적 인 매체의 발달로 점점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반 려동물 중 반려견의 훈련과정을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의 훈련과정에는 세 단계가 있습 니다. 첫째는 유치원 과정 (Kindergarten class)으로 생후 8 주에서 16 주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로 다른 사람과 또는 반려견 끼리 친숙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 사회화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초급과정 (Beginner class)으로



셋째는 고급과정(Advanced class)으로 초급과정을 마친 개로써 훈련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 집을 지키거나, 경호 등의 훈

련을 하게 됩니다.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에 실시하며, come,

sit 등의 간단한 명령을 훈련합니다 이 시

기는 성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강아지 훈련과정의 목표는 개줄(leash) 을 사용하지 않고 말과 손짓만으로 "이리 와(come)", "앉아(sit)", "기다려(stay)", "엎드려서 기다려(down-stay)", "왼쪽에 서 기다려(heel)" 등 각종 명령에 반려견들 이 즐겁게 복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훈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 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격 훈련(temperament training)으로 성격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강아지로 하여금 사회적 기 능을 익히게 하고, 다른 강아지 또는 사람 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강아지는 다 른 강아지 또는 성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 성인 남자들에게 공 포심을 없애고 즐겁게 접촉하고 같이 어울 려 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둘째, 복종훈련(Obedience Training)으 로 복종훈련은 주인이 개의 자세, 행동 또 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훈련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어린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이 훈련효

과도 뛰어나고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 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는 일반적으 로 "칭찬 및 보상 훈련기술(Lure-reward Training Techniques)"을 사용하는데 이 것은 강아지 쿠키나 먹이를 가지고 훈련 시키면서 강아지가 트레이너(훈련자)의 요구에 잘 대응해 갈 때 칭찬과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나쁜 습성 등을 교정할 때 효과가 높습니다.

셋째, 행동 및 습관훈련(Behavior / Habit Training)으로 행동 및 습관훈련은 강아지 를 기를 때는 무엇을 씹어야 할 지, 어디에 서 대.소변을 보아야 할 지 어디에 가서 구 덩이를 파야 할 지, 또는 언제 짖어야 할는 지 등 정상적인 강아지의 행동을 가르치 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아지의 행동 또는 습성이 더욱 몸에 배기 전에 교정하 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짖는 강아지인 경우, 훈련 첫째 중에는 행동 교정훈련에서 음식을 가지고 "쉬잇(shush)"이라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쉬잇이라는 명령에는 짖지 못하게 하고 강아지가 짖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경우 먹이을 주며 칭찬을 해 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짖지 않는 시간을 점차 늘 려 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만일 강아지가 실수를 해 야단을 칠 경우 에는 시간이 중요한데, 잘못한 그 순간에 바로 혼내는 것이 좋습니다. 몇 분이 지나 서 야단을 치면 강아지는 자신이 왜 혼이 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데 대한 아무런 효과도 없이 주인에게 두려움만 갖게 됩니다. 보통 가장 심한 벌 은 목덜미를 잡고 높이 치켜서 흔드는 (만 화영화에서 많이 보는) 방법인데 적절하 게 이용되어야만 합니다.

훈련의 예를 알아보면, 저녁 먹이를 주면 서 처음 몇 분간 손에 먹이를 올려놓고 강 아지를 먹이면서 "기다려 (Off, wait.)" 와 "먹어(Take it.)" 등 명령어를 가르칩니다. 먹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기다려"라는 명령으로 먹이를 못먹는 시간을 점차 늘 려나가고 그 후에는 항상 "먹어"라는 명령 으로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훈련을 응용하면 여러가지 잇점을 얻 을 수 있는데, 예컨데 강아지가 두려움을 잘 타거나 수줍음이 많은 경우 외부인이 손에 먹이를 들고 주인이 "먹어" 명령을 내 림으로써 개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외 부인에게 접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개가 가구나 신발을 물어 뜯거나 어린 아이의 기저귀를 가지고 놀 때 "기다려" 명 령으로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 려동물에게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본능이 우선하게 됨으로 많은 관계에서 평화적인 공존이 힘들어지게 되 어 같이 사는 즐거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반려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에 평 상시의 행동 반경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몸의 불편함이나, 질병들을 알아낼 수 있 습니다.



Dr. 박종수 (수의대 58) 수의대 전 회장님의 80세의 생 신과 결혼 50주년 기념파티가 1월 7일 토요일 J.J. Harverd Grand Hotel 에서 열렸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젊 은 얼굴의 환한 웃음으로 130여명의 지인, 가족, 교회 및 서울대 동문등 참석한 모든 분들로부터 기쁨의 축하를 받았다. 화려하지 않고 조촐한 축하파티는 김성수 목사 님 사회로 최세형 목사님의 기도와 박성근 담임목사님 의 영어말씀과 축도로 시작했다.

"주말에 바쁘신 중에도 먼 곳에서 참석해 주신 서울 대 수의대 및 남가주 동문 선·후배님, 목사님과 교우님, 가족 친지분, 사업동료 여러분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 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0 생일이며 결혼 50주년 되 는 날입니다. 여지것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 왔습니다. 대화 속에 서 친교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라는 인사 말씀에서 박종수 회장님은 한평생 하나 님을 섬기며 살아온 장로님으로서의 겸손한 삶을 보여 주는 듯 했다.

이어 박정윤 여사께서 어떤 내조를 일생 하셨는지요? 라는 질문에 "50년의 세월을 이분 옆에서 같이한 지난날 들.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처럼 현숙한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늘 생각하며 나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늘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세 자녀도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잘 자 라줘 또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했다. 아기자기하게 꽃으로 장식된 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곳은 사방의 창 문에 햇살이 드리우는 아담한 기도방이란다.

Dr. 김영(수의대 63) 남가주 총동창회 전 수의대 회장 님의 축사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미시간에서 교수와 사업을 하시다 L.A. 로 이주해서 처음 뵌 후 어언 20년 을 모시고 있습니다. 벌써 80이 되셨는데 동안의 얼굴 에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건강하시고, Averrett 대학에 서 디렉터로 일하시며 학계와 사업의 번창으로 성공하 시고, 신앙심이 강하여 선교사업에도 봉사하시고, 어려 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시고, 수의대 후배들의 부탁에 거 절한 적이 없는 선배님을 존경하며, 수의대 10만불, 서 울대 모교에 연구기관을 위한 100만불 이상의 큰 땅 기 부 등 복이 많으셔서 세 자녀들도 잘 키우고 손자 손녀 들과 다복하십니다. 아내 박정윤 여사는 사랑이 많으시 고 여장부 같은 기지와 잉꼬부부로 늘 함께 다니시고 두 분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며 오래 사시고 건 강하십시요."



그 외의 수의대 이승택(수의대 75) 회장님을 비롯한 손 수웅 (수의대 60)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동문 외 선후배 목사님과 친지어르신 여러분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Dr. 김병연(공대 68)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님의 "학계, 업 계, 가정, 후원, 모든 면에 본이 됨을 존경하며 사랑합니 다. 축하드립니다", Dr. 최재현(수의대 66) 남가주 수의 대 전 회장님 및 L.A. 전 평통회장의 "성경말씀대로 사시 는 박종수 선배님의 겸손과 베품에 감동받아 저도 그렇 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인 사가 계속되었다.

또한 3 자녀(두 딸과 아들)이 아버님에 대한 추억들과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포옹하면서 눈물이 보여 다함께 마음이 찡했다. 백정현 남가주 음 대 전 회장님(아내 Mrs. 박혜옥 남가주 총동창회 전 회 장)의 박종수 회장님 내외분께 드리는 Love Songs 들, "And I love you so" 외 3 곡은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끊이지 않은 앵콜로 밤을 새워 듣고 싶을 정 도로 사르르 몸을 녹였다.

백옥자 서울대 미주동창회 조직국장의 가야금 연주 침 향무(작곡 황병기)는 동양과 서양의 정서를 잘 어우르는 새로운 기법 (양손이 안족 오른쪽에서 연주)과 5음계의 색채는 이색적인 음의 조화를 이루었다. 2부 사회를 본 Dr. 신동국(수의대 76)동문의 아내 Mrs. 소피아 신 님의 금혼식을 생각하며 지은 자작시 '금빛 장미에 새긴 사랑' 를 소개해 참석한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Mrs. 박정윤이 일일이 소개한 내빈들이 끈끈히 새겨진 친분의 세월들을 회상하며 드린 덕담들이 두 내외분에 게 앤돌핀을 채워줘 120세를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임 을 예상케 했다. 푸짐한 저녁식사는 접시에 넘칠 정도로 가지 수가 많아 꾹꾹 맛있게 식사했다. 가족 모두 나와 케익을 자르며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 며 사랑스러운 파티를 하였다. L.A. 한인 침례교회 박성 근 목사님의 저서 '어둠속을 걸어가는 용기'와 수건을 선 물로 준비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젊게 사시는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과 깊은 신앙심의 밑거름으로 많은 봉사 활동 및 교회 건축, 선교 등과 서울대 및 타 기관 의 후원금으로 베풀고 사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드 린다.' 말했다.

글: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알립니다.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분은 news@snuaa.org로 이메일 주십시오

 34th Annual Medical Convention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제 34 차 학술대회 및 동창회)

일시: 3월 1일 (수) - 5일 (일), 2017 장소: Pacific Palm Resort (One Industry Parkway City of Industry, CA) 예약: 1-800-524-4557

❖ 뉴욕 골든클럽 신년교례회 일시: 3월 25일 토요일 6시

❖ 서용선 동문 '크로스 월드' 기획전 기간: 2월 9일 - 18일 장소: Art Mora Gallery, 547 W. 27th St. Suite 307, NY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오늘은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람 하나 소개하 겠습니다. 어느 동문이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친 구입니다. 모교 상대를 48년도에 입학했고 재학 시절부터 K 방송국 아나운서로 퍽 인기도 좋았고, 6.25 때는 평양 탈환 시, K 방송의 첫번째 방송을 했 던 친구인데, 이제는 느지막하게 고생줄에 들어서 동창회보 받아볼 돈도 어려운 실정이라 합니다.

19

오늘 제가 금년도 회비 75 불 짜리 수표를 보내 오니 이 친구가 앞으로 계속 회보를 받아 볼 수 있 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어 쩔수가 없었다. 서을대 동문중에 이처럼 어렵게 사 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슬펐으며, 회비 가 없어서 동창회보를 볼 수가 없다 하니 너무나 눈 물이 나왔다. 사실 우리 회보는 회비납부에 상관없 이 주소변경만 확실히 보내주면 배달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의 동창회보를 그토록 읽어보 고 싶어하는 동문이있다는 것에 또한 가슴이 미어 지는 기쁨이 슬픔과 함께 느껴졌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 너무나 좋은 내 친구에게 '보 내주신 수표를 잘 전달하겠으며, 차후로는 이 분 이 반드시 우리 동창회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 릴 것'을 약속드린다.

윤상래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폭설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은 멈추지 않고 육 일째 내렸다. 나는 눈의 장벽에 갇혀 두려움을 안고 차라리 눈이 되었다. 뿌연 들판으로 하얀 가루가 되어 밤낮으로 내리고 있었다.

육일이 지난후 제설차가 나를 실어 나를 때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미끄럼을 타고 함성을 지르며 내 이름을 불었을때 파란 하늘처럼 활짝 웃었다.

서윤석 (의대 62년)

런 사람이었다.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다. 선비의 이종호 (인문 81) 길은 크게 두 갈래 였다. 첫째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열심 히 학문을 닦고 자기 수양을 마친 뒤 세 상을 경륜하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조선 선비들은 과거를 보고 벼슬살이를 하면 서 이 길을 걸었다. 하지만 일생을 초야에 묻혀 학문과 교육에만 매진했던 선비들도 적지 않았다. 16세기 영남 유학의 거두였

던 남명 조식(南冥 曺植, 1501~1572)이 그

남명의 학문과 지조는 조정에서도 인정하 는 바였다. 그렇지만 그는 유학적 이론에 만 매몰되지 않고 실천을 중시했다. 그래 서인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구국의 선봉에 섰던 사람 중엔 곽재우.정 인홍.김면 등 남명의 제자들이 유독 많았 다. 남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 람이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1501년생, 신유 년(辛酉年) 닭띠 동갑이었다. 낙동강을 경 계로, 지금의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좌 도에는 퇴계가, 진주.합천을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에는 남명이 영남유학의 양대 봉 우리를 이루며 선의의 경쟁을 했다. 둘의 관계에 대해 서울대 정옥자 명예교수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2002, 현암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

"점진적인 개혁의 씨앗을 뿌리며 신정치 세력인 사림의 입지를 다져 놓은 퇴계 이 황과, 강렬한 비판 의식으로 급진적인 사 회개혁을 주장한 재야사림의 영수 남명 조식. 그들의 성향은 달랐지만 지향점은 같았다. 자신의 안위나 영달보다 사회개혁 의지를 불태우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자신 의 학문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남명과 퇴계 두 사람을 단순 비교하면 퇴계의 명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그도 그 럴 것이 퇴계의 학맥은 후대에까지 이어 졌고 그가 세운 도산서원은 영남사림의 거점으로 오랫동안 조선 지배세력의 뿌리 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공통 점이 있었다. 남명이 평생 초야에 묻혀 처 사(處土)로 살았던 것 못지않게 퇴계 역시 혼탁한 벼슬자리보다는 교육과 학문 정진 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실제로 퇴계는 34세에 대과에 급제하고 정일품에 해당하는 우찬성까지 올랐지 만 50세 이후에는 낙향하여 연구와 저술 에 몰두했다. 물론 낙향 중에도 조정에서 는 끊임없이 퇴계에게 벼슬을 내려 출사 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사양하거나 사퇴 를 되풀이했다. 실제로 퇴계가 올린 사퇴 상소는 21년에 걸쳐 무려 53회나 되었다 고 하니 그가 얼마나 벼슬자리에 초연했 는지 짐작이 간다.

2017년 한국은 신년 벽두부터 대선 바 람이 거세다. 덩달아 큰뜻을 펼쳐보겠다 는 인사들도 우후죽순 얼굴을 내밀고 있 다. 때맞춰 엊그제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 사가 눈길을 끈다. 다음 대통령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도덕성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두 배나 많았다. 뒤늦은 학습효과라고나 할까. 과거 능

274호 | 2017년 2월

력과 이미지만 보고 대통령을 뽑았다가 연거푸 낭패를 보고 난 지금에야 상황 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사실 능력이란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언제 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도덕성은 평생 쌓아온 인품이고 인격이다. 자리가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딴사람이 되지 않 는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의 최 우선 덕목으로 진작 도덕성부터 살폈어야

대통령만 그럴까. 무슨 자리든 리더를 세 우려면 먼저 인품부터 살펴야 뒤탈이 없 다. 동양의 모든 사대부들이 치국평천하 (治國平天下)에 앞서 수신제가(修身齊家) 부터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 도 그래서였다. 2017년 닭띠 새해가 시작 됐다. 리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퇴계와 남명, 두 닭띠 선비들이 걸었던 군자의 처 신을 한번쯤 헤아려 보았으면 싶다.

〈미주중앙일보 OC 본부장〉

[영화]

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LA LA LAND

행렬로 영화가 시작된다. 그 행렬의 답답함 속에서 누군 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연이어 하나, 둘 그 노래에 Join 하고, 누군가는 춤을 춘다. 꽉 막힌 고속도로가 어느 덧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뮤지컬 무대로 변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정체가 풀리며 자동차들은

두 청춘 남녀의 이야기다. 미아(Mia)라는 이름의 여주인 공과 세바스찬(Sebastian) 이라는 이름의 남주인공, 두 남 녀의 불가능한 것 같은 꿈을 추구해 나가는 이야기다.

다시 가던 길을 계속한다. 이 오프닝이 어쩌면 영화의 모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 네바다를 떠 나 헐리우드에 와서 커피집 알바를 하며 도전해 보는 오디 션마다 낙방을 거듭하는 미아.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고, 재즈 생음악 카페를 갖는 게 꿈인 세바스찬. 그러나 생존 은 만만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거리라곤 레스토랑에 서 크리스마스 캐롤 건반을 눌러대 흥을 돋구는 알바 밖에 없다. 그 알바마저 감성에 젖어 클래식한 음악을 한 곡 연 주한 죄로 해고당하고 만다. 영화의 시작부분 하이웨이에 서 우연인 듯, 운명인 듯, 지나쳤던 이 두 사람이 각각 여 자의 길, 남자의 길을 돌아 결국은 만나게 된다. 서로의 꿈 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눈동자에 불꽃이 튀고 좌절을 이야 기하는 그들의 눈동자에 어둠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들 은 사랑에 빠져든다.

서로의 꿈에 공감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격려해주고, 인 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그런데 사랑이 밥

[독후감]

하이웨이에 꽉 막힌 채 오도가도 못하는 자동차의 끝없는 의반 타의반으로 밴드에 조인하고 각지를 떠돌며 연주하 는 삶을 살게 되고, 여자는 여전히 오디션에 떨어지고 커피 집 알바를 계속한다. 헐리우드 영화니까, 이들의 끝은 뻔한 거 아닌가? 천신만고끝에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고 'Happily thereafter..'를 외치며 서서히 fade-out 하는게 정 석이어야 하는데, 아니다. 영화는 그게 아닌거다.

> 참 잘 만든 영화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른 다. 그들의 노래가 가슴에 파고든다. 환상과 현실을 넘나 드는 장면장면이 가히 예술적이다. 최근의 Golden Globe Musical 부분에서 7개 상을 수상했다. 아카데미상도 무려 14개 분야에서 수상후보에 올랐다.

표를 사러 극장엘 갔는데, 다 팔리고 맨 앞줄 몇자리만 남 았다는 바람에 동네 소극장엘 가서 세 시간 후 짜리 표을 구했다. 그런데 이것도 극장 안에 들어서니, 좌석이 없다. 그래서 왼쪽 맨 끝자리에 비스듬히 앉아서 찌그러진 화면 을 보아야 했다.

우리 이민의 삶이 이런게 아니었나? 꿈을 가지고 미국엘 왔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삶은 꿈꿨던 것 보다 는 찌그러진 삶이 아니었을까? 영화의 주인공들이 우리의 자식 세대인데, 우리의 자식이라고 모든게 순풍에 돛단 듯 풀려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성공이 뭔가? 뚫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꽉 막혀버리는 고 속도로 같은 세상 아니던가?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는 상 상 속 판타지의 세상,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그 세상은 우 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일게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먹여주나? 이게 현실이다. 남자는 대학때 친구를 만나 자 '아, 그때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을 택했더라면..'이런 생각



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 누구의 시 'the road not taken...'처럼 말이다. 'La La Land', '랄랄라' 노래하는 세 상? 그런데 다시 보면 엘에이, 엘에이, Los Angeles는 천사 들의 세상, 누구나 꿈꾸는 세상인가? 영화는 그들의 이야 기고 우리의 이야기다. 그 세대의 이야기고 우리 세대의 이 야기다. 혼자 보는 것도 좋지만 장성한 자녀와 함께 보기를 강추한다. 김정현 (공대 68)

[단상]

나는 대학 졸업후 군대 갖다 와서 평소 하고 싶었던 식물 분류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임학과 이창복 (수목학) 교수님의 등짐을 지고 몇년 동안 전국을 따라 다 녔는데, 아마도 식물의 이름을 명명하는 데 사용하는 라틴어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수목학에서 맨처음 배우는 나무는, 우 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일본과 한반 도 전역에 걸처 널리 자생하는 수간이 붉 은, 소나무 (赤松) 인데, Pinus densiflora Siebold et Zuccarini 라고 한다. 분류학 의 창시자인 Sweden 의 Carl von Linnaeus (Species plantarum, 1753)의 제 자들인 Siebold와 Zuccarini가 일본에 왔을 때, 명명하고 국제 학회에 발표한 Scientific name이다. 이때에 이들이 소 나무를 정의하기 위하여 Reference로 사 용한 소나무 표본은 Type specimen 이 라 하여 일본 동경대의 식물 표본실에 보 관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소나무와 더불어 생활해 왔지만, 철학적으로 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나무의 이름과 관련해서 큰 혼동을 하며 사용하고 있음 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 는 소나무란 엄밀히 말해서 이 현실 세 계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개념일 뿐이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애국 가에도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이 허구적 소나무의 Definition을 우리 가 살고 있는 이 실재적, 현상의 세계 속 에서 구현하는 또는 Incarnate하는, 하나 의 Instance 또는 Occurrence 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실체가 없는 logical 소나무이고 후자는 실체를 가진 physical 소나무이다.

그런데, 이 구분은 바로 IT의 JAVA programming에서 말하는 "Class" 와 "Objects" 의 구분이고 Relational Database 에서 말하는 "One to Many"의

無와有

Cardinality 관계이다. IT 전문가들은 어 떤 앱 (Application)을 만들때, 이 Class 에서 Objects을 만드는 작업부터 우선 시 작하는데, 흔히들 Logical한 Class에 육 체를 입힌다고 말한다. 영어에서 Classification이란 현실 세계의 Objects 또 는 Data를 어떤 목적과 기준에 따라 Sort out 해서 체계적으로 이 허구의 Class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소나무 이름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느 냐 하면, 이 허구적 소나무와 실재적 소나 무의 구분이 바로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 루는 Platon의 Idea 철학을 아주 간결하 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의 사유 체제 는 이 Platon 철학 속에서 형성되어 오랫 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세상 만사를 이런 식으로만 재단하려 하지, 다른 세상 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전, 나의 프랑스 유학시절 은사이

셨던 Michel Godron 교수 (생태학,은퇴, 프랑스 빠리 대학교)로부터 연락이 왔다. 도덕경 첫 장에 나오는 아래의 귀절들에 서, 無名과 有名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 야 하느냐고. 서구 언어에 익숙한 나에게, Ideogram인 중국어는 참으로 황당하기 도 하고, 또 한편 그 Invocation power 가 신통하기도 하다. 한마디 툭 던지는 Style 이니, 결국엔 이것 저것 살펴 깊게 상상하는 자의 편이다.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첫 두 글자를 한 단어로 해서 無名 또 는 有名으로 읽지 마시고, 떼어서서, 無나 有 한 글자만을 주어로, 名은 동사로, 나 머지는 목적어 또는 보어로 읽으십시요 (2014,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 덕경). 그러니까, 無, 名 天地之始 그리고 有,名 萬物之母로 읽으시라고 말씀 드렸 다. 그럼, 天地之始 나 萬物之母는 대강 짐작이 가는데, 無와 有는 무었인가? 당 연히 나에게는 "無"는 눈에 보이지 않는 logical 한 Idea의 세계 이고, "有"는 감각 적, 현상의 세계, 즉 실재적 physical한 세계를 뜻한다. IT worker가 Class(無)에 서 Objects(有)를 자유자재로 만들어 내 고, 길거리의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 틀 (無)에서 붕어빵(有)을 구어내 듯.

그런데 최진석 교수는 Platon은 Platon, 노자는 노자. Platon 철학의 Frame 속에 노자 철학을 꾸겨 넣어서 생각하지 말라 고 하신다. 그의 말이 이어진다. 저는 노 자의 "無"와 "有"를 존재적 위상에 차등 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無"에 서 "有"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플 라톤적으로 본다면, "無"가 "有"의 존재 근거 혹은 발생 근원으로 이해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노자에서는 "無"가 "有" 에 기대어 있듯이 "有"도 "無"에 기대어 있습니다. 상호 의존하며 기대어서 만물 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즉 有無相生이 노

자 철학의 기본 구도입니다. 물론 매우 다 르지만... 억지로 플라톤의 철학과 유비시 킨다면...."無"와 "有"가 상호 의존해 있 는 형식 자체가 "이데아"에 해당하고 만 물이 "Phenomenon"에 해당할 것입니 다. 이것은 물론 구조를 견강부회(牽强附 會) 식으로 유비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 는 것입니다.

Godron 교수로 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성경의 요한복음(Evangile selon Jean) 첫 몇 줄을 읽어 보라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Au commencement était la Parole) ...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 났고 (Toutes choses furent faites par elle)...'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Parole(말씀) 이란, 희랍어의 Logos가 그렇게 번역된 것이라 한다. Logos에는 Logic이란 뜻 이 있고. 그렇다면 Logos란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 추상적 세계, 즉 Platon의 Idea 의 세계를 뜻하는 것은 아닐가? 노 자 철학으로 말해서 有無相生은 어떨까?

나는 아직도 노자의 이 有無相生이란 가르침에서 有 와 無 를 어떻게 서구 언 어로 옮겨야 할 지 모르겠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악세레터와 부레키의 관계 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둘이 서로 의 존해야 자동차가 가니까... 관계론적 철학

오늘은 동네 중국집에 가서 빽알 한 잔 혀끝에 적시며, 웨이터 붙잡고 중국어 회 화 연습이나 하자. 니더 차이, 쩐 하우 츠. 자이 찌엔 (너의 집 음식, 진짜 맛 있다. 또 올께).

이창복 교수님이 새삼 생각난다. 그리 고 도움 말을 주신 Michel Godron 교수 님과 서강 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교수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바쁜 일 제쳐 두 시고, 나처럼 은퇴하고 별 볼 일 없는 사 람과 말대꾸하시며 진을 빼기가 쉬웁지 않으실 터인데 ...

李炳宏 (이병굉, 농대 62)



민경훈 (법대 58)

'라 만차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 는 이 책이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 드에서 남동쪽으로 100 마일 정도 의 하나는 이 책이 풍차와 양떼의 에피소드에서 보듯 어린

떨어진 지역이다. '스페인에서 가장

평범한 곳'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상, 존재와 당위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평범한 이곳을 세계적으로 유명하 게 한 것은 실제로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소설 속에 존재하는 가공의 인물이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의 주인공 라 만차의 기사 돈키호테가 그 사람이다.

아랍어로 '광야'를 뜻하는 이 지역은 스페인에서 가장 넒 은 평야가 있는 곳으로 지금도 수많은 양떼와 풍차를 볼 수 하고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돌격하는 에피소드가 제일 먼 다" 등등. 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경 다음으로 널리 번역되고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세계 주요 문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에서 '가장 위대한 책' 1위로 뽑힌 '돈키호테'는 마크 트웨인이 말한 고전의 정의 인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읽지는 않는 책" 에 딱 들어맞는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글 완역본으로 1,500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만 해도 방대한 데다 비슷한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되 고 어떤 경우에는 앞뒤가 잘 맞지 않아 세르반테스 자신 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착각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한 평론가는 이 책을 집에 찾아온 반갑지 않은 늙은 친 척에 비유하면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지저분한 친 구들까지 불러 들여 한 얘기를 또 하며 사람을 지치게 한다 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문인들의 이 책에 대한 평가는 확고하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보다 힘 있고 심오한 작 품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 움'으로 유명한 밀란 쿤데라는 "모든 소설가는 세르반테스 의 자식"이라고 주장했다.

어째서 얼핏 보면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지루하기 짝이 없 리지 말고 다시 모험을 떠날 것을 호소한다.

20 FO 1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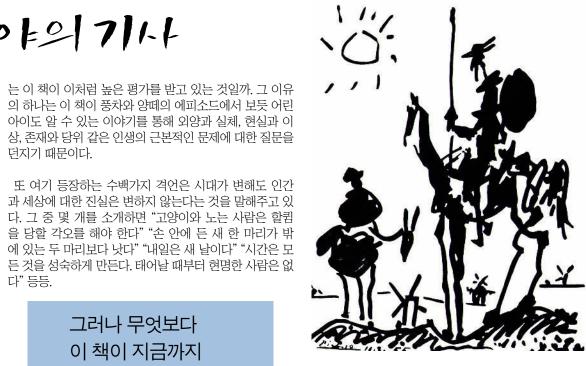
던지기 때문이다.

또 여기 등장하는 수백가지 격언은 시대가 변해도 인간 과 세상에 대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 다. 그 중 몇 개를 소개하면 "고양이와 노는 사람은 할큄 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가 밖 에 있는 두 마리보다 낫다" "내일은 새 날이다" "시간은 모 있다. 소설 속에서 돈키호테가 양떼를 군대로 오인해 공격 든 것을 성숙하게 만든다. 태어날 때부터 현명한 사람은 없

>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이 지금까지 읽히는 큰 이유는 무엇이 진정 값 있는 삶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돈키호테의 하인인 산초 판자는 원래 먹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가 편력 기사인 돈키호테와 함 께 길을 떠난 것도 한 고을의 영주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 이며 '판자'라는 이름 자체도 '밥통'이란 뜻이다.

그러던 그가 돈키호테와 수많은 모험을 함께 하며 세상은 밥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돈키호테는 나중에 자기가 환상에 사로잡혀 헛고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한 속에 숨을 거두지만 산초는 오히려 돈키호테에게 높은 뜻을 버



산초가 한 섬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에피소드에서 돈키호 테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정의와 자비를 들며 둘 다 신의 속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비야말로 인간에 더 부 합하는 덕목이라고 가르친다. 기사의 존재 이유는 약자를 돕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집을 나선 돈키 호테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환멸 속에 생을 마감하는 것은 이 작업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말해준다.

가진 인간은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꿈을 포 기한다는 것은 미친 일이다. 어쩌면 너무 제정신인 것이야 말로 미친 것인지 모른다. 가장 미친 것은 세상을 마땅히 그래야 할 곳으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라고 세르반테스는 말한다.

지난 4월 23일은 세르반테스가 죽은 지 400년이 되 는 날이었다. 유네스코는 셰익스피어 기일과 같은 날짜 인 이 날을 '세계 책의 날'로 정해 기리고 있다. 그의 명 복을 빈다. 〈논설위원〉

돈키호테가 미친 인간으로 나온 것은 아마도 제 정신을

통'을 오가는 사랑에 빠진다해도 말이다.

그래도 사랑은 추억이라도 남지. 사회

에서나 정치판에서 애써 믿고 밀어주었

더니 정작 볼 일 다 본 후에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나몰라라 하는 뻔뻔한 자

들의 '허울좋은 추한 꼴'에 입은 배신감

은 어찌 할건가? 이리저리 차여 누군가

의 노래처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상심 속에서 교회라도 찾고 싶지만 신앙

이란 허울아래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

활 따로 삼위일체가 아닌 삼위분리에 설

그러나 이런 포장지와 속내용이 다른 일

들이 모두 어둡지만

은 않아 그래도 살

맛은 있다. 우리 삶

을 맛나게 하기도

하고 한결 멋들어지

게 하는 면이 더 많

기 때문이다. '부르

지 못하는 노래를

부른다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듣는 척하고 있다네'

라고 노래하는 '침묵

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가 암울

곳마저 잃는다.

'바보들의 배

1490년 경 네덜란 드의 화가 히에로니

무스 보슈(Hieronymus Bosch, 1450년 경-1516, 일명 Jerome van Aken)는 '바 보들의 배'(Ship of Fools)란 유화를 나 무판 위에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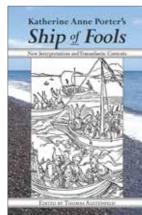
이 화가의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 진 것이 없다. 생년월일도 모르며 성격 이나 사상, 미술에 대한 의견 등을 엿 볼 수 있는 편지나 일기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다. 알려진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의 조 상이 독일의 아켄 지역에서 왔으며 현재 네덜란드 남부에 위치한 브라반트 공국 에 속한 세르토여보스란 도시에서 태어 나 거기서 일생 살았다. 집안에 화가가 많았고 그림 그리기는 아버지나 삼촌에 게 배운 것 같다. 아버지는 극 보수 종교 적인 '성모형제단'(The Brotherhood of Our Lady)의 단원이면서 미술 자문위원 이였는데 그런 연고로 해서 그는 1488년 성직자, 귀족, 지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생을 통해 종교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단체에 가입했다.

'바보들의 배'도 3연작화로 제작되었는 데 가운데 부분이 남아서 현재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바보' 들이란 물론 정신박약자들을 말한다. 그 런데 보슈가 그림을 그리던 초기 르네

상스 시절에는 정신병으로 인해 길거리 를 떠도는 환자들도 정신박약자들과 구 별하지 않고 모두 '바보'로 불렀다. 그들 을 격리할 시설도 없었고 치료하는 방법 도 몰랐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이란 이들을 배에 싣고 도시로 부터 떠나보내면 바다로 흘러가 배가 난 파될 때 이들이 몽땅 물에 빠져 몰살하 게 하는 것이었다.

보슈의 그림에는 12명의 '바보'들이 배 에 타고 있다. 배 꼭대기에는 나무 사이 에서 남자 가면이 무표정하게 아래를 내 려다보고 있다. 아마 죽음을 상징하는 듯. 상태가 약한 듯 보이는 배는 모든 악 덕을 품고 있던 당시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다. 배를 짓고 있는 노는 주방에서 쓰는 요리용 나무 숟가락인데 배가 포도 주 위를 흘러가면서 숟가락은 술을 퍼 담는 역할을 한다. 승객들 중에는 승려 와 수녀가 앉아 있는데 그들 옆에는 체 리 한 접시가 놓여있다. 체리는 지금 영 어에서도 처녀막을 의미하듯 육체적 탐 욕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식가는 돛대에 걸린 통 거위 구이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 며 여러 승객들은 술을 마시는데만 정신 이 빠져 있다. 배는 바람이 부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지만 배가 가는 방향에 관 심을 두는 승객은 하나도 없다.







'바보들의 배'는 실제로는 현실의 상징 이고 승객들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 음과 파멸을 도외시하고 사리에 집착하 면서 아우성거리며 서로 싸우는 현대인 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슈는 초 현실주의 미술의 효시라고 재평가하는

1962년 미국의 작가 캐서린 앤 포터 (Katherine Anne Porter, 1890-1980) 는 '바보들의 배'란 소설을 발표해서 주 목을 끌었다. 그녀는 20세기 중반 도로 시 파커와 함께 미국 여성작가로 쌍벽

의견도 있다.

1933년 멕시코의 베라 크루즈에서 출 발해 26일간의 항해 끝에 독일의 브레멘 하벤 항구에 도착하는 독일 선박회사 소 속의 낡은 여객선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묘사했다. 하등 선실에는 설탕 시장의 붕 괴로 인해 쿠바에서 실직해 고향으로 돌 아가는 스페인 출신 노동자 876 명이 가 축같이 실려 있다. 포터는 원래 단편작 가인데 이 소설이 유일한 장편이다. 그 녀는 1931년 배를 타고 독일까지 여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동승했던 승객 들의 모습과 행동을 스케치같이 관찰히 여 친구들에게 편지로 적어 보냈다. 후에 미국에 돌아왔을 때 편지들을 일일이 회 수하여 이 작품을 만든 것이다.

상층 선실에는 단편적으로 수십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모습을 엮 어 세태를 꼬집는 우화적인 소설로 만들 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등장인물들은 사 랑하고 싸우고 뻐기며 멸시하고 시기한 다. 그들이 도착할 독일은 금세 나치스의 통치에 들어가 암울한 미래가 유럽 대륙 에 덮힐지 전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소설은 1965년 같은 이름으로 영화 화되어 상당히 좋은 비평을 받았다. 흘 러간 명화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당시 가 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알려졌던 비비 언 리나 시몬느 시뇨레 같은 배우들의 연 기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급성 신(腎) 손상 시니어에 급증



급성 신 손상 발 생률이 계속 높아 지고 있는 가운 데 특히 65세 이 상 시니어에게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상은 신장 기능이

백선하(의대 81) 났다. 급성 신 손

갑작스럽게 상실되며 나타나는 증상으

로 소변량의 감소 부종 등과 더불어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입원 또는 수술 을 앞둔 65세 이상 노인 환자 533명을 대 상으로 노쇠상태에 따른 질환 발생 및 예 후를 예측하는 '노인 포괄 평가'를 실시해 급성 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급성 신 손상을 예측하는 임상 모델을 만들었다. 노인 포괄 평가에서 나타난 노쇠 점수에

따라 총 3개의 그룹을 나눠 각 그룹별 로 급성 신 손상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비교적 건강한 편에 속하는 그룹1에서 는 급성 신 손상 발생률이 4.3%로 나타 난 반면 그룹 2에서는 9.5% 그룹3에서 는 17.8%로 나타나 건강한 노인 환자 대 비 노쇠한 환자에서 급성 신 손상 발생 률이 무려 3.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 을 확인했다. 즉 노쇠 점수가 높을수록 기 저 질환에 상관없이 급성 신 손상의 발 생률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연구팀의 백선하 교수는 "이번 연구로 추 후 노인 입원 환자 진료 시 급성 신 손상 예



측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며 "노인 입원 환자에서 노쇠 평가 점수 가 높게 나왔을 시에는 그렇지 않은 환 자에 비해 급성 신 손상을 예방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하며 추적 관찰을 통해 급 성 신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이 비참할수록 비전을 가져라



그 어떤 드라마보 르면, 약 44년 뒤에는 인간이 보낸 무인우 다도 비극적인 사건 이 2017년 1월 한국 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럴 때 인류의 미래 대 후반쯤 되었을 때다.

를 꿈꾸는 것은 헛되거나 철없는 일로 생 각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이 이 렇게 황당하고 암담할 때일수록 필자는 미 래를 향해 눈을 돌리고 싶다.

사실, 2016년은 필자에게 두근거리는 꿈 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을 준 한 해였다. 작년 4월에는 영국의 우 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러시아의 부호 앞으로 5년 뒤다. 머스크는 낙관론자가 성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선택지가 있 도착한 남자,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미

주선이 알파 켄타우리에 도착해서 보내는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게 된다. 필자가 80

작년 9월에는 미국의 기업가 일론 머스 크(TESLR CEO)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 신의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에서 개발 중인 기술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인간을 화성 바깥을 탐험하려 하고 있다. 머스크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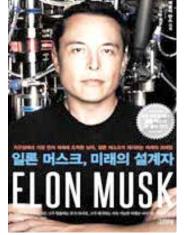
(富豪) 유리 밀너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 아니다. 처음 화성에 가는 우주인들이 지 다고. 그리고 자신은 후자의 선택지를 지 래의 프레임'이다. 현실이 암담하고 비참 구로부터 4.37광년 떨어진 항성 알파 켄타 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확 금 우리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에 현실적 우리로 1000개의 초소형 우주선을 일제히 물이 매우 높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첫 인 것으로 만들겠다고. 발사하는 계획이었다. 현존하는 최첨단 유 우주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결국 40년쯤 인우주선으로 알파 켄타우리에 가려면 3 뒤부터는 인간이 화성에 완전히 자리 잡을 만년이 걸린다. 하지만 호킹의 계획에 따 것이라고 예측했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의 부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미래에

대항해시대'는 유럽 바깥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때까지 세계 문명 의 변방이었던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 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유럽의 수많 은 청년이 미지의 바다에서 목숨을 바친 덕택. 그런 의미에서 대항해시대 이후 유 럽의 번영은 목숨 걸고 미지의 세계를 탐 험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항해시대를 연 서구 문명이, 이제 지구 한다. 지금 인류에게는 지구에서 멸종하거 나, 아니면 지구와 화성을 오가는, 여러 행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김영사)



할수록 이를 악물고 미래를 쳐다보려는 2017년 한국인들에게 이 책은 비전(vision)을 줄 것이다.

> 〈김시덕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교수, 조선일보〉

<삶의 여정>

가을이 앞에 서면 언제나. 바람에 헛날 리는 갈대숲과 코스모스의 향기로운 향 기와 함께 선선한 화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나간 시간과 그들 과 함께 한, 마음 속 깊이 새겨진 아련한 추억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274호 | 2017년 2월

10여년간 같은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는 후배 동문이 최근에 투병중이던 동반자 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언제나 만나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래 서 더 한층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후배 동문이 남긴, 그들만의 오랫동안 가졌던,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간직했던 애 환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담은 마지막 메 시지가 우리들 마음에 애절하고 잔잔한 흔적을 남기게 합니다.

오늘 이순간 살아계시는 단란한 부부들

에게, 바로 지금 이순간, 그의 심정을 함 께 공유하고 싶어서, 동반자를 보내는 그 의 마지막 글을 기고합니다. 인생의 마 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는 바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한점의 구름인 것을

'老覺人生 萬事非라'

또한 푸쉬킨의 글귀가 생각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뎌야만 하지 않겠는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수 지인수 (상대 59)/전 편집위원장

추모의

사랑하는 당신에게,

편지를 안 쓰던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편지를 쓰다니 조금은 쑥스럽소. 생명선이 길어서 나보다 훨씬 오래 살 거라고 늘 장담하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당신 보다 먼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당신이 먼저 가고 당신 에 대한 연도를 내가 바치게 되다니.

암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또 재발하고, 수차례의 Chemo를 받으면서 당신이 받은 심적, 육체적 고통은 말할 수 없었지만, 당신의 그 강인함으로 견뎌내며, 항상 밝게 나 를, 또 주위의 모든 사람을 배려해 준 당신이 정말 고마웠소. 결국 말기에 이르러 가 차없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공격에 약한 몸이 견디지 못해 쓰러졌으니 오랜 당 신의 눈물겨운 투쟁이었소.

결혼 전 덕수궁 연못가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던 당신. 당신은 기억 하오? 연초록 원피스의 청초한 당신의 아리따운 모습이 언제나 잊혀지지 않고 가슴 에 남아 있다오. 매주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간단히 먹고 마시며 잠시 쉬어가던 우리들만이 앉을 수 있었던 벤치,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던 산타모니카 피어 의 계단등, 많은 추억의 장소들. 그리고 당신과 나누던 대화들. 그 많은 추억들을 어 떻게 일일이 열거할 수 있겠소? 날이 어두워지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당신 없는 세상 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지 나도 모르겠소. 나와 당신은 하나였소. 그 절반을 잃 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살아서 내 가슴에 함께 있을 것 을 믿기에 위로가 된다오.

마지막 병상에서 고통받던 당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듯 아프고 당신을 살 려내지 못한 내가 당신에게 너무 너무 미안해 죽을 지경이오. 당신과 병실에서 함께 지냈던 지난 날들을 남들은 고생한다고 했지만 나는 행복이었소, 이 세상에서 제일 편 한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좋았소. 그리고 축복이었소. 당신의 고통받 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그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깊어가는 신앙에 감사한 적 이 한두번이 아니오. 당신의 고통으로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 어서 감사했소.

당신이 살아있을 때 한번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당신은 나의 수호천사였소. 하느님 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수호천사도 함께 창조하신다 하였소. 그리고 남자 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수호천사가 된다고.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고, 잘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수호천사인들 당신만큼 더 잘 해줄 수가 있 겠소? 그래서 나는 항상 당신을 나의 살아있는 수호천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소. 하 늘나라 가서도 나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오.

이제 지상에서 당신이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과 헤어질 시간이요. 사랑하는 가족들. 당신 딸 Dana 가족 Yop, Eli, Noelle, 그리고 당신 아들 Michael 가족 Jaclyn, Chloe. 얼마나 사랑하던 가족들이요? 이들을 떠나는 당신의 마음이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 만 하느님께서 불러가시니 어쩔 수가 없구려.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어찌 이 가 족들 뿐이겠소? 오빠, 동생 가족들, 나의 가족들.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매주 즐거 운 대화와 식사를 하며 기뻐하던 성당 친구분들, 기도하며 도움을 주던 나의 친구들, 당신 친구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답도 못해 드리고 떠나가니 아쉽소. 이 모든 분들 위해 천국에서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보내주어요.

하고 싶은 말은 끝이 없지만 두고 두고 하기로 해요. 사랑하오.

모순어법으로 가득 찬 사회



서울대미주동창회보

김학천 (치대 70)

당원 같지만 실제 속 은 하얀 반동이라서 그렇단다. 지어낸 얘기이겠지만 겉과 속

이 다른 것을 말한다 해서 고위간부들이 반동으로 숙청될 때 나오는 말도 '구밀복 검' 아닌가? 입으론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 칼을 품고 있다는거다.

기에 붉은빛이 공산

'진짜거짓(true false)'처럼 상반된 말 을 조합해 표현하는 것 을 '모순어법(Oxymoron)'이라고 한다. 이 런 이중적 양립은 우리 의 삶 속에 많다. 현대 인은 복잡다단해지고 바쁜 사회 속에서 사람 은 더 많아지는데도 오 히려 '군중속의 고독'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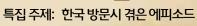
그러고 보니 요새 한국사회에서 혼자 했던 시절, 젊은이들에게 고통과 울분을 터트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숨통이었 밥먹는 '혼밥'이 유행하고 혼자 술마시는 던 것처럼. 또한 청마 유치환이 시 '깃발 '혼술'이 낭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 해가 간다. 그렇다고 이것이 영국역사가 에서 외쳤던 '소리없는 아우성'이 이상향 을 찾아 그리워했던 우리의 목마름을 알 에드워드 기본 말대로 '홀로 있을 때가 가 장 외롭지 않기' 때문만은 아닐게다. 사생 아 주었던 것처럼. 활을 우선시 하면서도 '공공연한 비밀'이 다른 이들에게는 즐거운 가십거리가 되 다보니 아예 혼자가 눈치볼 것 없이 편안

그럼에도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 과 함께라면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 러다가 설령 '괴로운 기쁨'과 '즐거운 고

하다는 의식의 확산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렇듯 모순어법은 대립의 역설로 우리 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 지쳐가는 마음에 힘찬 용기와 밝은 희망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 몸은 비록 작아도 뜻만은 크게 갖 는 '작은거인'을 꿈꾸어 보는게 어떨는지. 이제 새해를 맞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을 치게 끝내주는(damn good)' 올 한 해를 만들어 가보자.

생활 속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중한 이야기를



3월호 특집 주제는 '한국 방문시 겪 은 에피소드'입니다. 오랜만에 방문 한 한국에서 겪은 예상치 못했던 황당 한 경험을 100 단어 정도로 들려주세 요. 1월의 특집 주제 '오늘의 나를 있 게 한 한마디의 말, 한줄의 글, 한권의 잭 과 2월의 수세인 '미국에 와서 배 운 교훈'도 계속 모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바람 직한 미래를 제시하는 500 단어 정도의 논설글도 보내주십시오.

술, 영화, 연극, 철학, 역사, 문학, 수필, 시, 독후감등, 다양한 분야로 독자들에 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500 단

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질)을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도 필요합니다.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 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 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 은 general@snuaa.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쇄소 윤전기를 돌릴 직원들이 독감 으로 며칠을 쉬는 바람에 2월호도 배달 이 한 주일가량 늦어졌습니다. 죄송하 이 외에도 일반 원고 ㆍ 시론, 음악, 미 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성원을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영화]

The Godfather

Part III를 탄생시켰습니다.

James Cann 그리고 Robert Duvall이

Best Supporting Actor, Francis Coppola

가 Best Director상을 수상했으며 1974

년에 Godfather Part II 그리고 1980년에

지금까지 나온 미국 영화 중에서 두번째

로 잘 만든 영화 (첫째는 Citizen Cane)로

1990년 US National Film Registry에 영

구 보전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효동 (공대 58)

Francis Ford Coppula가 감독한 Mario Puzo의 소설 "The

Godfather"로 1945년에서 1955년에 걸 친 'Vito Corleone' Mafia Family의 이야 기이며 그 세째 아들 'Michael Corleone 로 가족세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무자비한 Mafia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부득이한 살생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내용은 대부 분 사람들이 보아서 알겠기에 생략하고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를 저의 주관적인 관점 에서 논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영화 시작부터 흘러 나오는 Nino Rota의 Godfather Theme 음악에 매 료되어 저의 I-Phone Ringtone도 'Godfather Waltz'로 바꾸었고 지난 제 7순 생 일의 Theme도 Godfather였습니다 (사 진). 이 영화는 Oscar에서 Best Picture, Best Actor(Maron Brando) 그리고 Best Screenplay상을 수상했으며 Al Pacino,

지금까지의 Mafia 영화는 무법과 폭력을 일삼는 집단으로 묘사되어 왔지만 이 영 화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사회에 대응하 여 나아갈 Mafia Family의 미래상을 나타 냈다고 봅니다.

> 비록 Corleone Family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으로 묘사는 됐지만 힘없는 이 웃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으며 일반인에게 매춘, 마약 그리고 고 리대금등 공갈협박하는 Family로 묘사되 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Producer에게서 Job을 못 구하고 울고 있는 가수겸 배우 Johnny Fontane (일설에는 Frank Sinatra라는 Rumor가 있었음)에게 Godfather 인 Don Vito가 한 말, "You can act like a Man"은 특히 요즘와서 저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92세로 Trump연설을 마지 막으로 듣고 타계하신 인권운동가 Phyllis Schlafly가 남녀평등에 관해서 하신 말씀 "남자는 남성다운 것 여자는 여성스러운 것 이 남녀평등"이라는뜻을깊이새겨봅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겉으로는 경찰 Captain이면서 돈으로 매수당한 공직자 와 적대관계인 Mafia Clemenza를 조그마 한 Italian Restaurant 변소 Water Closet 뒤에 숨겨두었던 권총으로 모두 사살하고 떠나는 Michael Corleone의 모습에서 요 즘 특히 한국사회에서 만연하는 부정부패 가 언젠가는 말살되는 깨끗한 사회를 꿈 꾸어 봅니다.

으로 온갖 내용을 습득함으로 자기가 유

효하게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의 소화도 잘

한다. 자신의 교양이 늘어나고 고매한 인

격자가 되어 맡은 임무는 어떠한 난관이

가로 놓여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

는 신빙성도 남이 인정해준다. 성숙한 지

도자들이 공통으로 갖춘 특징이다. 동시

에 존경하는 분들이 쓴 책을 많이 읽는

이렇듯, 위대한 마음과의 대화에서 지

식의 지평선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노력

을 계속한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모

성애로 나눔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

원봉사도 서슴치 않는다. 남을 선도해줄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이 풍부한 인격자로

만인이 우러러 보고 기꺼이 따르는 훌륭

한 존재로 인생을 즐긴다. 평생 배운 지

능을 온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공헌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힘쓴다. 지성인으

로 보람있는 삶을 만끽하여 "한 평생 헛

되이 살지 않았다." 라는 자부심도 갖게

것도 성공에 이르는 첩경이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 말

를 나누고 배우도록 하라." 오래전 대학

워 학생시절 인디에나대학을 방문했을

때 만난 철학교수님이 내게 주신 조언이

다. 인생은 어디나 교실이며, 배움은 평생

의 과업이고 좋은 교훈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뛰어난 성격중

의 하나가 누구를 만나도 대화를 나누고,

주로 듣기를 위주로 하여 항상 새로운 지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는 우리들 주위에

늘 존재한다. 대학교수, 선생, 목사, 신부,

스님, 정치가, 문학인, 예술가, 음악가, 각

종 운동선수들, 부모, 선배, 친구 등등. 그

리고 요즈음은 IT의 눈부신 발달로 컴퓨

터, 스마트 폰은 아들과 딸, 손자 손녀에

게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어의 학습

을 위해서는 그나라 사람들과 직접 회화

하는 것이 상수이다. 말과 함께 문화와 상

식도 배우게 된다. 전 미국 대법원의 호움

즈 대법관이 "우리는 매일 한가지 이상씩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은 항상 활짝 열

새로운 것을 배운다." 라고 관찰하였다.

식을 터득했다는 점이다

"구름위에 있지 말고 땅에 내려와서 가르쳐라."



학위를 마치고 미

수인 켄드릭(Dr. John W. Kendrick) 박사님이 나에게 주 신 말씀이다. 미국의 생산성 (Productivity) 연구의 권위로 많은 저서를 펴냈 으며, 명강의로도 유명한 분이다. 지난 43년간 가르치면서 이토록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귀중한 당부가 어디 있으랴.

흔히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시작하면 목에 힘을 주어 "내로라" 하는 태도와 어 투, 학생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고 어려 운 전문용어와, 딱딱한 내용이 되기 쉽다 는 충고이다. "구름 위에서" 가르치기 때 문에 학생들과의 거리가 생기고 물과 기 름처럼 융합이 되기 힘들다. 지루한 시간 의 연속이다. 강의와 함께 설교도 마찬가 지. 어느 시골에서 교회에 다녀온 신자에 게 설교내용을 물었더니 "오늘은 서울에 서 온 젊은 목사님이 노상 '젖꼭지, 소꼭 지'라고 되풀이해서 도무지 설교를 알아 듣지 못했다." 라는 대답. 아마 "적극적, 소극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겠지. 젊은 목사도 구름 위에서 설교해 시골 교인들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 말

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재직 중 미국, 한국, 일본에서 겪은 나 의 경험과 관찰을 추가한다면 대학강의 는 권위주의형, 교과서 낭독형, 총장/학 장/학과장 비난형, 잡담형, 정견발표형, 연구논문 자랑형, 그리고 명강의형, 창의 와 격려형 등으로 분류해본 적이 있다. 따라서 명강의형이 되자면 "땅에 내려와 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쉬운 용어 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유머가 가미된 내 용이면 더욱 바람직하다. 그들의 눈을 바 라보면서!

충실히 준비한 강의는 시간가는 줄도 모를만큼 문맥과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학생들도 집중해서 수강한다. 온 정성을 다하여 침착하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인내도 필요하다. 명강의로 이름난 교수 님들은 다음 강의시간이 기다려진다. 공 적으로 사적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새학기 등록시에는 언제나 정원을 초과 한다.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친근미가 풍부해진다고 단언한다.

"언제나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와 대화

The English novelist Aldous Huxley

was born in 1894 and passed away

in 1963. He wrote many novels like

'Brave New World', 'The Genius and

려있다. 누구를 만나도 친근해지며,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존중하고 다양한 질문

says, short stories, biography, poetry,

상기 지도교수님과 철학교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

마련이다.

be sure of changing is oneself.' These words have been my lifelong guideline and mentor to sustain my every day life in this contemporary world. 박취서(약대60)

And he said in one of his books 'I wanted to change the world. But I the Goddess', 'Heaven and Hell', es- have found that the only thing one can

로,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할 수 없음이 회 잘못을 지적하고 기울어지는 균형의 추 는 정직한 사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오리 속에서 을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성명서를 지금 탄핵을 반대하자거나 찬성하자거 서울대 동문들이 우수한 머리를 짜낼 때 양측의 소리들이 들려온다. 미주동창회 동창회의 이름으로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이 삼권분립의 이다. 그 우수한 머리로 조국을 이 모양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을 이루기 위해 이 꼴로 만든 주인공들이 같은 동문들이

관세음(觀世音)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편집장 김정현



274호 | 2017년 2월

EXIF: Sony ILCE-7R F11 ISO100 1/3Sec -0.3EV 24mm Aperture Priority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역사]

일주일이 기일 된 유래



최용완 (공대 57)

일찍 '7' 숫자를 표 현함은 한반도의 신석기시대에 고 인돌의 평바위에 북두칠성의 일곱 별자리를 구멍 내 어 새겼던 때로 여 겨진다. 고인돌 문

인류역사에 가장

화는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에 나타났 으며 청동 칼과 도구가 고인돌에서 처음 나타났기에 동아세아의 금속문화가 세계 에서 가장 일찍 발달하여 현대 인류의 생 활혁명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 기에 이른다.

석기시대 문화가 고구려 문화로 상속되 어 고인돌은 적석총(Pyramid)으로 발달 하여 이집트 문화보다 2천년을 앞선 홍 산문화를 이룬다. 만주 지린성 일대의 적 석총과 고구려 고분에 남겨진 음양오행 의 사상은 동아세아의 종교이며 과학이 었다. 고구려 고분 안에 천정에는 해와 달을 그리고 시신을 중앙에 안치하고 동 쪽에 파란 색 용을, 남쪽에 붉은 색 새를, 서쪽에 하얀 색 나무를, 북쪽에 검은 색 뱀과 거북을, 그리고 중앙에 시신은 노 란 색 옷을 입혀 살아서 경험하는 자연 환경을 무덤 안에 영생의 분위기로 만들 어 놓았다.

해와 달은 음과 양을 상징하고 동쪽에 물, 남쪽에 불, 서쪽에 나무, 북쪽에 금속, 중앙에는 흙으로 오행을 상징하여 음양 오행은 7개의 요소를 이루어 우리 문화 에 '7'의 숫자는 성스러운 숫자가 되었다. 음력 7월 7일에 소를 몰아 받을 가는 총 각 견우성과 배틀 돌려 옷감 짜는 처녀 직녀성이 은하수에서 만나는 전설을 비 롯하여 동아세아에는 음력 매달 3번, 일 곱 날마다 장날이 서고 모여서 생활에 필 요한 것들을 교환하는 생활 풍습이 이루 어져 왔다.

우리나라 환단고기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해와 달 사이에 일렬을 이루 었다는 기록이 있다. 천문학자들은 그때 가 기원전 1733년경으로 계산하였다. 우 리 선조는 그때 이미 태양계의 다섯 별들 을 관찰하고 불 물 나무 금속 흙의 이름 으로 명명하였다. 동아세아의 음과 양 오 행으로 합하여 만들어진 7숫자는 동인도 간지스강의 불교로 전해지고 불교는 서 남아세아의 기독교로 전해져서 성경에 7 숫자가 4백여 번 이상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 제왕은 기원 후 325년에 스스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7 일주기 사바스 신봉제도를 선포하여 그 때부터 일주일이 7일로 정해졌다. 일주 일에 Sunday는 해의 날, Monday는 달 의 날, Tuesday는 불의 날, Wednesday 는 물의 날, Thursday는 나무의 날, Friday는 금속의 날, Sat-

urdav는 흙의 날이 됨 대 해 달 불 물 나무 금 속 흙을 상징하는 신들 의 이름이었다.

진시황제가 기원전 216년에 제국을 세우 고 세계역사에 처음 황 제로 등극한 다음 500 년이 지나서 지중해에 로마제국이 나타난다. 이미 동아세아에서 전

해오는 문물은 해로와 육로의 비단길 따 라 물밀 듯 흘러 들어오는 시대였다. 로 마가 세워진지 100년이 지나서 AD 430 년에 동아세아에서 노새(말과 당나귀의 합종)를 타고 달려와 지중해까지 찾아온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를 정복하기도 했 다. 동아세아의 음양오행의 다섯 요소가 로마 언어에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여 일 주일의 이름으로 불려젔음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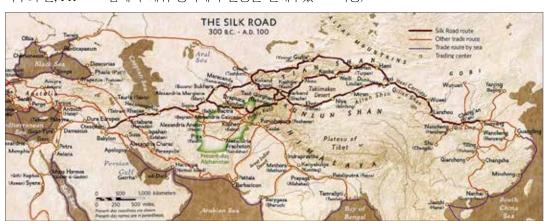
중국과 인도 양국의 불교기록에 그리스 의 도시국가 왕들이 아세아의 불교사찰 을 찾아와서 승려가 되어 수련하고 돌아 갔다는 기록을 보면서도 유럽의 역사책 에는 발표되지 않는다. 혈연학자들이 연 구하여 2008년에 발표한 세계 인류혈연 지도에 관해서도 동아세아인의 선진성이 명백하여 다시 거론하려 하지 않는다. 백 인 우월주의 세계역사만 고집하고 세계 사 안에 동아세아의 우월한 위치를 인정 하려 하지 않는다.

동아세아의 칭기스칸이 중세기 유럽을 잠에서 깨워 동아세아 문명을 전해주었

기에 12세기 이후부터 유럽은 부흥하였 다. 18세기와 19세기에 아세아인의 영토 를 빼앗고 현지인들을 몰아내고 유럽의 백인 국가를 세우거나 식민지로 다스려 오늘의 세계지도를 만들고 오늘의 세계 역사를 가르쳐왔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동아세아의 지금 세대는 진실을 밝히기 를 주저하고 우리역사를 다시 찾기를 주 저함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진은 동아세아 문명이 열어놓은 비 단길 지도와 금속무기로 무장한 훈족 기



편 집 후 기

칙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탄핵 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가 탄핵을 반대하는 성명서라도 하나 내 그리고 한국은 삼권분립의 국가이다.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아하지 않겠느냐? 라든가, 헌법재판소의 핵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협력하고 핵정부가 잘못했다고 입법부가 경고의 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날들이다.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들이 무성하 서로 견제하며 균형있는 민주주의를 실 휘파람을 불었다. 이제 사법부가 태도를 세상의 소리를 눈으로 보고 고민해 보는 다. 편집위원회로 이메일들이 들어온다. 천해 나가는 나라이다. 그 중 어느 한쪽 밝힐 차례이다.

미주동창회는 '501-C3 비영리법인'으 이 잘못하는 것 같으면, 다른 두 쪽이 그 분열을 도모하기 보다 부정과 부패가 없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1	월 말까지 회비	납부 765명 / 총	흥회원 7019명		Tax Exe	mpt - Federal T	IN: 13-3859506
동창회비:	박종수(수의 58)	이해영(공대 56)	안병협(공대 58)	박순영(법대 56)	조규웅(의대 59)	황효숙(사대 65)	최대한(의대 53)	서휘열(의대 55)	정인태(의대 58)
	박종식(의대 46)	이호진(보건 74)	안호삼(문리 58)	박승화(간호 69)	조아미(음대 61)		최병두(의대 52)	석균범(문리 61)	정일화(상대 55)
남가주	박찬호(농대 63) 박창규(약대 59)	이희충(공대 68)	오명주(간호 77)	박영태(상대 63)	조정현(수의 58) 조종수(공대 64)	샌디에고	최혜숙(의대 53)	송병준(약대 68) 신구용(공대 59)	주중광(약대 60) 최우백(공대 76)
S.CA/NV 강경수(법대 58)	박취서(약대 60)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온기철(의대 65) 원미랑(미대 65)	박용해(상대 83) 박진우(상대 77)	소공구(공대 64) 주공로(공대 68)	SAN DIEGO 강영호(의대 57)	최희수(의대 67) 하계현(공대 64)	선구용(동대 59) 안선미(농대 65)	최주택(공대 76) 최종진(의대 63)
강동순(법대 59)	박태호(치대 66)	임문빈(상대 58)	윤진자(미대 60)	박현성(약대 60)	차국만(상대 56)	김계윤(의대 57)	한경진(상대 59)	안승건(문리 55)	한호(상대 62)
강정훈(미대 56)	박혜옥(간호 69)	임진환(치대 68)	이관모(공대 55)	방준재(의대 63)	최구진(약대 54)	김기준(공대 61)	한의일(공대 62)	안태민(공대 62)	
강중경(공대 48)	박희자(음대 68)	임창희(공대 73)	이문영(문리 61)	배명애(간호 47)	최수강(의대 71) 최영태(문리 67)	남장우(사대 56)	한재은(의대 59)	양광수(공대 73)	중부텍사스
강홍제(상대 53) 강희창(공대 57)	방명진(공대 73) 배병옥(음대 58)	임화식(치대 59) 장기창(공대 56)	이장우(문리 72) 이현숙(사대 62)	배상규(약대 61) 변건웅(공대 65)	최영대(군디 6 <i>1)</i> 최영혜(간호 64)	박우선(공대 57) 이문상(공대 62)	함성택(문리 55) 홍혜례(사대 72)	오광동(공대 52) 오인환(문리 63)	MID-TEXAS 김은영(가정 77)
고석규(치대 65)	백소진(문리 55)	장소현(미대 65)	이홍기(공대 62)	서경애(음대 67)	최한용(농대 58)	이영모(의대 55)	황치룡(문리 65)	원종민(약대 57)	이영재(상대 58)
고영순(음대 59)	백옥자(음대 71)	장정용(미대 64)	임정란(음대 76)	서병선(음대 65)	최형무(법대 69)	이영신(간호 77)		유덕영(공대 57)	
고용규(의대 69)	백혜란(미대 70) 변영근(수의 52)	장준(인문 85) 자자서(Obr) 66)	정규남(공대 52) 정지선(상대 58)	서상철(의대 50) 서정웅(약대 63)	한승순(간호 70) 한영수(의대 61)	임춘수(의대 57) 전원일(의대 77)	애리조나 ARIZONA	유영준(의대 70) 유홍열(자연 74)	필라델피아 PA/DE/CALL
고재천(공대 57) 공대용(공대 65)	서동영(사대 60)	장진성(약대 66) 전상옥(사대 52)	정시선(경대 56) 정진수(공대 56)	서종청(학대 63) 선종칠(의대 57)	한태진(의대 58)	전원철(의대 <i>[1]</i> 진성호(공대 64)	ANIZONA 유기석(문리 60)	유통철(자연 14) 윤경의(공대 57)	PA/DE/S _. NJ 강영배(수의 59)
곽웅길(문리 59)	서영석(문리 61)	정동구(공대 57)	최경선(농대 65)	성기로(약대 57)	함종금(간호 66)	진주디(문리)	지영환(의대 59)	이건형(수의 54)	강준철(사대 59)
권기상(경영 72)	서치원(공대 69)	정동주(가정 72)	홍병익(공대 68)	손갑수(약대 59)	허경열(의대 73)		진명규(공대 70)	이내원(사대 58)	고병은(문리 55)
권영재(의대) 권처균(공대 51)	선우원근(공 66) 성낙호(치대 63)	정연웅(상대 63) 정예현(상대 63)	황동하(의대 65) 황만익(사대 59)	손경택(농대 57) 손완배(농대 70)	허병렬(사범 42) 허선행(의대 64)	시카고 IL/IN/WI/MI	앨라스카	이문항(공대 46) 이선구(문리 65)	길정숙(가정 53) 김경희(가정 71)
김건진(문리 62)	성주경(상대 68)	정임현(문리 66)	954(14) 00)	송경희(사대 59)	허유선(가정 83)	강영국(수의 67)	ALASKA	이영묵(공대 59)	김국간(치대 64)
김경수(치대 58)	손기용(의대 55)	정재화(상대 59)	뉴욕	송병문(공대 62)	현영수(음대 61)	강화영(문리 50)	윤제중(농대 54)	이유세(사대 72)	김규화(상대 63)
김경숙(간호 68)	손선행(간호 69)	정재훈(공대 64)	NJ/NY/CT	송세엽(의대 54)	홍선경(의대 58)	고병철(법대 55)	하인환(공대 56)	이윤주(상대 63)	김영우(공대 55)
김광은(음대 56) 김규현(법대 53)	손영아(음대 85) 손학식(공대 61)	정철륭(의대 55) 정태무(사대 44)	강영선(공대 50) 강충무(사대 60)	송영순(사대 60) 송영우(사대 64)	홍성휘(공대 56) 홍정표(음대 67)	구행서(공대 69) 김갑조(간호 51)	오레곤	이재승(의대 55) 이종두(의대 57)	김운옥(간호 76) 김재술(약대 58)
김기태(의대 52)	신동국(수의 76)	정혜주(사네 44) 정현진(간호 68)	계동휘(치대 67)	송웅길(대학 69)	황문하(수의 76)	김갑중(의대 57)	포네 트 OR/ID	이준영(치대 74)	김정현(공대 68)
김기형(상대 75)	신상화(공대 58)	정형채(상대 69)	곽노섭(문리 49)	신규천(상대 73)		김규호(의대 58)	김상만(음대 46)	이호균(법대 60)	김주진(법대 54)
김동산(법대 59)	신영찬(의대 63) 시정시(사리 64)	정 황(공대 64) 제영혜(가정 71)	곽상준(약대 55) 과서서(고대 61)	신달수(공대 59) 사용나(노대 71)	뉴잉글랜드 MANDIANIAN	김성일(공대 68)	김상순(상대 67) 기여자(가호 56)	임종식(의대 91) 의참조(고대 55)	김진우(공대 62) 기천우(고대 70)
김동석(음대 64) 김동환(문리 61)	신정식(상대 64) 신정연(미대 61)	세영혜(가정 71) 조동준(의대 57)	곽선섭(공대 61) 권문웅(미대 61)	신응남(농대 71) 신의정(음대 55)	MA/RI/MH/ME/VT 고일석(보건 69)	김연화(음대 68) 김용주(공대 69)	김영자(간호 56) 신 JD(인문 58)	임창주(공대 55) 장윤희(사대 54)	김철우(공대 79) 김한중(공대 56)
김병연(공대 68)	심상은(상대 54)	조만연(상대 58)	권영국(상대 60)	안용희(사대 49)	김경석(공대 70)	김우신()	이은설(문리 53)	정계훈(문리 55)	김현영(수의 58)
김병완(공대 58)	안병일(의대 63)	조상하(치대 64)	금동용(문리 58)	안재현(상대 62)	김광수(자연 73)	김일훈(의대 51)	전병택(상대 65)	정세근(자연 82)	노은숙(약대 53)
김석두(농대 58) 김석홍(법대 59)	양승문(공대 65) 양운택(의대 58)	조재국(농대 67) 조재길(사대 61)	금영천(약대 72) 김경애(간호 54)	안태홍(상대 65) 양명자(사대 63)	김만옥(약대 56) 김문소(수의 61)	김재석(의대 61) 김정수(문리 69)	최동근(문리 50) 한국남(공대 57)	정원자(농대 62) 정평희(공대 71)	문대옥(의대 67) 민흥식(수의 60)
김선기(법대 59)	양창효(상대 54)	조정시(공대 60)	김광현(미대 57)	양문석(상대 54)	김선혁(약대 59)	김정주(문리 60)	한영준(사대 60)	조화유(문리 61)	박영한(약대 68)
김성복()	양태준(상대 56)	조충자(간호 61)	김광호(의대 66)	염극용(의대 54)	김인수(사대 55)	김정화(음대 56)		진금섭(약대 57)	배성호(의대 65)
김성옥(간호 81)	염동해(농대 74)	주정래(상대 65)	김기훈(상대 52)	우관혜(음대 63)	김정환(공대 52)	김현배(의대 66)	오하이오	차임경(가정 77) 최경수(문리 58)	서재진(공대 47)
김성환(의대 65) 김수영(사범 57)	오선웅(의대 63) 오송자(사대 59)	지인수(상대 59) 차종환(사대 54)	김동완() 김동진(약대 56)	우대식(문리 57) 우상영(상대 55)	박영철(농대 64) 박종건(의대 56)	김현주(문리 61) 김희주(의대 62)	OHIO 김동광(공대 62)	최규식(상대 64)	손재옥(가정 77) 송성균(공대 50)
김순길(법대 54)	오양숙(간호 60)	최경홍(공대 60)	김동환(약대 56)	유영호(의대 52)	박종승(의대 56)	노영일(의대 62)	김용헌(경영 87)	최정미(사범 55)	송영두(의대 56)
김순덕(간호 61)	우춘식(상대 61)	최덕순(간호 59)	김명승(상대 65)	유재섭(공대 65)	윤상래(수의 62)	문병훈(사대 47)	명인재(인문 75)	하윤정(미대 89)	신상재(수의 59)
김순자(치대 57) 김 영(수의 63)	위종민(공대 64) 유석홍(상대 61)	최복영(사대 56) 최영순(간호 69)	김명철(공대 60) 김문경(약대 61)	유정자(간호 63) 유택상(문리 58)	이강원(공대 66) 이금하(문리 69)	민영기(공대 65) 박용순(의대 53)	성흥환(수의 75) 송용재(의대 63)	한의생(수의 60) 한인섭(문리 55)	신성식(공대 56) 신의석(공대 53)
김영덕(법대 58)	유시영(물리 68)	최용완(공대 57)	김문철(공대 83)	육순재(의대 63)	이의인(공대 68)	박준환(의대 55)	안순자(문리 56)	한정민(농대 81)	심영석(공대 76)
김영희(사범 56)	유의영(문리 56)	최재윤(문리 54)	김병권(문리 63)	윤봉균(사대 54)	이희규(공대 69)	박창욱(공대 56)	이계석(의대 67)	홍영석(공대 58)	심완섭(의대 69)
김용재(의대 60) 김원경(약대 59)	유재환(상대 67) 유진형(상대)	최종권(문리 59) 최 철(의대)	김병숙(보건 64) 김봉련(사대 54)	윤신원(의대 50) 윤영섭(의대 57)	장용복(공대 58) 정선주(간호 68)	배영섭(의대 54) 서상헌(의대 65)	이명진(공대 61) 이수자(공대 62)	워싱턴 주	안세현(의대 62) 엄종열(미대 61)
김인종(농대 74)	육태식(의대 61)	하기환(공대 66)	김상만(법대 52)	윤인숙(간호 63)	정정욱(의대 60)	소진문(치대 58)	이영웅(의대 56)	WASHINGTON	오진석(치대 56)
김일영(의대 65)	윤경민(법대 55)	한귀희(미대 68)	김서유(상대 82)	윤정옥(약대 50)	정태영(문리 71)	송순영(문리 52)	장극기(의대 64)	고광선(공대 57)	유기병(문리 64)
김재종(치대 62) 김정애(간호 69)	윤석철(상대 60) 윤용길(공대 55)	한근배(공대 65) 한정헌(치대 55)	김석식(의대 58) 김석자(음대 61)	윤종숙(약대 66) 이강욱(공대 70)	조성호(공대 85) 주창준(의대 56)	송재현(의대 46) 신동화(문리 55)	최인갑(공대 57)	김교선(법대 54) 김영창(공대 64)	윤정나(음대 57) 이병인(수의 69)
김종태(상대 58)	윤태자(미대 62)	한종철(치대 62)	김성곤(문리 54)	이국진(사대 51)	최선희(문리 69)	신석균(문리 54)	워싱턴 DC	김재훈(공대 72)	이상봉(문리 65)
김종표(범대 58)	이건일(의대 62)	한홍택(공대 60)	김성현(약대 56)	이규호(공대 56)		안신훈(농대 61)	DC/MD/VA/WV	변종혜(법대 58)	이성숙(가정 74)
김준일(공대 62)	이 관(공대 55)	한효동(공대 58)	김세중(공대 50) 김수일(약대 62)	이능석(의대 57) 이대영(문리 64)	달라스 LA/DALLAS	안은식(문리 55) 오동환(의대 65)	강길종(약대 69) 강윤식()	윤재명(의대) 윤태근(상대 69)	이수경(자연 81) 이지영(문리 67)
김창무(음대 53) 김태윤(법대 53)	이광재(공대 59) 이규달(의대 62)	허영진(문리) 현기웅(문리 44)	김승호(공대 71)	이슈호(보건 69)	LA/DALLAS 박영규(사대 66)	유동완(수의 68)	강창욱(의대 55)	판대는(경대 09) 이길송(상대)	이지춘(미대 57)
김택수(의대 57)	이근웅(의대 61)	홍선례(음대 70)	김영애(사대 56)	이영숙(간호 56)	박준섭(약대 63)	이덕수(문리 58)	고무환(법대 57)	이순모(공대 56)	전무식(수의 61)
김홍묵(문리 66)	이기재(사대 52)	홍성선(약대 72)	김영철(의대 55)	이운순(의대 52)	유 황(농대 56)	이민우(의대 61)	공순옥(간호 66)	이원섭(농대 77)	전희근(의대 54)
김희자(간호 64) 김희재(사대 63)	이명선(상대 58) 이미정(의대 78)	홍수웅(의대 59) 홍순택(사대 59)	김예흠(의대 55) 김용술(상대 56)	이유성(사대 57) 이재원(법대 60)	윤귀현(공대 77) 이희덕(농대 67)	이상일(의대 54) 이성길(의대 65)	곽명수(문리) 권오근(상대 58)	이회백(의대 55) 하주홍(경영 77)	정덕준(상대 63) 정정수(의대 56)
김희창(공대 63)	이비성(의대 <i>18)</i> 이방기(농대 59)	으로립(시네 99)	김용연(문리 63)	이재전(립대 60) 이재진(의대 59)	어의력(공대 67) 전중희(공대 56)	이승자(사대 60)	권철수(의대 68)	하수동(경영 11) 홍영옥(음대 54)	정태광(공대 74)
나두섭(의대 66)	이범식(공대 61)	북가주	김우영(상대 60)	이정은(의대 58)	조진태(문리 57)	이승훈(공대 66)	김내도(공대 62)		정학량(약대 56)
나민주(음대 65)	이병준(상대 55)	SAN FRANCISCO	김유순(간호 64) 기옥소(사리 50)	이종석(상대 57)	탁혜숙(음대 67)	이시영(상대 46) 이연천(고리 60)	김동훈(법대 56) 기면자(버리 59)	유타	정홍택(상대 61) 조영호(유대 56)
나승욱(문리 59) 나정자(간호 70)	이서희(법대 70) 이성숙(공대 56)	강명식(의대 61) 강재호(상대 57)	김윤수(상대 50) 김윤희(상대 59)	이종환(법대 51) 이중춘(공대 56)	록키마운틴스	이영철(공대 60) 이용락(공대 48)	김명자(법대 52) 김병오(의대 63)	UTAH 박경화(사대 56)	조영호(음대 56) 주기목(수의 68)
노명호(공대 61)	이소희(의대 61)	공순화(사범 56)	김은섭(의대 53)	이진자(간호 60)	MT/CO/WY/NM	이윤모(농대 57)	김선기()	, 5-101 11 00/	지재원(사대 68)
문덕수(공대 73)	이영일(문리 53)	권오형(사대 61)	김정순(법대 53)	이충호(의대 63)	박혜란(공대 59)	이정일(농대 57)	김안정(문리 59)	조지아	지흥민(수의 61)
문병길(문리 61) 문인일(공대 51)	이원익(문리 73) 이원택(의대 65)	김명환(문리 67) 김병호(상대 57)	김정희(간호 69) 김종현(법대 57)	이태상(문리 55) 이태안(의대 61)	송요준(의대 64) 신경일(공대 58)	이태영(공대 62) 임근식(문리 56)	김영기(공대 73) 김용덕(의대 53)	GA/AL/MS 강창석(의대 73)	차호순(문리 60) 최정웅(공대 64)
민병돈(문리 58)	이장길(치대 63)	김상온(약대 59)	김창섭(공대 2?)	이한수(의대 55)	이경화(의대 56)	임병훈(의대 54)	김종호(약대 68)	김순옥(의대 54)	최종무(상대 63)
민수봉(상대 55)	이재권(법대 56)	김영춘(수의 64)	김창수(약대 64)	이희자(간호 70)	이석호(공대 66)	임이섭(미대 54)	김진수(의대 60)	김영서(상대 54)	최종문(공대 61)
박대균(수의 57) 박부강(사대 64)	이재룡(공대 71) 이재선(농대 58)	김윤범(의대 54) 김정복(사범 55)	김창화(미대 65) 김현중(공대 63)	임공세(의대 61) 임광록(간호 72)	표한승(치대 58)	임현재(의대 59) 장세곤(의대 57)	김진은(사대 55) 김 철(의대 62)	김용건(문리 48) 김융자(사대 60)	최현태(문리 62) 한융오(보건 69)
박성욱(상대 58)	이재신(공대 58) 이정근(사대 60)	김정촉(사람 55) 김정희(음대 56)	김연궁(공대 63) 김현희(간호 59)	임광목(간호 <i>12)</i> 임근풍(자연 81)	미네소타	장세존(의대 5 <i>1)</i> 장시경(약대 58)	김 철(의대 62) 김해식(공대 59)	김당사(사내 60) 김태형(의대 57)	안광오(모건 69) 한인섭(약대 63)
박영희(음대 66)	이정화(공대 52)	김현왕(공대 64)	김훈일(공대 60)	임재락(보건 68)	MINNESOTA	장윤일(공대 60)	나영은(가정 86)	백성식(약대 58)	현명억(공대 75)
박우성(상대 77)	이정희(음대 55)	남승채(공대 66)	라준국(공대 47)	임충섭(미대 60)	김권식(공대 61)	장재진(공대 80)	남춘일(사대 69)	서안희(간호 63)	프코리트
박원준(공대 53) 박은숙(미대 62)	이종도(공대 66) 이종묘(간호 69)	노문희(사대 59) 노상규(공대 59)	맹광호(문리 71) 문석면(의대 52)	장영자(간호 68) 장화자(간호 60)	김영남(사범 53) 김영화(문리 65)	장 홍(문리 61) 정승규(공대 60)	박영호(공대 64) 박은희(미대 68)	손종수(의대 56) 안승덕(상대 51)	플로리다 FLORIDA
박인수(농대 64)	이준호(상대 65)	민병곤(공대 65)	민발식(의대 60)	전병삼(약대 54)	남세현(공대 67)	조대현(공대 57)	박인영(의대 69)	오경호(수의 60)	김중권(의대 63)
박인창(농대 65)	이중희(공대 53)	박경룡(약대 63)	민병갑(문리 63)	전성진(사대 58)	변우진(인문 81)	조문희(공대 56)	박일영(문리 59)	오징현(임태 81)	문상규(의대 56)
박일우(의대 70) 박임하(치대 56)	이창무(공대 54) 이채진(문리 55)	박노면(사대 50) 박서규(법대 56)	민인기(의대 67) 박건이(공대 60)	전재우(공대 61) 정인식(상대 58)	성욱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조병권(공대 64) 조형원(약대 50)	박홍우(문리 61) 박흥영(공대 65)	유우영(의대 61) 윤영돈(법대 59)	박창익(농대 64) 송용덕(의대 57)
박자경(생활 60)	이 청(농대 61)	부영무(치대 72)	박경숙(간호 71)	정창동(간호 45)	왕규현(의대 56)	차대양(공대 55)	서기병(상대 55)	임수암(공대 62)	안창현(의대 55)
박제인(약대 60)	이청광(상대 61)	손창순(공대 69)	박수안(의대 59)	정해순(간호 68)	주한수(수의 62)	채무원(의대 59)	서윤석(의대 62)	정량수(의대 60)	이정필(의대 60)

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 (2015. 7 ~ 2017. 6) 제13대 2년동안의 후원금 & 광고비

27

변수도 1	전영자(미대 58) 조동건(공대 69) 최준희(의대 58) 한기빈(공대 52) 홍순호(수의 74) 황현상(의대 55)	캐롤라이나 SC/NC/KY 이달호(사대 45) 이범세(의대 59) 이석형(사대 56) 이항열(법대 57) 한광수(의대 57)		기승태(의대 57)	최경윤(사범 51) 최태식(의대 69) 황양수(사대 64) 하트랜드 IA/MO/KS/NE/ AR/OK	구명순(간호 6 권준희(가정 8 김경숙(가정 7 김명자(문리 6 김승희(법대 5 김시근(공대 7 김호원(치대 5	87) 백산옥(문리 52) 70) 이상강(의대 70) 62) 임영신(의대 54) 55) 정민재(농대 70) 72) 최은관(상대 64)	김한섭(의대 53) 김환영(공대 61)	박유미(약대 62) 박태우(공대 64) 유한창(공대 69) 이규진(약대 60) 이길영(문리 59) 이찬주(문리 63)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탁순덕(사범 57)
변설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017.7- 2018.6 남가주 S.CA/NV 강영호(의대 57) 강희창(공대 57) 권기상(상대 72) 권처균(공대 51) 김규현(법대 53) 김성복(공대 50) 김성환(의대 65) 김순길(문리 61) 김용재(의대 60) 김일영(의대 60) 김택수(의대 57) 김현황(공대 64) 문동수(공대 73)	박임하(치대 56) 박종수(수의 58) 박장호(농대 63) 백성식(약대 58) 손선행(간호 69) 심상은(상대 54) 오양숙(간호 60) 유석홍(음대 66) 유재환(상대 67) 이건일(의대 62) 이기재(사대 52) 이소희(의대 61) 이원의(문리 73) 이정희(음대 55) 이준호(상대 65) 임동규(미대 57) 전상옥() 정예현(상대 63) 조동진(의대 59)	최경홍(공대 60) 최재윤(인문 54) 허영진(문리 61) 북가주 SAN FRANCISCO 부영무(치대 72) 강명식(의대 61) 손창순(공대 69) 안호삼(문리 58) 이관모(공대 55) 최경선(농대 65) 뉴욕 NJ/NY/CT 강영선(공대 50) 김동환(약대 56) 김봉련(사대 54) 김상만(법대 52)	김유순(간호 64) 김은섭(의대 53) 김종현(법대 57) 김진자(간호 60) 라준국(공대 48) 민평갑(사학 63) 박순영(법대 56)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변해순(간호 68) 성기로(악대 49) 손갑수(악대 59) 송영순(사대 60) 유영호(의대 52) 윤영섭(의대 57) 이영숙(간호 56) 이태상(문리 55) 임공세(의대 61) 전성진(사대 54)	최수강(의대 71) 최영태(문리 67) 허경열(의대 73) 허병렬(사대 42) 허선행(의대 64) 홍정표(음대 67) 김세중(공대 50) 맹광호(문리 71) 장화자(간호 60) 누잉글랜드 MA/RI/NH/ME/VT 김광수(자연 73) 김정환(공대 52) 최선희(물리 69) 홍지복(간호 70)	MT/CO/WY/NI 송요준(의대 6 미네소타 MINNESOTA 김권식(공대 6 왕규현(의대 5 샌디에고 SAN DIEGO 임춘수(의대 5 전원일(의대 7 시카고 IL/IN/WI/MI 강영국(수의 6 박창욱(공대 6 안신훈(공대 6 안은식(문리 5	M 이갑조(간호 51) 4) 이성길(의대 65) 이서영(상대 46) 임병훈(의대 54) 장시경(약대 58) 1) 한의열(공대 62) 8) 함성덕(문리 55) 오하이오 OHIO 7) 최인갑(공대 57) 김용헌(광명대학원 66) 앨라스카 ALASKA 하인환(공대 56) 오레곤 OR/ID 5) Shin,JD(인문58)	DC/MD/VA/WV 고무환(법대 57) 박일영(문리 59) 박홍후(인문 61) 서휘열(의대 55) 송윤정(인문 89) 이선구(인문 65) 이재승(의대 55) 차임경(가정 77) 이유세(사대 72) 워싱턴주 WASHINGTON 이순모(공대 56) 홍영옥(음대 54) 조지아 GA/AL/MS	MID-TEXAS 김장환(공대 81) 박태우(공대 64) 진기주(상대 60) 필라델피아 PA/DE/S,NJ 강영배(수의 59) 문대옥(의대 67) 이수경(자연 81) 전무식(수의 61) 정정수(의대 56) 조영호(음대 56) 최종문(공대 61) 한인섭(약대 63) 플로리다 FLORIDA 전영자(미대 58)	HAWAII 구해근(문리 60) 하트랜드 IAMOKSNE/AR/OK 백산옥(문리 51) 김승희(법대 55)
하기한(공대 66) 900 뉴잉글랜드 권기현(사대 53) 200 한재은(의대 59) 1,000 이경림(상대 64) 240 International,Inc 이병준(상대 55) 480 (이원로)	남가주 강창욱(의대 55) 고영 영(수의 63) 김경숙(산대 75) 김동석(음대 64) 김동석(음대 68) 김동석(음대 68) 김동석(음대 68) 김용재(의대 60) 김유종(상대 59) 김자종동(범대 58) 나무섭(의대 66) 민병갑(사학 63) 박범순(공대 53) 박범순(공대 53) 박정주(우의 58) 박정주(우의 58) 박장수(우의 58) 박장수(우의 58) 박장수(우의 58) 박장수(유대 71) 서 진산(왕) (장대 54) 안혜정(공대 64) 위종민(공대 65) 역동해(농대 64) 위종민(왕대 67) 이 강원(인의대 62) 이병건(왕대 55) 이정복(왕대 55) 이정본(왕대 56) 이정본(왕대 56) 이정본(왕대 56) 이정본(왕대 56) 이정본(왕대 57) 이 정동역(왕대 56) 이정본(왕대 56) 이정본(왕대 57) 제영혜왕(왕대 56) 전경왕(임대 77) 제영혜왕(왕대 56) 학자(왕대 56) 학자(왕대 57) 제영혜왕(왕대 56) 학자(왕대 56)	홍 진(건 황만의(2) 100 200	반호 56) 500 사대 59) 675 oter 2,000 사대 60) 200 공대 61) 300 상대 62) 200 공대 60) 200 보건 64) 200 공대 50) 75 공대 71) 1,200 상대 59) 200 양대 59) 200 양대 59) 200 양대 64) 500 의대 59) 1,200 막대 64) 500 의대 52) 400 의대 52) 400 의대 52) 200 양대 53) 1,200 명대 54) 1,25 문리 68) 200 양대 50) 400 양대 51) 500 양대 52) 725 상대 61) 500 양대 53) 200 양대 53) 400 양대 54) 1,000 양대 55) 200 양대 56) 400 양대 57) 200 양대 58) 400 양대 58) 400	목키마운틴스 송요준(의대 64) 미네소타 13명 13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	변만식(사대서 서윤석(의대 서윤석(의대 서윤석(의대 수인환(문리대 이영로 문대대 이영로 전병대 전화속(약대 건화속) 전환 전 등 등 대 김성영 열 (동대 김성영 열 (동대 김성영 열 (동대 김성영 열 (동대 김성왕 (동대 김성왕 (동대 김성왕 (동대 김성왕 (동대 김성왕 (당대 김성왕 (당대 김 등 학명 (학대 김수수 (약대 김 은 숙 (약대 김 은 숙 (약대 김 은 국 진(병대 김 주진(병대 김주진(병대 김주진(병대 김주진(병대 김주진(병대 의대 원종 (우)이 이 인생숙(기)에 연명 (의대 전무식(상대 전무식(상대 전무식(상대 전무식(상대 전무)에 등 인대(역의대 전무보(상대 정흥민(상대의 전후 등 인대 (당대 전후)에 전함하다 전투 (양대 전후)에 전함하다 전후 등 인대 (당대 전후)에 전환하다 전후 등 인대 (당대 전후)에 전환하다 전후 당대 (당대 전후)에 전후 등 인대 (당대 전후)에 전후 등 인대 (당대 전후)에 전후 당대 전후 등 인대 (당대 전후)에 전후 당대 전후 당대 (당대 건후)에 전후 당대 전후 당대 (당대 건후)에 전후 당대 전후 당대 전후 당대 전후 당대 전후 당대 당대 당대 전후 당대	49) 200 62) 400 63) 200 65) 200 66) 200 62) 200 62) 200 62) 200 62) 200 62) 200 63) 200 61) 200 63) 300 77) 45,000 66) 200 77) 45,000 66) 400 57) 225 100 57) 225 100 57) 200 77) 45,000 66) 400 57) 200 77) 45,000 66) 57) 2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45,000 77) 200 61) 200 77) 200 61) 200 77) 200 61) 200 77) 200 61) 200 77) 200 61) 200 77) 200 61) 200 77) 200 61) 200 77) 200 61) 2	호병훈(문리 44) 200 하와이 1,200 집승태(의대 57) 400 집창원(공대 49) 1,200 회태식(의대 69) 200 하트랜드 구평순(간호 66) 200 권준희(가정 87) 50 김경숙(가정 70) 300 김시근(공대 72) 200 이상강(의대 70) 5,000 이은미(자연 83) 200 최은관(상대 64) 500 휴스턴 김환영(공대 61) 200 전기주(상대 60) 200 채희순(동문 처) 200 집차원(공대 54) 75 최완주(공대 83) 200 김창원(공대 61) 200 지청원(공대 76) 200 지청원(공대 56) 200 김창원(공대 56) 200 김창원(공대 56) 200 김청원(공대 56) 500 소재옥(가정 77) 2,000 이근일(의대 62) 150 임병훈(의대 77) 3,000 은재옥(가정 77) 3,000 의원섭(농대 77) 3,000 의원섭(농대 77) 3,000 이원섭(농대 77) 3,000<	박석규(간호 59) 박종승(의대 56) 성흥환(수의 75) 이원섭(농대 77) 임영자(간호 61) 임정변(문리 61) 정명화(산호 45) 장창동(산호 45) 차기민(공대 85) 장신이사비 김중권(의대 63) *오인석(법대 58) 한귀희(미대 68) (* 한번 이상 내 Golf 후원급: 이전구(동대 60) NE Chapter 기타: 김영실 (업소록 생상대 81) 게동휘(치대 67) 김기택(우의 81) 김도명(농대 67) 김기택(우의 81) 김도명(왕대 67) 김기택(우의 81) 김도명(왕대 67) 김기택(동대 70) 김성래(지대 76) 김선라(왕대 62) 김원탁(의대 79) 박희주원(의대 79) 이경함(상대 64) 이병준(상대 64) 이병준(상대 55) 이상대 55) 이상대 56) 이성대 570 임일(문리 53)	5,000 이종도 100 이종도 200 이장선 200 이장선 500 정저지선 500 정저지선 500 정저지선 500 정저지선 500 정저지선 200 최목등 500 한타터로 200 최목등 100 감기 다른 1	변(간호 69) 480 년(기 74) 200 년(의대 72) 240 년(의대 72) 240 년(의대 72) 240 년(사건 82) 240 년(사건 81) 200 년(사건 70) 400 년(사건 70) 년(사건 70) 년(사건 70) 년(사건 70) 년(사건 81) 1,000 년(사

29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28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 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볍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274호 | 2017년 2월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www.isope.org, jschung@isope.org

Auto Plaza Group, INC.

GA 조지아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Tel. (201) 944-5353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172 Main Steet Fort Lee, NJ 07024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American Int'l Line, Inc.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윤세웅 비뇨기과 김성래 (치대 76)

계동휘종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

Wayne Kye D.D.S, M.S 계동휘 (치대 67)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Tel.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Tel. (718) 461-6212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CENTER

김치갑 (의대 73)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Tel. (201) 541-1111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렬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렬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MD · VA ·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Drivetech, Inc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 꿈꾸는 모든 여행。) 가능합니다

🏏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광고문의: (484)344-5500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주소 :		전 주소 :		
업소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	특별후원금
□ 연 \$200	□ \$75 (1년: 2016.7~2017.6)	\$240 (2016 _. 7~2017 _. 6)	*문의: 사무국	☐ Education (장학금)
□ 연 \$500	□ \$75 (1년: 2017.7~2018.6)	☐ \$240 (2017 _. 7~2018 _. 6)	484-344-5500 Ext 302	☐ Charity (나눔)
□ 연 \$1,000	1년: \$75 / 2년: \$150	1년: \$240 / 2년: \$480	Email: general@snuaa.org	☐ Brain Network 후원
□ \$				□ 모교발저기근

□ \$_____ □ \$신이사회비(\$3,000이상) □ □ □ 모교일선기급 보낼 곳: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aa.org

지불 방법: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484-344-5500 Ext 302 Check No ::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 No.: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엔지니어링 컨설팅

엄달용 (공대 69)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Tel. (301) 279-6969

부동산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전세계 파트너쉽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① USO 77 213-388-4000

지부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Pay to order of 'SNUAA-USA'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74호 | 2017년 2월 274호 | 2017년 2월 30

Purpose(목적):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귐)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흥조(치) · 이영묵(공) · 이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 고문 전방남(상)·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심회진(음)	사업국장	한중희(공)
조직국장	백옥자(음)	섭외국장	박형준(공)
재무국장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Webmaster)	【 김원영(미)	사무장	서경희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 정홍택(상) 주필 편집위원장 김정현(공) 【 김진우(공) · 심회진(음) · 이상봉(문) · 이성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지재원(사) · 한정민(농)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억(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김태연

논설위원장: 이항열(법)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 김병연(공)·김용헌(상)·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언(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Feb-Jan	
S.CA/NV	차기회장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gamkocpa@hotmail_com	. 00 00.	
북가주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SANFRANCISCO	차기회장				Jan Boo	
뉴욕	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_com	July-Jun	
NY/NJ/CT	차기회장	이대영(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July-Juli	
뉴잉글랜드	회장	정태영(문리 71)	978.908.0196	chungty1@snu_ac_kr	lul lun	
MA/RI/NH/ME/VT	차기회장	박영철(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 Jul-Jun	
 달라스	회장	이석호(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1 5	
LA/DALLAS					− Jan-Dec	
록키마운틴스	회장	최용운(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1 5	
MT/CO/WY/NM	차기회장				- Jan-Dec	
 미네소타	회장	황효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MINNESOTA	차기회장				Jan-Ded	
 샌디에고	회장	이정석 (공대 87)	858.243.3254	jslee029@gmail.com		
SAN DIEGO	차기회장				Nov-Oc	
 시카고	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IL/IN/WI/MI	차기회장				- Jan-Ded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ARIZONA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ALASKA		,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포레트 OR/ID	차기회장	, ,,_,,		<u> </u>	Jan-Ded	
 오하이오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_net		
OHIO 조하시조	차기회장	010 1 (00) 12)	014,070,0701	Timoriano e amonto o nino		
워싱턴 DC	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TA O D DC DC/MD/VA/WV	차기회장	정세근(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 Jul-Jun	
 워싱턴주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WASHINGTON	차기회장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mrmsft@hotmail.com	Jan-Ded	
유타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_utah_edu		
π∽ι UTAH	차기회장	BEB(8-11 00)	701,001,0072	That today oboot, attain, odd	Jan-Ded	
조지아	회장	주지영(문리 66)	706,338,4520	jane_chu_ga@gmail_com		
조시역 GA/AL/MS	차기회장	1718(E4 00)	700,000,1020	jano,ona,ga@grnaii.oom	Jan-Ded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_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최경	130만(합대 70)	312,730,4000	TIDCHIS@gridii.com		
	회장	최정웅(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의상 차기회장	최성웅(용대 64) 박혜란(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 Jul-Jun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_net	- Jul-Jun	
	차기회장	정치영(법대)				
캐 롤 라이나 SC/NC/VV	회장	지원식()			_	
SC/NC/KY	차기회장	7111-/7-000		Lincolo (Control Control Contr		
테네시	회장	김상호(공대 86)		kimsh@oral.gov	Jan-De	
TENNESSEE	부회장	NI IZVO-1	000 050 051 1			
하와이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 Jul-Jun	
HAWAII	총무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_edu		
하 틀 랜드	회장	김제권(사대 68)	918.810.6393	jaykwonkim@hotmail.com	Sept-Au	
IA/MO/KS/NE/AR/OK					Jan-Dec	
휴스턴	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HOUSTON	부회장				- Jan-Ded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_com		
캐나다 밴쿠버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 Jan-Ded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캐나다 앨버타			<u> </u>	<u> </u>	Mar-Feb	

소장 한정민(* 87) Monica Lee, LCPCw.org, www.FCCGW.org

워싱턴가정상담소



- ▶매릴랜드(Columbia), 주 1-2회 상담 제공(2월부터) ▶인터넷/스마트 폰 과다사용 관련 세미나(3월)
- ▶과잉행동(ADHD),청소년 우울증, 성교육 세미나(3월)
- ▶연례모금행사(5월)
- ▶성인미술 워크샵-마음과 미술이 만날때(5월)
- ▶하나되기 캠페인-스카이 매도우 공원 산행(6월) ▶시니어를 위한 지역봉사-내방 상담, 그룹 특별활동

GT(Green Tree)Learning Center



- ▶봄맞이 그림공모전(K-12학년)
- ▶또래 그룹 학습지도(P2P) ▶개별 학습지도
- ▶"배우고, 즐기는"여름캠프(1-6학년)
- ▶그룹 미술 프로그램

31

- ▶청소년 리더쉽 그룹제도(9-12학년)
-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행,지도자상 수여

*개인 및 단체 후원은 아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본 기관은 비영리단체로 모든 후원금은 세금공제혜택이 있습니다.

1952 Gallows Rd., Ste 210 Vienna, VA 22182

703,761,2225, counseling@fccgw.org, www.FCCGW.org





STATIONERY & GIFTS FOR PET AND NATURE LOVERS MADE IN U.S.A.









김명혜 (미대77)

WWW.PAPERRUSSELLS.COM INFO@PAPERRUSSELLS.COM

P. 866.517.7738 F. 801.479.4663



